

#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286호 2018년 2월 SNU Alumni Association USA |**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Fax: 978-353-1882 | 발행인: 윤상래 편집인: 김원영

# 남가주 동창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새회장에 강신용 (사대 73) 동문 취임



지난 2월 3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Oxford Palace Hotel에서 2018년 서울대학교 남가 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가 300여 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유병원(상대 76) 총무국장의 사회로 개회선 언에 이어 애국가 제창(선창: 장진영, 음대 88)과 교가(선창: 방석훈, 농대 56) 제창이 있 었다. 다음 내, 외빈 소개에 이어 오흥조(치 대 56) 전 총동창회장의 격려사가 다음과 같 이 있었다. "신년총회에 참석하여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대단히 행복합니다. 저는 1999 년 24대 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서울대학 교 동창회의 산 증인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사랑하는 마음 이 모여 발전을 거듭하여 미주동창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아니라 여러분들 은 미주 동포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 십니다. 따뜻한 격려와 손길을 내밀어 더욱 자랑스런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 늘처럼 내일도 열심히 살아 가는 서울대인

이 됩시다." 성낙인(법대 68) 서울대 총장이 축사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보내 왔다." 서울대 미주 동문 여러분께서는 정직과 성 실, 헌신으로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긍지 와 위상을 드높이고 계십니다. 특히 2,500 여명의 남가주 지역 동문들께서는 다른 어 떤 지역보다 끈끈한 동문 결속과 친교, 교류 로 미주 동문사회를 선도해 왔습니다. 오늘 새로이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하 시는 강신용 동문님은 총무국장 등으로 많 은 일을 해 오셨으며, 공회계사로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 오셨습니다. 앞으로 신임 강신용 회장님의 이러한 경험, 지혜, 열정과 탁월한 리더쉽을 통해 다른 어떤 지역동문 회 보다 동문들의 화합과 결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문 여러분들 의 지속적인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 윤상래(수의대 62) 미주동창회장은 축 사에서, "오늘 선후배 동문님들을 만나게 되 어 반갑습니다. 남가주 동창회는 지난 43년 간 끊임없는 발전을 하여 서울대 미주동창 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반석 위에서 더 큰 발전을 할 것을 믿습니다. 미주동창회 도 금년에 27주년을 맞이합니다. 당면한 고 령화의 문제는 장래의 심각한 도전을 부여 합니다. 현재 미주동창회비나 후원금이 50, 60대 동문님들에게서 오는데 향후 10년, 20 년이면 미주동창회에 재정 곤란이 올 것입 니다. 미주동창회는 고정 경비가 있어서 재 정 자립이 절대로 요구되고 바, SNUAAUSA FOUNDATION은 이런 면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설립,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남가주 동창회는 가장 큰 지부로서 여 러분들의 참여가 있으면 미주동창회의 기 금 육성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가 주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강신용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 고 말했다.

이어 유병원 총무국장의 사업보고와 송두 일(상대 82) 재무국장의 재무보고로 이어졌 다. 이어강신용(사대 73) 신임회장 및 한귀 희(미대68) 수석부회장 인준이 있었고, 성 주경(상대 68) 총동창회장의 정기이사회 결의사항 보고가 있었다. 다음 성주경 총동창회장이 이임회장단에게 감사장을 증정하였고, 정인환(법대 54) 법대회장, 한효동(공대 58) 공대회장, 한귀희(미대 68) 미대회장, 이호진(간호대 74) 간호대회장, 권희재(상대 80) 상대회장, 안혜정(가정대 77) 가족의 밤위원장, 염인숙(가정대 78) 가족의 밤위원장 등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이어 박선우(음대 13) 동문에게 발전기금 미주재단 이만택(의대 52) 이사장이 장학금 \$2,500을 수여하였는데, 박선우 동문은 서 울예고와 서울음대 성악과를 전액 장학생 으로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다수의 콩쿨에 서 수상했으며, 현재 USC Thomtron School of Music에서 우수 장학생으로 석사과정 이 수 중이다. 2018년 4월 Postcard from Morocco에서 Lady with Hand Mirror주역으로, 또한 2018년 아스펜 뮤직페스티벌 장학금 수료 및 공연 예정에 있는 장래가 촉망되 는 동문이다. 성주경 총동창회장의 이임사

>> 6면에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시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제5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

#### 성낙인 총장 기조 발제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헌법상 정 부형태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미국식 대통 령제, 의원내각제, 절충형(권력분산형), 이 원정부제(반대통령제)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정립된 모델로 대통 령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집행부의 권력구 조와 의회 사이에 두 개의 국민적 정당성 의 축이 병존한다.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 독자적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권력분립의 모델이다. 대통령제 하에 우리나라가 평화 적 정권교체를 거듭했다는 점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러시아에선 변칙적 장기 집권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원내각제는 유럽에서 정립된 모델로 집 행부의 구조가 국가원수와 수상으로 이원 화돼 있지만 집행권은 사실상 수상을 중심 으로 한다. 정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 회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의무와 함께 의 회를 해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 또한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의회는 그 성립 과 존속이 상호 연계돼 있다.

후발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두 모델 중 하나를 채택해 실행했지만 제대로 정립되 지 못한 채 잦은 정변을 야기시켰으며, 독 일.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각각 건설적 불신임투표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절충형 정부형태를 띠고 있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 각제적 요소가 각각 37.5%이상 62.5%이하 를 띠며 대통령 직선제와 대정부 불신임권 을 특징으로 한다. 성 총장은 "현행헌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이원 정부제가 가장 현실적인 개헌 방향"이라 며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전통적 지위 와 권한을 갖지만 일상적인 행정권의 실 질적 책임과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부여하 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직대 통령이 재선에 출마할 경우 야기될 수 있 는 관권선거 등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당분 간 5년 단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는 역대 대통령의 임기말 부패 스캔들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

# "이원정부제, 제왕적 대통령 견제하는 가장 현실적 대안"



2018년 새해를 맞아 개헌이 본격적인 화두에 오르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회사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72.3%가 1987년 만든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11명 중 7명이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편으로 이원정부제를 선택 했는데,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관악 캠퍼스 삼익홀에서 열린 제5회 국가정책포럼에서 성낙인 모교 총장 또한 '헌법 민주시민의 생활헌장으로'라는 발표문을 통해 같은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끈다.

으며, 권력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통 령의 절대적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나날이 부각되는 개헌 필요성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 이뤄진 개헌은 급 | 말했다.

작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시대적 요청인 대통령직선제는 마련했지만, 다른 부분에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 다. 성 총장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헌 법은 21세기적 시대요청인 세계화지방화 정보화 또한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세계화 측면에서 다문화는 우리사회의 엄연한 현실이어서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 이 더 이상 민족주의적 관념을 고집할 수 없게 한다. 또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로 는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국정운용이 불가 능할 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만 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강화 해 각 지역이 고유의 특색을 살리고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정보화 는 우리의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기 본권 측면의 알권리 사생활보호 차원뿐 아 니라 정보 격차의 해소, 국정운영의 투명 성 제고 등은 민주주의의 현실적 구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더욱 중요하다.

286호 | **2018년 2월 호** 

성 총장은 한편 "정부형태에 대통령을 두 는 한 헌법은 대통령 유고시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권한대행 또는 후임자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세밀하게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 당시 이를 공식적 으로 판단할 기관이 없어 국무총리가 국 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유 고를 확인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그 는 또 대통령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선거 와 대통령 유고에 따른 후임자선거 규정이 어긋나는 데 따른 문제점도 꼽았다. 예컨 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유력 후보가 사망 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 성 총장은 "1956년, 1960년 대선 때 민주당의 신익희 조병옥 후보가 사망함으로써 선거가 변질 된 실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은 중 대한 헌법적 공백"이라고 짚었다.

그밖에 성 총장은 "그간의 개헌은 주로 권 력구조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뤄 국민 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다소 소외돼 있었 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상 기본권 특히 자유권을 단순히 자유 또는 권리에 한정 할 것이 아니라 안전까지 포괄하는 형태 의 기본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 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촛불혁명 이후 직접민주 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 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제한적으로 작동 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헌법적 근거를 마 련하면 위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나경태 기자]

- 1. 남가주 동창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 2. 제5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

목차

- 3. 기고: 국제형사 정의의 새로운 변화 송상현
- 4. 기고: 실학사상과 AI 아카데미, 서정화 / 전문지식의 위기와 서울대인, 이용식
- 5. 기고: 새시대 경제성장 이론, 정계훈 / 2018년 자본주의의 진로 백순
- 6. 지부 소식: 남가주 동창회 2018년 정기이사회 개최
- 7. 지부 소식: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 신년회 / 이의경 (농대 72) 동문 독창회
- 8. 지부 소식: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 / 남가주 미대 동창회
- 9. 지부 소식: 플로리다 동창회 백양희 / '이준행 특지 장학금' 수여식 / 이상묵 문학상 수상 10. 지부 소식: 서울대 글로벌인재 특별 전형 모집 설명회 / 뉴욕지역 서울음대 동문 2017 송년 음악회
- 11. 기고: 인류의 나이는 사춘기, 최용완 / 자기 수명 결심하기, 이원영
- 12. 기고: 米壽의 소망, 이용락
- 13. 기고: 米壽의 소망, 이용락
- 14. 기고: 전환기의 이민사회, 연봉원
- 15. 기고: 초상화, 천양곡
- 16. 미국속의 나의 발자취: 나의 평생을 바친 韓國半導體, 강기동

17. 미국속의 나의 발자취: 나의 평생을 바친 韓國半導體, 강기동

■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 글은 본 회보가 Copyright을 갖습니다

- 18. 미국속의 나의 발자취: 나의 평생을 바친 韓國半導體, 강기동
- 19. 기고: 세계 7대 전함과 이순신 '거북선'의 재발견, 이내원
- 20. 꽁트: 산속의 소녀, 이석호
- 21. 연재 : 가발과 함께 걸어온 나의 86년 인생 (Part 7) 이준행
- 22. 기고: 지난 12월 호 '예술은 구원인가?' 기고를 읽고...,이태싱
- 23. 기고: 역강하면서도 서정적인 테너 프랑코 코렐리 (Franco Corelli), 한수웅 24. 기고: 역강하면서도 서정적인 테너 프랑코 코렐리 (Franco Corelli), 한수웅
- 25. 후원금 집계
- 26. 동창회비 집계
- 27. 동창회비 집계 및 후원금 납부 양식
- 28. 미주 동문 업소록
- 29. 미주 동문 업소록
- 30. 제14대 미주 동창회 집행부 조직도, 2017 미주 지역 동창회 회장단 명단
- 31. 광고, 종신이사회비
- 32. 광고



송상현 (법대 59)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인류는 다시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세계대전을 방지 하고 세계평화를 누리고자 유엔을 창설하 였다. 유엔은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 이사회의 집단안전보장체제라는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그동안 불충분하나마 세계 평화를 잘 유지하여 왔다. 국제사법재판소 는 주로 국가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총 칼을 드는 대신 재판을 통하여 이를 평화 적으로 해결해주는 사법기관이다. 안보리 의 집단안전보장체제는 한국전쟁 당시의 군사개입이나 최근의 각종 집단제재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전쟁억제와 평화유지기능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전후 70여 년 동안 유엔의 이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성 에 안차는 느낌이 있었다. 그것은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가동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그 전쟁을 일으킨 주범을 처단하여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즉 유엔의 군사개입이 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평화와 안전을 확보한 경우에도 전쟁이나 집단학살의 책 임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부정축재한 재산 을 가지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낸다면 인 류의 양심과 정의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 가 하는 문제다. 이것이 인류의 염원인 국 제형사재판소가 탄생한 배경이고 필요성 인 것이다.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 르크와 도쿄에 전범재판소를 설치하여 전 쟁범죄자들을 단죄함으로써 최초로 개인

# 국제형사 정의의 새로운 변화

을 국제법정에 세워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 후 영구상설 의 국제형사재판소를 창설하자는 논의가 반세기 이상 있어왔고 마침내 1990년대에 는 구 유고전범재판소와 르완다학살재판

30년간 그 나라의 국민소득성장과 맞먹고 보통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20년이 걸린 다고 한다. 이 경우 부당면책만 계속되면 이는 피해자 측의 복수심을 유발하여 끊임 없는 충돌의 원인이 되므로 확실한 책임추 궁을 하여 일단 법의 지배의 닦는 것이 전 쟁을 겪은 사회가 다시 빨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지름길이 된다.

세계은행보고서에 의하면 중규모의 개도

국이 내전으로 인하여 입는 평균 피해액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회원국에만 미치므로 북한과 같은 비회원국에는 해당 이 없으나 유엔안보리가 결의를 하면 비 회원국이라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 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 있다. 이 것이 바로 비회원국인 북한의 김정은을 국

적 방안을 도입했다. 첫째는 피해자가 독 자적으로 형사절차에 참가하여 거의 당사 자와 비슷한 수준의 각종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소나마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길을 열었다. 둘째로 국제형사재 판소는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을 마련하 여 적극적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 소는 수많은 전쟁피해자들에게 날마다 직 업훈련과 의료봉사는 기본이고, 강간피해 자를 위한 지속적 심리상담, 어린이교육프 로그램운영, 사지를 잃은 피해자에게 의수 족의 공급, 평화교육, 생업정착을 위한 미 소금융 등 다양한 구제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취약한 피 해자집단은 어린이와 부녀자들이다. 어린 이들은 대부분 소년병으로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온전치 못하고 부녀자들은 영유아 가 딸린 젊은 과부들이 대부분이다. 피해 자신탁기금은 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 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유니세프와 같은 유엔 산하 각종 원조기관과 현장에서 협력 하면서 이들을 돕는다.

전쟁피해자의 고통은 전연 개선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로마규정에 두 가지 혁신

바야흐로 국제형사정의는 이처럼 처벌을 통한 고전적인 응보적 정의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회복적 정의와 치유적 정의를 포 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 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단순히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처벌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구제까지 해주는 인류역사상 최초의 법원 이라는 점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은 인류가 간직해온 오랫동안의 소망이 성취 된 것이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앞장 서서 시도하고 있는 응보적 정의의 실현 을 통한 부당면책의 종식은 물론 회복적 이고도 치유적 정의로 과감하게 확대해나 가는 이 숭고하고도 어려운 실험은 결코 실패해선 안된다. 그래야만 국제형사재판 소는 유엔의 두가지 분쟁해결수단과 상호 보완하여 좀더 확대된 국제형사정의를 통 한 인류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보루가

# 개도국이 내전으로 인해 입는 평균 피해액 30년간 그 나라의 국민소득 성장과 맞먹어 회복에는 20년 이상 걸려

소라는 유엔 산하 임시형사법정이 설치되 어 상당한 평화 확보의 실적을 올렸다.

이와 같은 논의와 선례를 바탕으로 로마규 정이 채택되었고 2002년 7월 1일 드디어 헤이그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문을 열었 다. 그리하여 이 재판소는 유엔시스템과는 별도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가장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네 가지 극악무도한 범죄, 즉 전쟁범죄, 침략, 집단학살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관한 관할 권을 갖고 이를 저지른 수괴급 범죄자를 처단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에 출간된

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는 논의가 꾸준 히 대두되는 이유다. 다만 정치적으로 중 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회부 가 불가능하므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재 움직임이다.

우리가 국내외에서 운영하는 통상적 의미 의 형사법원은 범인을 처벌하여 응보적 정의를 구현하면 그 임무가 종료되고 만 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는 범죄수괴 개 인의 처벌이라는 기초적 형사정의만으로 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회가 충돌과 빈 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수많은

# 문을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헌환(법학78-82-한국 공법학회 회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의 고려요소로서 △기존 헌 법에 대한 진지하고 정확한 성찰과 이해 △현실적 개정 요구 △미래지향적 성격 등을 꼽으며, 성 총장의 발제문은 이를 빠 짐없이 짚고 있다고 말했다.

는 데 법이 기여할 수 있도록 나름의 법조

이 교수는 성 총장이 제시한 이원정부제 와 관련해 "대통령직선제가 쉽게 포기될 수 없는 가치임을 감안할 때 대통령과 의 회 사이의 협치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 가 관건"이라며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 구성의 전권을 의회에 주고 대통령 이 내각을 의결기구화하면 내각의 책임 이 강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도 책임감 있게 정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형(법학75-79)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 는 개헌의 공론화 과정을 강조했다. "통보 식으로 열리는 전국순회 공청회로는 부 족하다. 전 국민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거칠 수 있도록 '보텀 업'(bottom up) 캠페 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서 둘러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 라며 염려하기도 했다.

될 것이다.

청중으로 참석한 박한철(법학71-75.모교 법대 초빙교수) 전 헌법재판소장은 "촛 불혁명이라고 이름붙이긴 했지만 최고 권력자의 행태에 대한 시정요구였을 뿐 개헌 요구로까지 이어진 건 아니었다"며 "1987년 6월 항쟁 땐 대통령직선제 등 명 확한 이슈가 있었던 데 비해 지금은 그렇 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에서 선거제 문제를 헌법적으로 어떻 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중요할 것" 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 양현아·이헌환·홍준형 교수의 토론 "개헌으로 법이 우리 삶에 살아 숨 쉬게 해야"

84-88)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까지 9차례에 걸친 개헌의 특징을 짚었 다. 349차를 제외하면 모두 집권자 또는 쿠데타 세력이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 기 위한 방편으로 개헌을 오용한 것을 지 적하면서 "1987년 민주항쟁의 성과인 현 행 헌법은 체제 정합성이 다소 어긋나거 나 심지어 실수로 들어가 있는 조문이 있 다 하더라도 그저 타협의 산물이라고 말 하긴 어렵다"며 9차 개헌의 의의를 강조 했다. 또한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 지 이어진 촛불혁명이 1987년 민주항쟁

성낙인 총장의 발제에 이어 양현아(사회

과 닿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10차 개헌이 이뤄진다면 9차 개헌의 계승일 것"이라 고 말했다.

양 교수는 성 총장의 발표문에 쓰인 '시민 중심적 개헌'을 거론하면서 "헌법이 우리 삶속에 살아 숨 쉬게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촛불혁명 이후 헌법읽기모임 헌법 토론모임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헌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 이고 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 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별·성 정체성・국적・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



서정화 (법대 51) 총동창회 회장

미증유의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에 서는 전문가의 전문지식보다 실제로 무 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역량중심의 인재 가, 곧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 관건이 됨에 따라 교육 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된다. 이와 같 은 4차 산업혁명 격변기의 창의교육 대응 을 위하여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을 조 명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 당쟁격화 등에 따라 다산은 18 년 강진 유배 생활 속에서 다양한 저술을 통해 현실 개조책으로서의 성리학 비판 과 실학의 실사구시 중심의 개혁사상을 쏟아냈다. 18년간의 유배기간 동안 다산 의 삶은 서민들 생활 속에 있었다. 유배기 간 동안에 경험한 서민들의 삶이 당시의 시대상에 대한 회의를 갖게 했으며 다산 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

다산은 조선왕조가 병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삼정의 문란 때문이라고 보고, 백 성들 밑에 목민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백 성들 위에 목민관들이 군림했기 때문에 병든 사회라고 했다. 귀양이 언제 풀릴지 도 모르는 고난에 찬 삶을 살면서도 나 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병든 조 선을 치유하고자 '목민심서(48권)'를 집필

실학자로서 그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 하면 개혁과 개방을 통해 부국강병을 주 장한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가 한국

# 실학사상과 AI 아카데미

최대의 실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시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특히 성리학적인 역사관에서 벗어

한편 다산이 생각했던 교육적 인간상은 단순히 덕을 갖춘 인간이 아니라 경험적 이고 창조적인 삶의 역동적 순간에서 선( 善)에 대한 의욕을 키우고, 이러한 의욕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자기와 세상을 개 혁하는 '수기위천하인(修己爲天下人)'이 된다. 여기에서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 그 의 자주성은 중국 중심의 교육과정을 비

했으나, 이상적인 정치가 파괴되어 원래

백성을 위한 것이던 국가와 법이 통치자

의 압제와 백성수탈을 위한 도구가 됐다

고 보고, 고대의 이상사회를 무기로 하여

봉건적 전제 통치를 부정하는 등의 방법

으로 사회를 개조하고자 했다

"다산이 생각했던 교육적 인간상은 단순히 덕을 갖춘 인간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창조적인 삶의 역동적 순간 에서 선(善)에 대한 의욕을 키우고, 이러한 의욕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자기와 세상을 개혁하는 '수기위천하인(修己爲天下人)'이 된다. "

나 백성 중심에서 역사가 발전한다는 민 본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기술을 적극 개 발하고, 외국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부 국강병을 시도하는 한편 백성의 삶이 더 욱 윤택해지기를 바랐다. 그는 사회에 대 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당시 사회가 직면해 있던 각종 해체 현상을 직 시하고, 사회개혁을 위한 여러 방향을 모 색했던 것이다.

다산의 사회 개혁 사상은 그의 사회역사 관 위에서 형성됐다. 그는 고대사회를 이 상화하고, 이를 빌어 조선의 군주제를 거 부하고 민주정치를 제창했다. 그는 고대 사회가 이상 사회로 발전한 이후 왕도 예 치의 사회를 거쳐 패도 법제의 사회로 변

판한다. 수신을 통해 본인을 달성하는 교 육은 또한 타인을 달성하는 교육이 되니, 따라서 수기와 치인은 하나로 연결된다. 다산은 오학론(五學論)과 불가독설(不可 讀說) 저작을 통해서 당시의 교육풍토를 실용·실증·실리라는 그의 기본 사상에 입 각해 당시의 교육실태와 문제점을 지적 했다. 이를 통해 실학사상에 기초한 교육 의 성격을 구명했다고 할 수 있다. 오학론 에서 다산은 "오학이 번창하자 주공·공자 의 도는 잡초가 무성하듯 거칠어지기만 한데 장차 누가 능히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까?"라고 기술하고 있다. 성리학은 본연 의 임무인 도를 알고 자기를 인식하며, 실 천해야 할 도의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 않았으며, 훈고학은 그 본연의 임무인 경전의 정의를 밝혀 도와 교의 본 지에 통달하게 한다는 일에 불충실했다 고 했다. 다산 자신이 성리학 훈고학 문장 학의 대가였음에도 이 삼학을 통렬히 비 판했던 것은 퇴폐한 이들 학문연구에 대 한 비판이지 이들의 본질마저 거부한 것 은 아니었다. 불가독설은 전통적인 유학 교육에서 사용하던 천자문 사략 통감절요 를 읽혀서는 안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다산의 실학사상을 중심으로 사 회 환경에 미치는 외부 환경변화 요인과 그 변화대응을 위한 방안에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문제 해결 접근이다. 추후 대학은 실패 학습소에 불과해진다고 한 다. 한국적 접근수단으로는 대학과 기업, 싱크탱크의 협업화를 통한 인재 창조형 접근방안의 하나로 특정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접근해 '복합 문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구 조화가 요청된다.

둘째, 창의성 신장 강화 등이다. 창의성은 공상, 직관(정좌), 다르게 생각하기 등에서 나온다. 창의적 인간들의 특성은 상상, 열 정, 직관, 마음챙김 개발 등으로 두뇌 네트 워크를 활성화 시킨다. 깊은 질문을 찾는 것은 운동과 같다.

셋째, 융합 학문의 지향이다. 인문소양과 창의성 고양을 위한 융합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융합적 소양은 타인과 공감, 배 려, 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대학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가치 대응과 신 인재육성 대책으로 포스코와 포항공 대가 진행하는 'AI아카데미' 프로그램 등 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창업과 창직 구조 연계측면이다. 정책적 접근도 중요하나, 사회적이고, 근 본적 해결은 창의적 환경과 재능을 유발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인적, 혁신적 접근 이 필요하다. 창의형 제도 혁신을 위해서 는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을 중시하는 한 편 창의적 혁신동력이 시급하다.



동문들은 사회와 국가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재학 중에는 물론 졸업 후에 도 유형무형의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이 다. 2018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공익

전문지식의 위기와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관 악을 보게 하라. 이 말처럼 서울대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나라 최고 의 인재이자 지성이다.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 같은 선출 권력은 아니지만, 국가와 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에 따라 국가 흥망이 갈린다. 지금처럼 정 치가 포퓰리즘에 흔들릴수록 전문지식의 역할이 중요하다.

동문들은 모교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재정과 재능 등 직접적 지원을 아끼지 말 아야 한다. 그러나 이젠 전문가 집단으로 서의 책임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선 진국으로 갈수록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 성화돼 있다. 다양한 레벨의 동문 모임은 좁은 의미의 동문회 활동을 뛰어넘어 전 문지식 교류의 장 역할도 해야 한다. 이것 이 공익적 친목일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 도 서울대인들의 '퍼블릭 마인드'는 아직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동창회가 정치나 정책에 대해 결의하거 나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다양성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 은 동문 각자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할 창의적 방안들을 찾고 실행하는 일이다.

전문지식의 죽음이라고 할 정도로 전문



#### 새시대 경제성장 이론

정계훈 (문리 55)

미국 경제가 과거 10년 동안 계속 성장하 고 있다. 2천년도 말기에 불황을 격고있 던 미국경제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 범 후 경제부활 정책을 실행하여 년평균 2.1%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후 2017년 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도 친비즈니스 정책을 추구하며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현재 미국 경제가 년 평균 3% 이상으로 성장하고 실업률도 4.1%로 낮 아졌다. 새로 입법화된 감세정책이 실효 를 발휘하면 4% 경제성장률과 4% 이하 의 실업률도 가<del>능</del>하다.

기존 경제성장론에 따르면 경제가 활발 할 때 더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완전 고용 상태에서 고용을 증가 할 수없으니 임금이 상승하고 제품 재료와 완제품 가 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 여 정부는 통화량 감소와 긴축재정으로 인플레이션을 진압 하지만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불황을 초래할 수있다. 불황이 오면 정부는 다시 통화 팽창과 경기 부활 책으로 경제활성화를 시도 할 것이다. 미 국경제는 이같은 통화와 재정 정책으로 호-불황 싸이클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재래식 경제정책은 통화와 재정

지출을 팽창하면 시장 수요와 생산 공급 이 증가한다는 케인시안 (Keynesian) 경제 성장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부의 창출이 주로 노동에 의해 이 루어지고 경제 활동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을 때 적합한 정책이지 부의 창출이 IT 를 활용한 기술집약적 생산으로 인적 물 적인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집약적 인 제품 생산를 노동임금이 저렴한 외국 에서 수주하는 시대에는 합당하지 않다. 미국이 통화와 재정지출을 팽창하면 미 국보다 중국과 같은 저임국이 경제성장 혜택을 본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 환경에 서 수요가 증가하면 기업은 노동보다는 기술 투자에 전렴하고 생산기능을 외주 할 것이니 시장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물 가 상승없는 경제 성장이 단기적으로 가 능하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해외 생산으 로 국내 고용 기회와 중소 소득층의 수입 이 위축되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기대 할 수 없다.

예를들어 미국경제의 국제화가 활성했던 1980 년대 초, 새로 출범한 레이건 행정 부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단행하여 1980년에 7.1%이던 실업률을 1989년에 5.4%로 낮추었지만 경제성장률 은 3%에 머물렀고 재정 적자는1980년에 GDP의 26%이던 것이 1989에는 40%이상 으로 증가했다. 적자 재정의 급증으로 물 가 상승률이 8%이상으로 올랐다. 이에 비 교해 미국경제가 급격히 기술화와 국제 화 되던 2010년대 오바마 행정부 시대에 1980년도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 했는데 다른 것은 물가상승률이 2% 정도로 낮았 다. 기술화와 국제화된 새로운 경제환경 에서 물가 상승없는 경제성장이 가능하 다는 입증이다. 하지만 노동인구로 구성 된 중소 소득층의 소득수입 개선없이 장 기적인 경제성장을 유지 할 수있을지 큰 의문이다.

안정적인 통화와 재정정책하에서 미국경 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수요와 공 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 기술화 및 세계화 된 경제환경에서 생산공급 기 능은 어느정도 활성화 되었으나 생산품 공급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 수요가 부 족하다. 시장 수요를 확대하려면 수입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주로 노동인구로 구 성된 중소 소득층 수입을 개선해야 하는 데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국내 노동시장 개선없이 재래식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 행하면 주요 혜택 수해자는 미국의 국제 기업, 외국 제조업자와 주식투자자들이 고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은 저렴한 외제품 구입하는 것에 제한된다. 최고 경 영인과 일반 노동자 수입 비율이 신 경제 시대에 돌입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 100 대 1이하 이던 것이 2010년 대에는 거의 300대 1로 증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중소 소득층의 고용 기회와 수입을 개선 하여 소비 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이 런 목적으로 정부가 중소 소득층의 고용 과 수입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국인 고용 효과가 높은 기반 산업에 투자하거나 미 국시장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들을 유치하 여 국내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제 정 책이다. 나아가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Cell phones, Talking machines 등)을 외국 에서 생산하는 미국기업들을 유치하여 국내생산에 투자함을 종용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Apple 회사가 외국에서 환 원하는 자금을 국내에 투자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소비 증가를 위한 통화 확장 정책 은 서민들의 부채부담만 늘려 그들의 소 비 능력을 잠식할 것이고 복지 기금과 같 은 소득 재분배는 빈곤층 생계개선은 하 겠지만 재정적자 부담으로 장기적 소비 시장 개선책이 못된다. 또 수입을 억제하 기 위한 보호 무역정책은 무역 전쟁을 초 래하여 미국 제품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최근에 입법화된 감세혜택을 중 소 소득층의 고용 및 임금 개선에 상당부 분을 투입하면 시장 수요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 하겠지만 이런한 혜택이 상여금, 배당금과 주식 구입에 집중되면 빈부 차 이만 격화할 뿐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



백 순(법대 58) 논설 위원

세계경제의 흐름은 경제규모(총국 내생

산, GDP)를 기준으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3대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 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그

리 틀린 주장은 아닐 것이다. 3대경제는

최대규모 (\$20조)의 미국경제와 블록경제

로 가장 거대한 규모(\$17조)인 유럽연합

경제, 그리고 뜨는 경제 가운데 막강한 규

2017년 평균적으로 미국경제와 유럽연

합경제 , 그리고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각

각 2.2%, 2.2%, 6.8%, 실업률이 각각 4.1%,

8.8%, 4.0%, 소비자물가가 각각 2.1%, 1.5%,

1.6%, 등등으로 호황은 아니지만 2009년

대경제침체 이후 완만한 회복의 상황을

3대경제를 경제구조적인 관점에서 평가

한다면, 미국경제는 자유시장경쟁을 강

조하는 자유자본주의경제(Free Capital-

ism), 유럽연합경제는 복지를 앞 세우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경제 (Socialistic Cap-

italism), 그리고 중국경제는 공산당이 모

든 경제를 통제하는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하든 결국 자본주의의 특성, 즉 자본

주의의 진로는 '국가와 시장'과의 균형관

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결정됨

을 들어 내고 있다. 2018년을 마지하면서

국과와 시장과의 균형관계에 영향을 밎

칠 추세는 무엇인지 세계경제계에서 논

난되고 있는 주장들을 알아 보기로 한다.

첫째 추세는 미국경제에 있어서 기술대

기업에 대한 '반독점규제'(Antitrust Rules)

기술대기업인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에 대하여 벌금, 세금도피, 새 개인비밀법,

투명성강화, 대기업해산, 등등의 반독점

둘째 추세는 2017년 새롭게 등장한 프랑

스 대통령 메크론이 제창하고 있는 '신사

회개약론' (New Social Contract)이다.

규제가 추진되고 있는 현상이다.

등을 강화하자는 경향이다.

보여 주고 있는 현황이다.

모(\$12조)인 중국경제 등을 지칭한다.

메크론이즘(Macronism) 이라고 명명되 고 있는 신사회개약론은 시장경쟁과 기 업가정신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경제성장 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계층 을 보호해 주고 도와 주는 추세를 의미하 고 있다. 근로자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람 을 크게 개발한다는 주장이다.

2018년

자본주의의 진로

셋째 추세는 세계최대경제인 미국경제에 도전을 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날카로운 세력' (Sharp Power) 이다.

문화나 가치나 기술로 영향을 미치는 '소 프트 세력'(Soft Power)의 범위를 넘어, 군 사적이고 경제적인 힘을 과시하는 '하드 세력'(Hard Power)은 아니더라도, 정치적 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간섭 과 작용을 발휘하는 세력을 중국이 키우 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오스틀라리아나 뉴 지랜드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 등 정치인들을 통하여 중국에 유리한 정책도출을 시도 하고 있는 현황이다. 중국의 해외직접투 자가 2000년 거의 무에서 2016년 1천8백 억달라로 대폭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해 외유학생수도 2000년 1십 8만에서 2016 년 8십만으로 폭증한 것 등은 바로 중국 의 날카로운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증거

현재 대두되고 있는 3가지 추세, 즉 미국 경제의 반독점규제, 유롭연합경제의 신 사회계약설, 중국경제의 날카로운 세력 등등은 2018년 이후 세계 경제에 있어서 국가와 시장과의 균형관계를 특징지워 줄 자본주의의 진로를 결정해 줄 근본 요 인이 될 것이다.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술개발과 경 쟁의 균형, 사회주의적 자본주의경제에 서 복지와 기업가정신의 균형, 국가자본 주의경제에서 날카로운 세력과 세계화의 균형 등등이 얼마나 형성되느냐에 따라 세계자본주의의 진로는 밝음과 어두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전 미국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수

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러한 감세 혜택은 재 정 적자로 연결되어 경제성장 둔화와 불 황을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경제가 호황과 불황의 반복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재래식 통화 및 재정 정책,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 역과 부익부 감세정책에 집중하는 것보 다 중소 소득층의 실질 수입을 개선하여 시장 수요와 생산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 는 경제정책에 몰두해야 한다.

국제 경영전략 명예교수 (VA)

# 이용식 (공대 79)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

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취지를 잘 압축하는 것을

넘어 기여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바람

국립대학이든 국립대학법인이든, 모교

직하다.

#### 서울대총동창회는 '공익적 친목단체'다. 총동창회 회장단 송년모임에 배포된 주 요활동 자료에서 찾아낸 참신한 개념이 다. 사무처에 문의해 보니 이번에 처음 사 용한 표현이라고 한다. 회칙 제2조는 '본 적 친목'은 어떤 의미인가.

[관악춘추]

서울대인

사회의 의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가들의 권위가 추락한 시대다. 고등교육 일반화의 영향도 있지만, 손바닥 안에 모 든 지식이 들어와 있다는 인터넷 검색 탓 이 크다. 전문가들의 전문적 식견보다는 유명 블로그들의 톡톡 튀는 주장이 더 영 향력을 갖는다. 한국에서 특히 심하다. 많 은 사람들이 괴담에 더 솔깃하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 이미 그럴 조짐 도 보인다. 모교는 개교 70년, 개학 120년 을 훌쩍 넘겼고, 국가적으로는 선진국 진 입과 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있다. 최고 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 을 갖고 각자의 방식으로 '공익적 친목'의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서울대는 더 훌륭한 대학이 되고, 국가와 사회는 발 전한다.



성주경 전임 회장, 강신용 신임 회장

는 다음과 같다. "임원들과 단과대 회장님 들과 함께 행사준비를 의논하면서 진지하 게 대화하는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장학위 원회 시행 세칙, 경조사 지급규정, 미주동창 회 차기회장 출마 신청에 대한 사전조정(내 규) 등을 만들어 정기이사회에 통과됨으로 서 다음 동창회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2017년 임원진에 공로장 수여

2018년 강신용 회장은 역대회장 중 가장 젊 은 73학번이고 패기가 넘치니 우리 동창회 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이어 동창회기 전달식이 있었다. 다음은 최



신임회장단 발표 및 인준으로 계속되었다. 디음 한귀희 수석부회장 인사가 있었다. "올 한 해 강신용 회장님을 도와 열심히 일하고 많이 배워서 내년에 역대 회장님들께서 해 오셨던 동창회의 전통을 이어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최용준 총무국장의 2018년 사업계획 보고로 이어졌고 단체사진 촬영이 있은 후, 저녁식사를 하며 2017년도 행사사진 슬라 이드쇼가 있었는데, 이는 홍선례(음대 70) 문화위원장이 1년 동안의 행사를 찍은 사 진들이다. 다음 2부에서는 서울대 남가주 동문합창단이 "아리랑, 도라지" 등을 연주 하였고, 해밀 국악팀이 민요, "사랑가, 정선 아리랑, 밀양아리랑" 등을 장고 반주에 맞 춰 연주하였으며, "옹해야"는 관객들과 함 께 메기고 받는 유절형식으로, 3인의 창자 가 앞소리를 부르면 관객이 후렴을 따라 부

르며 모두는 즐거운 분위기였다. 박선우 동 문이 답례로 Puccini의 오페라 La Boheme 에 나오는 아리아, "Quando me'n bo"를 불렀는 데, 그 폭넓은 음량에 모두 감탄하였다.

286호 | **2018년 2월 호** 



Dancing Queen경연에서는 이상실(간호대 88) 동문이 수상하였다. 이어 복면가왕 대 전이 있었고, 대상은 지창열(문리대 83) 동 문의 "지중해"였고, 2등은 박승현(음대 85) 동문이 "Right Hand(Drake)"에 맞춰 춤을 추 어 상을 받았다. 이어 경품추첨에서는 특등 상인 한국왕복권 비행기표(성주경 2017 총 동창회장, 강신용 신임회장, 한귀희 신임 수 석부회장 제공)는 신정자(사대 63), 이명규( 미대 73), 백옥자(음대 71) 동문 등이 추첨의 행운을 안게 되었다. 그 외 상임이사와 단과 대회장들이 많은 상품을 기증하였다. 마지 막으로 동문들은 서로 악수를 주고 받으면 서 새해의 복을 빌어 주며 신년회는끝났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이어 단과대 회장단 소개가 있었고, 2018년

용준(수의대 81) 신임 총무국장의 사회로 진

행되었는데, 강신용 신임회장이 이임하는

성주경 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강

신용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동창회 제일

큰 잔치인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동

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동문 한분 한분이

소속감을 느끼고 재미있는 동창회가 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부탁은, 예약문

화(RSVP), 시간 엄수,동문연회비 납부를 지

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 남가주 동창회 2018년 정기이사회 개최 - 수석부회장 한귀희(미대 68) 동문 인준 -

지난 1월 11일 LA다운타운에 위치한 작가의 집에서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2017년 도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유병원(상대 76) 총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치원(공 대 69) 전 총동창회장의 선창으로 교가 제 창이 있었다. 이어서 유병원 총무국장의 이 사 정족수 확인과 성주경(상대 68) 총동창회 장의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1년 동안 거의 매달 행사를 기획하 여 실천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70, 80 학번 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점과 계획했던 장 학사업을 못한 점입니다." 이어 김병연(공대 68) 직전 총동창회장의 2017년 1월 19일 정 기이사회 의결사항 보고가 있었다. 다음 유 병원 총무국장의 2017년 사업보고와 송두 일(상대 84) 재무국장의 재무보고가 있었다. 이어 강신용(사대 73) 수석부회장이 2018년 사업계획 발표와 더불어 "RSVP를 잘 합시다. 시간 을 엄수합시다. 동문 회비를 열심히 냅 시다."하고 이 세가지를 지켜 줄 것을 당부하 였다. 이어 2018년 수석부회장(2019년도 총 동창회장) 선출이 있었는데, 김병연 인선위 원장(직전 총동창회장)이 수석부회장 후보 등록을 한 한귀희(미대 68)후보에 대한 자격 심사 및 그동안의 동창회에 대한 기여도 등 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한귀희 후보는 이

사회의 만장일치로 수석부회장으로 피선되 었다. 한귀희 신임 수석부회장은 "미대 동창 회에서 27년 만에 수석부회장에 당선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신용 총동 창회장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인 사말을 했다. 다음 안건토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 1. 회비-일반회비 인상: \$50을 \$100, 부결 이사회비 조정: 평이사 300\$, 선임이사 200\$, 전과
- 2. 총동창회 부회장 인준-차기회장(수석부회장) 출 마 신청에 대한 사전조정(내규) –초안 3. 추천된 선임이사의 인준
- 4. 단대 및 대학원별 선임이사 정수 결정-현행대 로 동문 수의 5%
- 5. 회장추천에 따른 감사 2명-지창열 (문리 83), 김 규정(사대 77)
- 6. 경조사 지급규정–원안대로 결의



성주경 회장



한귀희 수석부회장

7. 장학위원회 세칙 초안–원안대로 결의 8.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문 합창단"-명칭을 사용 할수 있는가? 명칭사용 가결

9. 미주동창회 차기회장(수석 부회장) 출마 신청에 대한 사전 조정(내규), 초안: 결의 통과, 미주총동창 회장의 자격은 남가주총동창회의 회장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10. 단과대학 명칭변경에 따른 단과대학 동창회 명칭 변경, 가정대—생과대(생활과학대학), 문리 대—문리대로 사용(추후 단과대학에서 토의 결정) 11. 단대 협조미납을 관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논의 안됨.

2018년 2월 3일 오후 4시 Oxford Palace Hotel 에 있을 정기총회 및 신년회 안내가 있었고, 서울대 로고가 새겨진 Wine Glass Set를 이사 회 기념 선물로 증정하며 이사회는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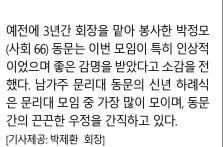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 신년하례식

2018년도 남가주 문리대 (문리, 인문, 사회, 자연) 동문 신년하례식이 1월 13일 (토) 오 후 3시에 LA의 Rotex Hotel에서 있었다. 60 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이종호 동문 (동양사 81; LA 중앙일보 Orange County 지국장)의 사회로 진행이 되 었는데, 각자 자신의 삶을 함축적으로 소 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문들은 삶의 위 험한 순간, 인생여정이 달라진 기로에서의 이야기 등 에피소드들을 나누기도 했다. 김충현 (물리 72) 전임 회장이 2015, 16에 봉사를 하고, 2017, 18에는 박제환 (영문 75)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어서 점심을 나눈후, 2부 순서로 음대 김 미자 (81) 동문이 준비한 해금 연주 (김 아 리랑과 영화 왕의 남자 OST; 이선희의 인 연 ), 최명룡 (성악) 남가주 음대 회장의 독 창이 이어졌다. 다음엔 남가주 문리대 신 년 하례식의 전통에 따라 명강의를 듣는 순서로 Cal State Long Beach 경영학과 마 케팅 담당인 송명국 (철학 90) 교수가 " Big Data와 Machine Learning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관악세대 인 송교수의 강의는 문리대 동문들에게 신 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난번에는 외교 학과 출신의 이채진 교수가 한반도를 둘러 싼 각국의 외교전과 현안에 대해 강의를 해 주신바 있다. 문리대에는 특히 미국대 학에서 교편을 잡은 교수진이 많아서, 다 양한 주제를 가지고 회원들에게 좋은 강좌 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이의경 (농대 72) 동문 독창회



지난 11월 20일 PASADENA CITY COLLEGE WESTERBECK RECITAL HALL에서 이의경(농 대 72) 동문의 독창회가 열렸다. 이의경 동 문은 10년 여에 걸쳐 유명 소프라노들을 사 사한 뒤 PASADENA CITY COLLEGE에서 성 악 과정을 마쳤다. 이날 "A Lifetime of Loving Music"을 주제로 열린 이 졸업 리사이틀에 서 이의경 동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레퍼 토리로 열창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Reynaldo Hahn 작곡 "Si Mes Vers Avaient Des Ailes", Albert Roussel 작곡 "Le Jardin Mouille", Reonaldo Hahn 작곡 "A Chloris", 그



리고 Johannes Brahms 작곡의 "O Wusst' Ich Doch Den Weg", "Wenn Du Nur Zuewilen Lachelst", "Wie Melodien Zieht Es Mir" 등과 Pierto Mascagni 작곡 "Ave Maria", 그리고 " 하니님의 은혜", "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 리", "님이 오시는지", "그리운 금강산" 등으 로 전공자 못지 않은 가창력을 보여 주었다. 서울대 농과대학을 졸업한 이의경 동문은 65세에 첫 독창회를 열면서, "제 나이가 62 세 되던 해, 3년 전 PASADENA CITY COL-LEGE에서 음악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하 는 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무거운 책가방이 버겁기는 했지만 요." 라고 말했다.

이번 독창회는 지도교수의 제안에서 시작 되었는데, 학장 역시 그의 실력을 인정하여 허가했고, 한 학기에 한 명 만 할 수 있는 기 회를 얻은 것이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 아했어요.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랐어요. 명 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면 가족 음악회가 열 릴 정도였으니까요. 부모님은 모두 찬양대 에서 솔리스트로 봉사하셨고 친척 중에도 전문 뮤지션들이 여럿 있었어요."

이의경 동문은 정신여고 시절에는 합창단 에서 활동했다. 음대에 가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포기해야 했고 결혼 후에는 전업주 부로 살았다. 그래도 미국으로 이주한 후, 노 형건 선교사와 소프라노 황혜경 씨에게 계 속 개인 렛슨을 받았고 용기를 내어 3년 전 오디션을 통해 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정말 가족들의 지원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에요. 그동안 남편은 많은 용기와 배려를 해줬고 두 딸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죠.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도 큰 딸은 프로그램 을 짜주고 작은 딸은 프로그램을 디자인해 줬어요. 다음 목표는 미국 콰이어의 단원이 되는 거예요. 이번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지 원서를 내보려고 해요." 어렸을 적 꿈을 잃 지 않고 뒤늦게 성악공부를 시작하여 65세 에 리사이틀을 열어 성공적으로 끝낸 이의 경 동문의 열의에 관중들은 모두 감격하여 찬사를 보냈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다음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링크된 곳으로 이동하셔서 '동창회비 납부'를 누르시고, 해당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286호 | **2018년 2월 호** 286호 | **2018년 2월 호** 



## 남가주 간호대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 새해도 동문 모두 더욱 행복하고 번영하기를 기원

지난 1월 20일 서울대학교 남가주 간호대 학 동창회(회장 이호진, 간호대 74)가 Oxford Palace Hotel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였다. 50여명의 동문들이 모인 이 행 사는 양수진(간호대 80) 총무의 사회로 진행 되었고 교가제창과 회장인사로 이어졌다. 2018년에도 연임하게 된 이호진 회장은 "바 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 총동창회에서 전, 현, 차기회장님 과 문화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7년 한 해의 모든 행사를 무사히 치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총동창회의 행사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간호대 동문간의

돈독한 관계와 총동창회 동문간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올 해는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주소록 발간을 마무리하여서 내년 신년회 때 배부하겠습 니다. 주소록 발간에 동문들과 관심 있으신 분들의 광고를 올려서 fund raise의 효과도 올리고자 합니다. 시대적으로 점점 줄어 가 는 동문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 신 동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 히 항상 적극적인 참여로 저희 동창회를 밀 어 주시는 69학번 동문들에게 감사드립니 다. 그리고 끊임없는 격려와 참석으로 동창 회를 이끌어 주시는 대선배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양수진 총무의 사업보고가 있었고, 이



호진 회장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다음 양수 진 총무의 참석자 소개가 있었고, 초대손님 으로는 성주경(상대 68) 총동창회장, 강신용 (사대 73) 수석부회장, 김병연(공대 68) 전 총 동창회장, 홍선례(음대 70) 문화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어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고 점심식사에 이어 제2부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노선호씨가 맡았는데, 김수향(간호 대 68) 전 회장의 첼로 독주, Dvorak 작곡 "Humoresque"를 박연숙(간호대 87) 동문의 피아노 반주로 연주하였는데, 4년간 숙련된 솜씨로 능란한 연주를 보여주어 모두를 감





탄케 하였다. 다음 제스쳐게임, "몸으로말해 요."에서는 동물이름 맞추기, 운동경기 이름 맞추기 등이었고, 동문들의 우스꽝스런 몸 놀림에 장내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다음 복 면가왕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호랑이 아니 고 고양이"로 분장한 최경복(간호대 69) 동 문이 "만남"을 불러1등을 차지했고, "삼바의 여왕"으로 분장한 손선행(간호대 69) 동문 이 "댄서의순정"을 불러 2등을 차지했다. 가 면을 쓰고 열창하는 출연자들에게, 모두들 폭소하며 큰 박수를 보냈다. 동문들은 흥겨 운 음악에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푸짐한 선물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기사제공: 홍선례 편집위원]

미대 남가주 동문회(회장 한귀희)는 지난 | 관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서울대 1월 20일 토요일, "Dream Wells Gallery "(770 S. Irolo St. Los Angeles CA 90005) 에서 신년회 및 총회를 했다. 김경애(83), 김 구자(61), 김옥권(76), 김윤진(67), 김화자(60), 박수삼(59), 백혜란(70), 서동현(67), 손남수 (60), 신정연(61), 신희정(73), 장원경(73), 한귀 희(68), 한석란(71), 현혜명(61)과 성주경(상 대 68) 남가주 총동창회장, 김병연(공대 68) 남가주 총동창회 상임이사 등 총 17명이 모 인 신년회는 27년 만에 미대가 수석부회장( 한귀희 68)을 맡은 축하 잔치를 겸해 시종일

학교 미술대학 남가주 동문회(SNUASFA)"로 총동창회가 결정한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 을 결정했으며. 작년에 이어 연임하는 신임 회장단 - 회장: 한귀희(68), 총무: 김경애(83) 회계: 백혜란(70), 고문: 박영국(66) 의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선임이사로 김구자(61), 김 경애(83), 김옥권(76), 김화자(60), 백혜란(70), 서동현(67), 장원경(73), 한석란(71) 등 8명이 선출되었다. 2018년의 중요 행사로 "NY 지 역 동창회와의 동문 교류전"이 큰 이슈로 다뤄졌으며, 총동창회의 여러 행사 참여에

# 남가주 미대 동창회 신년회 및 총회 뉴욕지역 미대 동창회와 교류전 추진



대한 자세한 토의가 이어져 차기회장을 맡 게된 미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동문들의 열띤 토의가 계속되었다. "총동창회 신년 총 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을 희망한 동 문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 수석부 회장을 맡게된 미대의 위상이 높아진 증표 라 할 수 있겠다. 성주경 총동창회 회장님의 축하 말씀과 격려가 있었고 김병연 상임이 사님의 1인당 총동창회 후원금 기부 1위(전

체 단대 동문회 중 2위)라는 말씀에는 모든 동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였다. 비록 남 가주 단대 동문회 중 작은 그룹이지만 연 2 년째 "미대 동문 작품 전시 및 경매" 행사를 통해 남가주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 기금을 후원해온 성과이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 고 친목을 다지자는 결의와 함께 신년회를 마쳤다. [기사제공: 한귀희 회장]

#### 플로리다 동창회 골프 모임



2017년 12월 28일 Ft. Lauderdale 에 있는 옛 PGA golf course, Inverrary Country Club 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조촐하게 6명의 동문이 참석해서, 12월의 날씨임에도 한국 의 가을 날씨처럼 청명하고 시원한 날씨속 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선후배로서의 아 름다운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열심 히 잘 쳤지만, 멀리 Ohio에서 오신 이치훈 ( 의대 69) 동문이 우승해서 기념 Trophy를 받 았다. 골프후, 계속된 송년 모임으로 가까운 한인 식당에서 만나 골프에 참석하신 동문 들과 그리고 선우건영 (의대 57) 부부, 정치

영(법대 76) 동문이 참석해서, 비록 적은 숫 자지만, 가족같은 분위기로, Medical Issues, 정치문제, 종교문제 등 여러가지 2017년 한 해동안 주마등같이 흘러간 사건 등, 의견을 나누면서, 보내는 아쉬움과 맞이하는 설레임 으로 아름다운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2018 년 Florida 서울대 동문회 회장으로 정치영 동 문을 선출했다. 참석동문: 김중권(의대 63), 윤 기향(법대 65), 계동휘(치대 66), 조덕환(의대 67), 이치훈(의대 69), 조동건(공대 69)

[기사제공: 조동건]

# 백양희 (경영) 동문, 라엘 최고 운영 책임자 디즈니 디렉터서 공동창업자로



"모교를 다닐 때 똑똑한 친구들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만나보면 그 우수한 인재들이 가정을 꾸리고 일상을 지 키는 데만 급급한 것 같아요. 점점 꿈도 없 어지고.... 젊은 동문들이 현재에 안주하기 보단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서 더 풍부하 게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듣기엔 좋지만 실천하긴 쉽지 않은 '도전'이 라는 말, 요즘 현실을 생각하면 입 밖으로 내기에도 쑥스러운 '꿈'이라는 말을 거침없 이 쏟아내는 여성 동문이 있다. 디즈니 영화 사의 해외배급팀 디렉터로 근무하다 지난 해 하반기 라엘(Rael)의 공동창업자로 변신 한 백양희(경영98-02) 최고운영책임자가 그 주인공. 또래 동문들에게 전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를 2017년 마지막 날 용 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라엘은 유기농 여성용품 브랜드입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 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에서 동종제품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죠. 기능성이 뛰어난

한국 기술력과 텍사스 산 면을 접목해 출 시한 생리용품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 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지만 얼마 전 유럽에 진출했고, 아시아권 에도 판로를 개척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시킬 계획이에요." 백 동문은 자칭 '하드코 어 엔터테인먼트 추종자'다. 모교 경영학과 를 졸업하고 하버드 MBA를 거쳐 세계 최고 의 컨설팅 업체로 손꼽히는 보스턴컨설팅 그룹 LA지사에 입사했지만, 고액연봉도 뿌 리치고 처우는 그보다 못한 디즈니 영화사 로 이직했다. 유년시절엔 성악가와 발레리 나가 꿈이었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에도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빠짐없이 관람할 정도로 엔터테인먼트가 주는 흥분 과 짜릿함에 매료돼 있었다. 그런 그가 7년 넘게 몸담아 오던 글로벌 영화사를 나와 전 혀 다른 업종의 스타트업에 뛰어들었다니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처음엔 저도 많이 생소했어요. 원하던 업계 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성용품에 특 별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창업자인 아네스 안씨가 끈질기게 동업 제의를 해왔고 또 다른 공동창업자인 원빈니 씨와도 성격이나 특장점들이 서로 정말 잘 맞았습니다. 공부할수록 유기농 여성용품 시 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게 됐고 요. 아네스 안 씨의 창의적 영감과 원빈나 씨 의 디자인제품개발, 저의 마케팅배급 및 유 통 스킬이 불러일으키는 시너지가 '이거 되 겠다' 하는 확신을 줬죠"

디즈니는 한 번 입사하면 20년 넘게 근속하 는 직원이 수두룩하다. 제작 배급하는 영화도

#### '이준행 특지 장학금' 수여식



모국 총동창회 이준행 (공대 48) 부회장의 '이준행 특지 장학금' 수여식과 송년의 밤 이 지난 12월 28일 뉴욕 근교 맨하셋 펄이 스트 중국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7명의 학생에게 각각 2,500 달러의 장학금 을 수여되었다. 5명의 대학 재학생과 2명 의 석사과정 학생은 한・중・일・영・독 │ 있다.[기사제공:송웅길]

어에 능통해야만 하는 까다로운 관문을 통 과했다. 장학생인 김현우, 조셉 패도, 시리 샤 메스키, 로배카 패도, 장미나, 케서린 애 린 김, 다니엘 정에게 각 \$2,500씩 장학금 이 수여됐다. 준이 장학재단은 매년 연말 에 7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 이상묵(공대 59) 동문 2018 고원 문학상 수상



미주 한인 문단의 '고원문학상' 수상자로 캐 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이상묵(공대 59) 동 문이 선정됐다. 시 창작과 후진 양성에 일생 을 바친 고 고원 시인의 업적을 기려 제정 된 '고원문학상' 2018년 1월 제7회 수상자로 선정된 이상묵 시인은 시집 '링컨생가와 백

그렇지만 회사 자체도 가족중심적 성격이 강 해 야근은 물론 휴일근무도 거의 없다. 가족 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장려하는 것이다. 또 한 세계 영화시장을 주름잡을 만큼 높은 명 성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키 마우 스, 도널드 덕, 곰돌이 푸 등 지구 반대편 한 국의 아이들도 다 아는 유명 캐릭터의 저작 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대 미국의 전설로 불리는 스타워즈 시리즈와 한국에서도 팬층 이 두터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디즈니는 영화계 갑 중의 갑 이어서 배급을 맡아 일하는 제가 아쉬운 소 리 할 일도,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즐기며 일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었죠. 그러나 거대 조 직 안에 갇혀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 니다. 시스템 안에서 역할이 한정되고 의사 결정도 느려서 제가 큰 변화를 이끌어갈 여 지는 적었어요. 반면 스타트업은 의사결정도

빠르고 그게 반영된 결과물이 바로 눈에 보

두산들쭉밭'으로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 다. 이상묵 동문은 캐나다로 이주해 기계설 계분야에 종사했다. 이상묵 동문은 40 중반 의 어느 날 문득 이민자의 삶에 대한 성찰로 처녀시 '절구를 생각하며'를 쓰게 되었는데 이 시를 비롯한 9편의 시가 1988년 '문학과 비평' 가을호에 김광규 시인의 추천으로 등 단, 시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후 '창작과 비평' '문학사상' '현대 시' '작가 세계'등 유수 본국 문예지와 '미주문학' '문 학세계' '외지' 등 북미주 문예지에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꾸준히 창작활동을 이어 왔다. 캐나다 한인문인협회장을 역임하고 문예교실을 개설하여 강의와 시 창작을 병 행하고 있다. 이상묵 동문의 시작품 '나목'은 서울의 사당역, 남태령역, 가산디지털단지 역에 게시돼 있다. 한편, 제7회 '고원문학상' 시상은 고원 시인의 10주기가 되는 2018년 1월 개최되었으며 고원문학상 상금은 3,000 달러이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이니까 경영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더 빨리,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디즈니에 죽 있으면 편하겠지만 환경이 급변했을 때 대응 할 수 있는 리더십은 여기 라엘에서 더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외배급팀 디렉터로 일하면서 세계 각국의 시장 환경과 소비심리를 분석해온 백 동문은 라엘이 미국 시장에서 신뢰 받는 브랜드로 안착하는 데는 물론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히 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어려서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 LA 동문 록밴드 '컬 리 프라이스'의 보컬로 활약 중이며, 세계 곳 곳을 여행하는 등 화려한 싱글라이프를 즐기 고 있다. 미주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 덕분에 아네스 안을 만나게 됐다는 백양희 동문. 본 지에 실린 인터뷰 또한 그에게 좋은 인연을 찾아주길 기대해본다.

[출처: 총동창회보, 나경태 기자]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286호 | **2018년 2월 호** 286호 | **2018년 2월 호** 10

## 서울대 글로벌인재 특별 전형 모집 설명회

버지니아, 뉴저지





서울대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모집 설명회 가 2월 1일 (목) 버지니아{비엔나 소재 한미 과학 협력센터 (KUSCO)} 와 2월 3일 (금) 뉴 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려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등을 소개했다. 작년에 서부지역에서 설명회를 가진 후 동부지역에서 2년만에 열 린 설명회에는 2년 전보다 많은 수의 한인 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본교에 대한 관 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입학본부장인 안현기 교수(영어교 육과)는 설명회에서 '서울대가 세계 QS 랭 킹 30-40위에 오르는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에서 약 100여 명의 학생 들이 입학신청을 한다'고 하였다. 본교의 조 민 입학사정관은 특별히 글러벌 인재 특별 전형 Ⅰ & Ⅱ, 수시모집 및 일반전형, 대학원 입 학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양혜원 입학사 정관은 "모국에서의 대학생활을 통해 문화 를 경험하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며 "수준 높은 서울대 교육을 거쳐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돕고자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지원자격은 글로벌인재 특별전형 I의 경우 본인, 부모 모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햐 하고 글로벌인재 특별전형 Ⅱ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전 과정을 해 외에서 이수한 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대 홈페이지(admission.snu.ac.kr)에서 확인

버지니아 설명회에는 동창회 임원에게 몇 가지 도움 요청이 와서 오인환 전 미주동창 회장, 안선미 워싱턴 DC 동창회장, 정세근 부회장, 이우진 섭외, 한정민 서기가 참석했 다. 뉴저지 설명회에는 이전구 전 미주동창 회장, 신응남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 손대홍 뉴욕지역 동창회 차기 회장, 허유선 특별사 업국장이 방문했다.

[기사제공: DC, 한정민/ 뉴저지, 허유선]

## 뉴욕지역 서울음대 동문 2017 송년 음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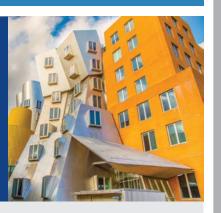


#### SNUAA Brain Network Workshop

새로운 기술의 도전

2018년 3월 31일 (토)

**MIT Stata Center** Cambridge, MA



주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후원: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하바드대학교 한국학생회 MIT 한국학생회

#### 1. 주제: 새로운 기술의 도전

스팀 엔진이 1700년 중반에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면 반도체는 1900년 후반부터 컴퓨터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원동력이다. 비트코인으로 잘 알려진 블록체인은 미래의 반도체와 인터넷 기술에 비유되는 신기술로 그 전망이 주목된다. 반도체를 가능하게 한 CMOS (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기술을 개발하신 강기동 박사, 자율 운전 개발자 이주훈, 그리고 블록체인 협회 김진화 대표와 대화의

#### 2. 프로그램

2:00-3:00 강기동: 반도체 기술의 산업화 경험 3:00-4:00 이주훈: 자율 운전의 미래 4:00-5:15 김진화: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 5:30 buffet dinner

#### 3. 연사



#### ▲ 강기동: 한국 반도체의 태동

새로운 반도체 기술인 CMOS 기술을 개발하여 그 기술 을 한국에 들여와 현재의 삼성의 모태 역할을 했다. 새 반도체 기술을 상품화, 기업화하는 과정과 그 당시의 미래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되돌아 본다..



#### ▲ 이주훈: 자율 운전의 미래

삼성을 거쳐 현재 Nvidia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면서 자율 자동차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 ▲ 김진화: 암호 화폐와 블록 체인의 미래

2013년 한국 최초의 암호 화폐 거래소 '코빗'을 공동 창업 했으며, 지금은 암호 화폐 거래소, 금융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한 한국블록체인협회 디렉터를 맡아 정부기관, 국회, 금융기관 등에 암호 화폐 가능성과 미래 가치 등을 교육 한다. 2013년 암호 화폐 기술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 단행본 '넥스트머니 비트코인'을 출판했다.

지난 12월 29일 뉴욕 Bavside 소재 KCC 회 관에서 뉴욕 서울대 음대 동문 2017년 송년 음악회를 개최했다. 수준 높은 음악으로 추 운 날씨에도 음악회를 찾아온 관객들의 박 수가 쏟아졌다.

프로그램으로는 오페라 '박쥐, 안드레아 쉐 니에, 리골 렛또, 피가로의 결혼, 후궁 탈출, 라보엠, 세빌리아' 등에 나오는 주요 아리아 와 프랑스가곡(드뷔시, 포레), 한국 가곡 '내 마음의 강물, 눈' 등을 솔로곡으로 연주했

고, 더블베이스 솔로곡 Tarantella - Giovanni Bottesin, 라보엠의 이중창, 피가로의 결혼 이중창 및 중창 '사랑이 예 오셨네, 향수, 우 정의 노래' 순서로 공연되었다. 특별 순서로 롱아일랜드 어린이 합창단이 맑고 고운 노 래로 연주회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들었 다. 뉴욕지역 골든 클럽 회원과 동문이 많이 참석하여 후원해 주셨고, 이번 연주를 시작 으로 수준 높은 음악을 많이 지역 한인사회 에 전달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 인류의 나이는 사춘기

최용완 (공대 57)

미리 앞을 보고 준비한 사람을 이길 재간은 없다. 어떻게 앞에 다가오는 시공간을 미리 보고 살 수 있을까. 고등동물의 뇌 앞에는 반듯이 눈이 있다. 그들은 모두 앞으로 움 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앞을 보고 살 기에 밟고 가는 발등은 잘 보지만 조금 멀 어지면 보이지 않는다. 다가오는 시간을 눈 으로 보지 못한다. 하지만 지난 발자국의 기 억에 비추어 상상으로 예견할 수 있다. 100 년 후에 현존 인류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미래과학 전문가 맥스 부록만(MAX BROCK-MAN)은 "미래를 알고 싶으면 점쟁이나 굿 쟁이 혹은 예언자를 찾으려하지 말고 미래 를 생각하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만나 이야기 하라고 한다. 여러 사람이 서로의 머 릿속에 거울을 비춰보면 인간, 자연, 과학이 하나로 연관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한 다. 컴퓨터 프로그람은 인공지능을 개발하 여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려고 노력하고 있 다. 지금은 사람이 컴퓨터의 프로그람을 만 들지만 머지않아 프로그람이 프로그람을 만드는 때가 오면 걷잡을 수 없는 사건들 이 터져 나온다고 컴퓨터 프로그라머들은 걱정하고 있다.

내일이나 내년을 예측하는 신문기사들을 보면 어제나 작년의 예를 들어 최근의 경향 에 따라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지만 50년

후에 다음세대의 미래를 추측하려 들면 상 상의 세계가 날개를 펴고 날아다닌다. 수 백 만 년 전에 현존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태어 나 성장해온 과정을 관찰하면 한사람의 생 애와 유사한 과정임을 볼 수 있다. 지금 인 류의 나이는 한사람의 인생에 몇 살의 나 이일까.

현존인류는 120,000년 전쯤에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나이에 아프리카 를 떠나 해 뜨는 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 하였다고 혈연학자들은 DNA의 기록을 보 고 말한다.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바닷길 따 라 동남아세아의 안식처에 이르렀을 때 정 착생활을 시작하며 언어가 발달하는 나이 에 이르렀다고 언어학자들은 말한다. 계속 하여 북상하여 동아세아에 이르렀을 때 사 계절 기후의 겨울을 맞아 처음으로 자연에 도전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지금까 지 어머니의 젖 줄기에 의지해온 아기가 자 기 음식을 찾아먹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 다고 본다. 어머니의 품처럼 자연의 기후에 의존하던 아이가 온돌바닥에 불을 피워 겨 울동안 생존하는 소년의 모습으로 성장하 였다.

멀리서 바위를 끌어와 조상의 무덤 위에 고 인돌을 세우는 농사짓는 마을의 유적은 한 반도 주위에 4만 여개의 유적을 남겼다. 나 머지 4만 여개의 유적이 유라시아 대륙의

만년 전에 유럽의 빙하기에 사람이 살지 못 하는 환경에도 해변생활에 익수한 동아세 아의 농사짓는 마을은 이미 스페인이나 프 랑스의 해변에 거주하며 소와 말을 그려놓 은 라스코 벽화를 볼 수 있다. 그때 인류의 나이는 장난감 놀기 좋아하는 나이 4~5살 아이였다.

동아세아의 석탄불에 그릇을 구어 만드는 유적은 1만년 전에 나타나고 동아세아 농 민이 서남아세아 우르지역에 이르러 사마 리안 문화를 이루었음은 5천년 전에 나타 난다. 동아세아 석탄불에서 금속 무기와 도 구를 찾아내며 인류생활에 혁명적인 변화 를 만주 요하문명에서 시작하여 인류문명 의 첫 출발인 홍산문화를 1만년 전에 이루 었다. 고조선(동이훈족), 하나라, 상나라, 주 나라로 성장하는 동안 농사짓는 동아세아 문화는 중미의 마야, 아스택 문화로 전해지 고 서남아세아의 사마리안 문화와 지중해 지역의 이집트 문화로 전해지며 육체적 정 신적 성장을 이어갔다, 동아세아의 도교는 인도에 이르러 불교가 시작하고 600년이 지 나서 서남아 기독교가 성립하고 다시 600년 후에 회교도가 성립한다. 인류의 나이는 지 성적으로 성숙한 10살 나이였다.

유럽대륙이 2만 년 전부터 빙하기에서 풀려 나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비로 소 백인종이 나타난다. 동아세아에서 시작 한 인류의 문화, 문명, 종교는 서남아세아를 통로로 유럽에 이르고 고조선 동이훈족은 비단길을 열어 유럽에 도달하였다. 옛 로마 를 허물고 로마신생제국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돕는다. 유럽의 암흑시대에 동아세 아의 칭기즈칸이 유럽은 정복하고 세계제 국을 세운 후부터 유럽의 백인들은 비로소 세계에 눈을 떴다.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서 처럼 동아세아 문화를 배워 문예부흥, 종교 개혁, 사업혁명으로 인류의 현대문명이 성

해변길 따라 영국의 스톤헨즈에 이른다. 2 | 숙하여 인류는 지성적으로 성장하였다. 해 가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기세는 미국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인류는 오늘 의 역사에 이르렀다.

11

동아세아에서 지성적으로 성숙한 나이를 거친 현존인류는 성장하여 몽골의 칭기즈 칸 제국을 세우고 유럽의 백인종을 암흑시 대에서 깨웠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미국을 거쳐 다시 동아세아에 돌아오는 사춘기의 나이에 이르렀다, 사춘기 나이의 개성은 지 금까지 잘 의지하며 살아온 부모에게 반항 하듯 신에게 "신은 죽었다."라고 반항한다, 식욕이 왕성하여 온 지구 표면은 유기물질 생산지가 되었다. 사춘기 육체적 성장은 인 구폭발의 특성을 보이고 왕성한 감정은 폭 력으로 전쟁을 멈추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 에 세계의 정치와 경제력이 인류문화와 문 명의 고향인 동아세아에 다시 자리 잡는 때 가 다가오고 있다.

사춘기의 생식기능은 다음세대 아기를 출 산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시험관 아기의 생 명력이 로봇의 체구에 결합되고 인공지능 이 아기의 뇌에 주입되면 다음세대의 인류 가 태어난다. 사춘기 나이에 아이를 기르기 위한 내조와 외조를 형성하는 가정이 이루 어지고 현존인류는 본능적으로 정성을 다 해 다음세대를 기르는 가정생활에 몰입하 는 평화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상상을 할 수 있다.

지구는 오염이 심각하여 현존인류의 생활 은 차츰 어려워지고 생명의 시한이 없는 다 음세대는 지구를 탈출하여 우주의 어느 곳 에 복음자리를 찾을 채비를 하는 때가 온 다. 인공위성이 달과 화성에 이르고 우주시 대를 예감하는 현존인류는 다음세대를 길 러 보낼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러 한 상상이 100년 후에 현존인류의 미래를 보는 눈이다.



# [진맥 세상] 자기 수명 결심하기

이원영 (인문 81)

결심을 하는 계절이다. 건강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여러 이유들이 결 심의 배경이 된다. 아마도 새해 첫날을 기 해 남은 담배와 라이터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진 사람들, 무척 많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결심들은 1년이 되기 전에 성공과 실패의 가닥이 잡힌다. 성공하면 스스로에게 큰 자 존감을 주겠지만 실패하면 자괴심도 든다. 결심은 성공하는 예보다는 깨지는 게 다반 사다. 그래서 후회하고 또다시 결심하고 하 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 결심하는 것 자체 가 흐뭇하고, 1년 안에 금세 실패와 성공의 판가름이 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성공 가 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결 심 말이다.

실제로 그런 결심을 세운 사람이 있다. 현 대단학과 뇌호흡 명상법을 개발한 한국뇌 과학연구원 이승헌(68) 원장이다. 영성가 답 게 그는 수많은 자아계발 서적을 집필했는 데 이번엔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는 제목의 책을 냈다. 책 제목을 보았을 때 피 식하고 웃음이 났다. 솔직히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할려구...' 하는 생각도 든 게 사 실이다. 그런데 책을 읽어가며 이 원장 개 인이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 해하니 '120세 살기'는 허튼 결심이 아님을 알게 됐다.

그는 80살까지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 고 그 이후는 삶의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102세가 된 이 종진이라는 분과 골프를 함께 친 사건(?) 이 후로 수명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졌다. 이종 진 옹은 카트도 타지 않고 4마일 코스를 모 두 걸었다. 매일 아침 한 시간씩 산책을 빠 뜨리지 않는다고 했다.

골프 회동 이후 이 원장은 '나도 혹시 100살 까지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는 하프 마라톤인 줄 알고 열심히 골인 지점 으로 달려왔는데 사실은 풀마라톤임을 알 게된 것과 같은 당혹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나이에 대한 성찰을 거쳐 수명은 수 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 이라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했 고, 80세 이후 계획이 전무했지만 120세까 지 수명을 설계한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가 슴 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120세 수 명에서 그의 지금 나이는 아직 청춘이니까!

120세는 대충 나온 숫자가 아니라 대다수 동물들이 성장 기간의 여섯 배까지 살 수 있는 점과 현대의 수명 연장 트렌드를 감 안해 과학계가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미래 수명이다.

또한 장수국가 일본에서 유행한 말이지만 자기 나이에 0.7을 곱한 것이 실제 체감 나 이라는 말도 있다. 예를 들어 60살이면 예전 의 42살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 미주 중앙일보 논설실장 한의학 박사

래의 120세는 지금이 84세에 해당하는 셈 이니 얼추 맞아 떨어진다.

장수시대가 도래한 것인데 그걸로 치면 미

산은 높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는 법 이다. 마찬가지로 수명도 소극적으로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적으로 설정하 면 앞으로 해야할 일의 종류와 범위도 극적 으로 달라질 것 같다.

이승헌 원장은 수명을 80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단기간의 계획에 치중하고 중장기적 인 비전을 품지 못했지만 120세까지 살기 로 결심한 다음에는 뉴질랜드 어스 빌리 지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 등 비전과 꿈 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수명에 대 한 생각만 바꾼 것 뿐인데 그것이 30년은 더 젊어진 것 같은 회춘 효과를 가져다주 었다고 한다.

꼭 120살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건강관리만 잘 하면 100세 시대는 현실이 된 시대다.

몇살까지 살 것인가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음을 자각하고 보다 생산적인 삶을 계획하지 않을까.

에 학업 도중 후회한 적도 있었다.



이용락 (공대 48)

## 살아온 이야기

米壽의 소망

#### < l > 해방된 길림에서 성진으로

우리 집에는 함북 성진군 예동이라는 농 촌에서 태어난 아버님 (李豪允)과 고개 너 머 있는 일신에서 태어난 어머님 (金遠淑) 사이에 출생한 누나와 나, 그리고 남동생 이 있었다. 그러나 누나와 남동생은 내 기 억에는 없는 아주 어릴 때에 사망하여서, 실질적으로 나는 무녀독남으로 내 일생 을 살았다. 아버님은 일찍이 할아버지에 표 게서 한자(漢字)를 배우시다가 만주의 용 정(龍井)에 있는 은진 중학를 졸업했다.

2015년의 광복절은, "탈아입구(脫亞入歐)"의 기치를 내건 일본제국의 꿈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날아가고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지 어언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일본은 조선반도를 식민지로 강점한 후, 중국 청나라의 동북지역인 만주(滿洲)를 침략하여 만주국(滿洲國)이라는 괴뢰정부를 세워서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6세 때 부모님을 따라 고향인 함복 성진(城津)을 떠나 길림성(吉林省)의 돈화 (敦化)라는 마을에 이주했고, 그곳의 초등 학교 6학년일 때 대동아(大東亞)전쟁이 발발하였고, 초등학교를 마친 후에는 큰 도시에 있는 일본인 학교인 길림중학교 에 진학했다. 전 학급에 불과 3~4명밖에 안 되던 조선족 학생은 여러모로 차별대 우를 받았기에 마음 깊이에는 일본에 대 한 적개심과 더불어, 일본인을 위한 특수 교육 제도에 따라서 얻은 기본 지식이 나 의 평생의 교육과 삶의 바탕이 된 터라, 그 교육제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지 않았다.

전세가 일본에게 불리하게 되자, 1945년 3월경 중학교 졸업반인 4학년에 모든 학생은 바로 만주 북부지역에 위치한 봉천(奉天; 현재의 심양) 부근의 폭탄 원료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으로 배속되어, 어린나이에 노동자로 동원되었다.

8월 초순경 그 어느 날 군수공장의 부대 장인 육군 중장의 집합령에 따라 그 군 수공장을 지키는 수천 명의 군인과 군속 을 포함한 모든 부대원이 연병장에 모였 는데, 부대장이 발표하기를, "일본제국과 불가침조약을 맺은 소련(蘇聯)이 소만 국 경을 넘어 탱크를 앞세워 불과 1주일이면 우리 부대로 도착하는 속도로 남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한 사람 한 탱크의 폭파 임무 수행을 위하여 배낭 폭탄 사용법을 습득한다"라고 하였다. 이 에 따라, 점심때가 되면 나무로 만든 가상 탱크를 사람이 뒤에서 밀면서 전진하면, 우리 학생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배낭 폭탄 을 등에 메고 탱크의 밑으로 돌진하여 자목하는 연습을 되풀이했다. 약 1주일간 중노동과 자폭연습을 하여 온 어느 날 부대장의 또 다른 긴급소집 명령으로 전 부대원이 모였는데, "미국이 야만적으로, 원자폭탄을 사용하였고 우리 국민의 무고한 생명을 더 잃지 않기 위하여, 대일본제국 천황폐하께서는, 일본은 미국과 영국에게 무조건 항복한다"라고 하였다. 발표가 있자 온 연병장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는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쩌면 우리 조선도 국권을 회복할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

어졌다. 관동군도 항복했기 때문이었다. 그날부터 얼마 안 되어 소련군 고급장교 가 일본인 부대장으로부터 항복을 받기 위하여 부대에 들어왔고, 어린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모든 유리창을 가린 상태로 밖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한 엄격한 부대 장 명령에 따라, 항복의 상징인 백기(白 旗)를 현관문 앞에 내건 채 종일 기숙사 내에 연금되어 있었다. 그 이후에는 소련 병사 2명이 부대 정문 초소에 배치되었 고, 그 2명의 병사가 수천 명의 일본 부대 원들을 제왕처럼 호령하게 되었다. 패전 국 부대의 허망한 모습이었다.

그날부터 학생들은 포로 생활은 하고 있었으나, 군부대에 저장되었던 군량미와 밀가루와 기타 식량이 창고에서 분배되었다. 그동안, 화약을 다루는 동안 그 약품의 독성으로 인하여 식욕이 없었으나, 이제 일도 하지 않는지라 배불리 먹기 시작했다. 한 달 정도 경과한 후, 어느 날, 우리 기숙사 앞길에는 어른들(군속)의 행렬을 보았다. 기이하게도 이들은 남녀 모두 귀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정식 예복으

"일본인 중학교 교복을 입었지만, 가슴 앞에 "朝鮮人"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우리는 봉천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교사에 무사히 도착했다. 여기에는 다수의 조선인 피난민이 모여 있었고, 교사의 앞 높은 벽에 걸린 "이승만 박사 만세", "김구 선생 만세", "대한민국 만세" 등의 현수막을 보며, 무한한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다. "과연 내가마음속으로 부대장의 일본의 항복 선언을 들었을 때 막연히 꿈꾸었던 희망이 현실로 왔구나" 하는 희열감이 들었다."

한 기대 속에서 그 자리에 학우들과 한참 동안 서서 자리를 지켰다. 지금도 그때 자 기 나라의 패망에 비통해하던 일본인 학 우들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일본 부대원들의 2~3일간의 슬픔의 시간 이 지난 후, 또다시 일본 부대장은, 다시 모든 부대원을 연병장에 소집한 후, "일 본은 항복했지만, 관동군(關東軍)은 결코 항복할 수 없으며, 오늘부터 하루 24시간 각자가 할 모든 일을 계속하라. 그리하여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부 대를 지켜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우 리 학생들은 그날부터 수류탄을 제작하 기 시작했다. 나는 24시간까지는 버텼으 나, 그다음 24시간이 시작되어 몇 시간 지 나, 내가 작동하던 기계가, 아직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 다. 그때 돌아가던 기계 속에 왼손 손가락 등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학우들이 나를 밖 으로 나오게 하여 나는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깊은 잠에 들었다. 그때 폐렴에 걸리 지 않았던 것은 기적이었다. 그러나, 2일 만에 모든 작업을 중지 하라는 명령이 떨

로 차려입고, 기숙사 앞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불침번 근무를 위해서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근무했다. 아침에 알고 본즉, 어제 낮에 있었던 행렬은 온 부대원들이 옥쇄(玉碎)의 목적으로 부대 내의 초등학교 강당에 8,000톤의 폭약을 운반해 놓고, 부대원들이 그곳을 향하고 있던 행렬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용감한 한 일본군 장교가 이일을 알고 현장에 가서 군중들의 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육탄으로 폭발의 심지를빼 버렸기에 무모한 옥쇄의 음모가 좌절되었다고 한다. 하마터면, 나는 불침번을서면서 나도 모르게 천당 갈 뻔한 셈이다.

약 2개월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나의 숙부님이 부대로 찾아오셨을 때, 조 선인 학생만은 그 부대에서 풀려나게 되 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기적 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은 승전국(勝戰國) 의 일원인 중국 장개석(蔣介石) 총통의 특 별한 명령에 따라 "조선인은 우리의 친구 이니 절대로 해치지 말라"라는 지시의 덕 택이었다고 한다. 당시 우리 조선인 학생 의 복장은 일본인 중학교 교복을 입었지 만, 가슴 앞에 "朝鮮人"이라는 명찰을 달 고 있었다. 우리는 봉천에 있는 어떤 초등 학교 교사에 무사히 도착했다. 여기에는 다수의 조선인 피난민이 모여 있었고, 교 사의 앞 높은 벽에 걸린 "이승만 박사 만 세", "김구 선생 만세", "대한민국 만세" 등 의 현수막을 보며, 무한한 감격에 사로잡 혀 있었다. "과연 내가 마음속으로 부대장 이 일본의 항복 선언을 들었을 때 막연히 꿈꾸었던 희망이 현실로 왔구나"하는 희 열감이 들었다.

286호 | **2018년 2월 호** 

그 후 장개석 중국 정부군과 공산주의자 모택동(毛澤東)의 지하조직인 팔로군(八 路軍) 간에는 만주 일대에서 내란이 진 행되고 있었으며, 이때 부모님은 외아들 인 나를 먼저 만주에서 고향인 함북 성 진(城津)에 피신시키기로 하셨다. 다행히, 북조선으로 식량을 운반하는 화물열차에 1946년 2월 하순에 승편했다. 쌀 가마니 사이에서 깜깜한 암흑 속에서 영하 40도 의 추위 속에서 살아남았던 것은, 지금 생 각해도, 하나님의 가호가 있었다고 굳게 믿는다.

내가 열차에 내려 화물트럭으로 우선 청진(淸津)에 오자마자 북조선에는 김일성사진이 여기저기 붙어있고, "붉은 군대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는 내가 봉천에서 본 감격스러운 현수막의 내용과 판이하게 달라서황당하였다. 또 고향 성진에 가서 부모님과의 합류를 기다리며 남조선으로 올때까지 일어난 북조선의 상황이 다시 뇌리에 떠오른다. "미 제국주의", "우리를 해방한 붉은 군대" 등 너무나 생소한 선전에염증을 느꼈다. 그때 나에게는, 북조선은,선친으로부터 배운 자유 민주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나라가 아닌, 다른 세상이될 것 같았다.

한편 만주지역에서는, 국민당 중국 중앙 정부군과 그동안 세력확장에 성공한 팔 로군과의 치열한 내전의 외중에서, 부모 님들께서는,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고 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어느 날 아버님이 "떠날 준비를 해라"는 말씀하셔서, 우리 가족 3인은 선창가로 갔더니, 아버님이 미리 오래전부터 계획 하셔서 남조선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마 련한 작은 18톤급의 발동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북한의 경비정을 피하여 공해로 나가서 남진하려고 하였지만, 3일째에 심 한 풍랑을 만나, 목숨이라도 유지하고자 북한 땅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자며, 육지 에 도착해보니 다행히 그곳은 묵호였다.

#### <II> 남조선의 해방 정국

천신만고 끝에 자유를 찾아 남조선에 와 보니, 남한은 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이 일 본군의 무장해제를 끝내고, 하지 (Hodge) 중장의 미국군정청의 관할하에 있었다.

귀중한 자유를 얻은 그때의 기쁨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중들은 사상적 으로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미국, 영 국, 소련)에서, 자주독립 능력이 생길 때까지 한반도를 신탁통치(信託統治)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에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었다. 미국, 중국 등지에서 활약하던 독립투사들과 한반도 내에서 활약하던. 지사들 간에 이념투쟁과 함께 치열한 정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아직 10대 소년이었던지라 정국을 당시에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나는 한민족을 신탁통치에 두자는 안에는 반대였다.

당시에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은 모두가 신탁통치 반대 (反託)의 뜻을 가지고 대중을 선도했다. 한편 처음에는 일제히 반탁을 주장하던 좌익(左翼) 정치인들은, 신탁통치 찬성(贊託)으로 선회했는데, 이 찬탁은 북조선의 찬탁방향과 궤도를 같이했다. 이런 곡절 끝에 결국 반탁운동이 성공하였고, UN 결의에 따라 한반도 전 지역의 UN 감시 하의 총선거로 독립국을 수립하게 되는 것같았으나, 북조선의 반대로 한반도 전 지역의 총선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즈음, 애국 투사 정치인들 사이에 해방 조국의 미래에 대한 방안에 대립이 시작 했다. 즉 이승만 박사를 주측으로한 집단들은 남조선 단독 정부수립을 주장한 반면,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집단들은 이에 반대였다. 어린 나이었지만, 나는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에 찬성이었다. 그 이유는, 8·15 광복에서 북조선에서 부모님을 기다렸던 2개월 그리고 남조선으로 밀항할 때까지 도합 5개월간 지켜본 북조선의 상황은 결코 자유민주주를 한반도 전체에 구현할 희망이 없다고, 나는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김규식 박사 등 애국자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설득시켜 남북한 통일 정부수립에 뜻을 같이할 것을 최후로 호소했으나, 실패하고 돌아왔다.

한편 UN은 북한이 총선거감시 위원회의 입북을 거부한 결과, 남조선 단독 정부수 립을 위한 총선거가 1948년 5월 15일에 실시되어 제헌국회가 성립되고, 국회에 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 사가 선출되고, 그해 8월 15일에 대한민 국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정세와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우리가 취해야할 차선의 방책일 뿐이었고, 한반도 전체의 통일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이었다.

#### <!!!> 나의 삶 – 서울에서 미국까지

위와 같은 파란만장 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나는 인생의 목적과 행로를 생각하게 되었다. 첫 과정은 대학진학 문제였는데,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없었다는 자각이 있었지만, 나의 앞길과 국가를 위하여긴 안목으로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여, 우리 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낙후된 한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기여해 보자고 나는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별 소질 없이 높은 열정만으로 시작한 선택이었기

학부 3학년에 진학한 지 몇 달 안 되어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 사변이 일어났다. 파죽지세로 남진(南進)하는 북한군의 서울 점령은 불과 3일만에 이루어졌다. 그

파죽지세로 남진(南進)하는 북한군의 서울 점령은 불과 3일만에 이루어졌다. 그날 아침 내가 살던 을지로 3가 집에서 들리는 요란한 기계의 굉음에, 호기심에서 뒷문으로 을지로 거리로 나가보니, 이는북한군 탱크 행렬이 거리를 통과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3개월 만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반도 동남부만 남기고, 모두 점령하고 있 었다. 서울에 갇혀 있던 나는 요행이 지하 에 숨어서, 북한군을 지원하는 "학도 의용 군"이 되는 신세는 면하였다.

그때 9.28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UN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3일만에 서울 을 탈환할 것이다. 북한군 치하의 3개월 후 다시 해방된 것이다. UN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여 결국 압록강까지 도달했 을 때, 나도 염원하던 통일 대한민국이 눈 나고, 윤보선 대통령과 민주당 신파의 장 총리로 하는 제2의 공화국이 탄생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 소장(少將)이 이끄는 군사혁명으로 시작하여 1962년 헌법개정, 1963년 10월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윤보선 후보와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출마한 박정희 후보 경선에서, 박정희후보가 당선되어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격동의 세월이었다.

나는 부산대학교에서 재직 중, 1964년에 국무성 장학금으로 University of Illinois-UC 에서 수학하여, 1969년에 "Turbulent Jet of Particle Suspension"라는 학위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Borg-Wamer 연구소에서 근 20년간의 연구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연구소와 기업체를 자문했다. 그러나 1986년 연구소에서 조기 은퇴한 후 열전 달 및 에너지(Heat Transfer and Energy)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사설 연구소를 설립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산업계를 위해 미력이나마 노력하고 있다.

#### < IV> 중소기업과 과학기술 입국

"한국의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기술과 시장을 확보해주는 대기업의 생산공장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발명과 창의력에 의한 기업발전의 욕구가 결여되어 있다. 나머지 소기업들은 최악의 기업 환경 속에서 사투(死鬪)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축적된 기술로 근자에는 한국에서 창업되는 기업의 기틀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선진화되어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국의 다원적인 경쟁체제에 의한 연구 기술개발의 생태계(生態系)가 조성되기를..."

앞에 있는 듯 생각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UN군은 다시 후퇴하여 결국 소위 1.4 후퇴로, 서울은 다시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하여 점령당했다. 나는, 이즈음 국군에 자원입대 하여, 6.25 참전 용사의 한 사람이 되었다.

1952년 군에서 제대하여 당시 부산에 피난 온 서울대학교에 복학하여, 비가 오면비가 새는 판자집 가교사에서 공부하고, 1년 늦게 1953년 봄에 부산 영도에 있는영선국민학교 강당에서 졸업장 (당시 총장 최규남 박사)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그 후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하에 이루어진 3.15 정, 부통령 선거 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 박사 의 급서로, 이승만 박사의 단독 후보가 되 고, 그리고 부통령 후보자로 자유당의 이기 붕 후보와 민주당 장면 박사가 겨루었으나, 부정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4.19궐기로 이 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여 제1공화국이 끝 어언 미국에 이주한지도 53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학 입학 때의 초심으로 모국 산 업발전에 기 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광복 70년도 지나고 여 러 면에 발전을 계속하나, 나의 마음속에 는, 우리나라의 다난한 운명에 대하여 나 름대로 공허감을 지울 수 없다.

나는 공학도로서 내 힘자라는 데까지 우리나라의 힘을 기르는데 작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지난 46년간 재미 한국과학기술인협회 (재미과기협; 在美韓人 科學 技術者 協會; 제10대 회장 역임)에 몸담고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지금까지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 온 국민이 한국의 산업화를 위하여 근면하고 희생적인 노력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데는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공헌이지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축적한 지적소유권 내지 기술력의 소유자는 대기업이다. 한편, 미국과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와 반대로 중소기

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 이다. 더욱이 한국의 중견기업은 대기업 의 하청업체로, 기술과 시장을 확보해주 는 대기업의 생산공장이 대부분이다. 따 라서 여기에는 발명과 창의력에 의한 기 업발전의 욕구가 결여되어 있다. 나머지 소기업들은 최악의 기업 환경 속에서 사 투(死鬪)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축적된 기술로 근자에는 한국 에서 창업되는 기업의 기틀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진정으 로 선진화되어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우리도 선진국의 다원적인 경쟁체제 에 의한 연구 기술개발의 생태계(生態系) 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대기 업과 중소기업이 "갑과 을" 관계가 아닌, "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정운찬 동문(상 대 '66: 전 모교 총장)에 공감한다. [정 동문 의의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구상에 관하여는 미주총동창회보 2017 년 8월호, 제18면 이하 참조].

나의 생각은, 재미 과기협의 창설과 그 목적에 그러하듯이,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정책에 관한 논쟁을 초월하여, 그 바탕이되는 한국의 과학기술 선진화에 초점을 둔 것이다. 나 자신도, 과학기술 개발의 온상이자 보고(寶庫)인 미국에서의 활동을 힘자라는 데까지 계속하고자 한다.

나는, 2015년부터 재미과기협내에, "중소기업위원회"를 조직하여,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정열을 기울여 한국이 G-20 수준을 넘어서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함을 보고 싶다.

새해의 소망 한 가지를 이곳 시카고 동문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곳 시카고 연방 법정에서 동문들과 함 께 그간 안타깝게 지켜본, 모교가 배출한 뛰어난 기계공학도인 이헌석 동문('85)의 3년간의 외로운 법정투쟁이 잘 매듭되기 를 바란다. 이 동문은 세계 처음으로 발명 한 특허작품인 송풍기(Turbo blower)는, 주 변 공기를 윤활 매체로 하는 윤활유가 필 요 없는 베어링(Air Foil Bearing)으로 지지 가 되는 영구자석 초고속 모터와 초고속 인버터 (Inverter)를 적용한 첨단 장비로서 두 번이나 대통령상을 받았고, 더 발전된 형태인 Air Compressor는 세계최초로 완 전 Oil Free로써 중압제품은 시장에 자리 를 잡던 중이었고 고압제품은 출시된 이 후에 구속상태로 있어 본격적인 시장진 입이 늦어 지고 있다. 이는 우수한 에너지 절약제품이고, 폐수처리장 건설고가 모 든 종류의 산업현장의 필수품인데, 수출 전선에서 만난 고난의 행군을 끝나서, 새 해에는 연구실로 돌아가, 세계적으로 우 수한 제품을 계속 발명하는 "중소기업"의 꿈을 실현하기를 축원한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우리의 모국인 대한 민국이 세계열강과 겨루며 지속적인 발 전을 거듭하기를 기원한다. 하여, 우리의 국력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 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 전환기의 이민사회

미주 한인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연봉원 (문리 61)

세계 2백여 국가 중에 우리 한국처럼 한 언 어와 전통, 그리고 풍습을 가진 한 민족이 큰 나라를 이룬 곳이 아무데도 없다. 혹자 는 일본을 말하지만, 일본도 그들이 말하 는 대화족(大和族), 오키나와인 유구족(琉 球族), 그리고 북방의 아이누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소위 대화족 내에도 부락민(部 落民)이란 우리나라의 백정(白丁)같은 별 도의 집단이 있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 련 기타 신대륙 국가는 다민족 국가이니 말할 필요도 없다. 유럽도 아주 작은 나라 까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은 앵글로 색슨 외에 스코틀랜드, 아일랜 드, 웰슈 등으로 되어 있고 앵글로 색슨도 사실은 독일계이다. 스페인도 카탈루니아, 바스크, 갈레고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우리나라는 구석기 시대는 모르겠지만, 신 석기시대 이후는 한 민족으로 나라가 세워 졌고, 신라의 삼국 통일이후 1,000년 이상 한 민족 한 국가로 면면히 지금까지 내려 온 것이다. 지금의 남북 분단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한 민족 한 국 가를 이룰 것이다.

#### 1. 민족의 이민사

우리의 이민사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20 세기 초, 구한말에 시작한 것이 아니다. 우 리가 세계에 유래가 없는 단일 민족이란 것을 고찰할 때 (우리의 고유 성씨는 120 개 가량 되며 그중 10개 성씨가 전 인구의 70%가 넘는데 이런국가는 세계 어디고 없 다), 우리 민족의 이민사란 아득한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다. 즉 3천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 긴 민족의 해외 이민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제 1기는 신석기 시대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 볼 수 있고, 제 2기는 19세 기 말, 즉 이조 말서부터 해방된 1945년까 지로 볼 수 있으며, 제 3기는 해방 된 시점 부터 지금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간 현재 에도 우리 민족의 이동은 부단히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IMF 사태 이후 한동안 주춤하 던 이민 붐이 다시 일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부단한 민족의 이동 이 있었는데, 제 1기에는 우리의 이웃 나라 인 일본과 중국, 그리고 고려 말에 몽골 족 이 세운 원(元)나라 지배 하에서 얼마간의 인구가 몽골에 이주하였다.

제 2기(나라가 망하는 이조 말엽부터 일제 강점 하에서)에는 많은 동포가 혹은 자의 에 의해서 혹은 강제로, 일본, 중국, 시베리 아 그 후 소련 각지로 흩어지고, 얼마간은

일제 하에서 해방된 제 3기 이후는 미국 을 선두로 세계 각 국으로 이주해서, 지금 은 세계 방방곡곡, 인간이 살 수 있는데는 우리 민족이 한 두 명이라도 다 살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 유럽으로 유학생이 대부분 이었으나, 5.16 이후 해외 이민 적극 장려 책으로 남미로 집단 이민 하기 시작했으 며, 1970년 부터는 미국과 카나다, 오스트 랄리아 등이 이민 개방 정책을 씀으로 노

하와이, 미국 본토, 멕시코, 쿠바 그리고 몇 몇은 브라질까지 이민을 왔다.

민족(騎馬民族)으로 불린 우리 민족이 계 속적으로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삼국시대 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그리고 가야에서 다수의 우리 조상이 일본으로 이주하였는 데, 이들은 지식인, 기술공 혹은 예술인으 로서 일본의 상류층을 구성하였다. 특히

백제와는 밀접한 왕래가 있었고, 신라가

삼국 통일시, 나라가 망한 고구려, 백제 귀

족이 대량으로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상고시대로부터 삼국시대 이전까지 기마

민족의 해외이주 실태를 잠깐 살펴보자.

가) 제 1기의 역사적 배경과 이주 배경

중국에는 유학생으로 가서 그곳 과거시험 을 보고 중국 고위 관리로도 활약하였으니 (예를 들면 신라의 최치원), 신라, 백제 전성 기에는 중국 산동 반도에, 신라방(新羅坊), 백제방이란 우리 민족의 집단 거주지가 있 었고, 일종의 치외법권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다. 특히 청해진 대사 장보고(張保皐) 가 황해를 중심으로 멀리 남지나해까지 무 역업으로 진출하는 등 우리 민족의 진취성

"이민 정착의 어려움은 나무를 옮겨 심는 어려움에 비유된다. 조상 대대로 살던 고국을 떠나 언어 풍습이 다른 먼 이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데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초기에 미국에 이민 온 우리 선조들은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 희생을 바탕 삼아 오늘날의 안락한 우리의 삶이 있는 것..."

도와 같이 이민 행렬이 계속 되었다. 다음 으로 세계 각국으로 진출한 상사 직원으로 또 태권도 사범으로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 르고 떠난 사람이 대부분이며 현재는 선교 사로 진출하여 세계 각국에 한국인이 살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 지경까지 왔다.

얼마 전 유엔에서 발표한 해외 민족 이주 숫자는, 중국, 인도, 유대인, 필리핀인 다음 으로 우리 한민족이 많고, 인구 비례로는 유태인 다음으로 많다고 한다. 유대인과 해외 한국인의 숫자상 차이는 미미하다.

해방 후 3천만이라던 우리 민족은, 남북한 합하여 7천만 5백만을 돌파하였으며, 해외 교포 7백만을 합하면 8천2백만이 넘는 대 민족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장구한 세월에 거쳐서 우리 민족이 해외로 이주한 것에는, 당시의 국내 정세 가 역사적 배경을 조성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국내 정세가 평온할 때는 이민이 없거나 현저히 줄어들고, 국 내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워 질 때는 이민 의 수가 현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위에서 지적한 1기, 2기, 3기의 우리

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던 때이다.

그 후 고구려가 망한 후 약 20만명이 당( 唐) 나라로 강제 이주 당했고, 백제 유민은 약 1만 3천명 가량이 중국 각지에 이주 당 했다. 이 중 고구려 유민 가운데 고선지(高 仙芝) 장군처럼 당(唐) 나라에서 출세한 출 중한 인물도 나왔으나, 모두가 중국 민족 으로 동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 중 국과 태국 국경 지방에 사는 소수 민족 가 운데에, 우리 삼국시대의 유민이 남아 있 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 했다. 그 결론은 추후 연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13세기의 몽골족의 고려 침입에는 수많은 포로와 미녀(美女)공납 등으로 많은 수의 우리 민족이 몽골에 강제 이주 당했고, 그 중에는 기황후(奇皇后) 같이 고려 여인으 로 몽골 황후가 된 예도 있다. 당시 만주 지 방에만도 5천 세대 이상이 유랑하는 신세 였다고 한다. 이조 중엽인 서기 1592년부 터 1637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었 던 때로서 우리 민족 사상 미증유의 환난 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졌던 시기 이다. 국토는 피폐되고 10만이 넘는 우리 민족이 일본에 끌려가고, 수만 명이 만주 로 피랍된 시기이다. 이조 멸망의 한 서곡 이기도하다.

한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일본으로 끌려 간 유민(流民)중, 오사카에 있는 노예시장 에서, 당시 선교 차 와 있던 포르투갈 신부 (神父)가 한국 소년 5명을 사 가지고 유럽 으로 귀환하던 중 4명은 중국의 마카오와 인도의 고아(Goa)에 남고, 남은 한 명을 유 럽에 데려와 교황(敎皇)에게 알현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화란의 유명한 화가 루벤스( Rubens)의 그림에 한복 비슷한 옷을 입은 동양 소년의 초상화가 바로 이 사람을 모 델로 한 것이라고 한다.

최초의 유럽으로 이주한 한국인인 이 사 람의 소식은 그 후 더 이상의 기록이 없 으나 1968년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에 꼬 레아(Corea)란 성(姓)을 가진 이탈리아인이 자기도 최초에 유럽에 온 한국인의 후손이 라고 입회를 요청하여 세인의 관심을 끌 고, 예의 그 한국 소년이 안또니오 꼬레아 (Antonio Corea)라고 개명하여 이탈리아 북 동부에 정착하였고, 그 후손 약 3백세대가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나) 제 2기의 민족 이주사

이조 말 즉 19세기에는 탐관오리의 전횡과 부패로 국민의 삶은 참담하였고 특히 농민 은 기아선상을 헤매고 있었다. 이조(李朝) 는 극도의 쇄국정책을 써서 외국 이주는 사형에 처했으나,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만주로, 러시아로 몰래 이주하였다. 고종( 高宗)황제 때 이런 난국을 타개하고자 하 와이, 멕시코 이민을 시작하였으나 곧 일 본에 강제 합병되고, 그 후 많은 유랑민이 만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이주하였고, 그 중 소수는 브라질까지 일본 이민에 섞여 서 왔다.

#### 다) 제 3기의 이민

815 해방과 더불어 많은 동포가 중국, 일본 에서 귀환했으나, 국내정치는 혼란스럽고 우리 민족은 미군정 하에 있었다. 이 당시 학생들이 남한에서는 주로 미국으로, 이북 에서는 주로 소련으로 유학하였고, 그 후 그 곳에 남아 아주 정착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 이후 많은 동포 여자들이 진주군과 결혼하 여 그곳으로 이주하였으며, 특히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 중에는 나중, 가족 초청으로 대 량 이민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개방적인 케네디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법 이 발효하자 노도와 같이 우리 민족이 미국 으로 이주하였고, 그 후 캐나다 호주 등의 이 민 개방정책에 따라 많은 우리 동포가 새 삶 을 찾아 이주하였다. 구 소련에서는 스탈린 치하에서 민족의 강제 이주라는 비극도 경 험하였고, 중국에서는 철저한 동화정책에 시달리기도 하였으나, 우리 민족은 굳건한 나무와도 같이 새로운 환경에 뿌리를 내리 고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 2. 남미(南美)로의 이주

516 혁명 후 많은 실업자와 이북에서 피난 온 실향민, 그리고 군사 정부에 불평을 품 은 사람들 해결책으로 남미 이민이 추진되 었고, 브라질 농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일본 사람과 외모가 같아 보이는 한국민도 농사



천양곡 (의대 63)

286호 | **2018년 2월 호** 

한 세대를 주름잡았던 네덜란드 화가 고흐 가 정신분열증세를 나타낼 당시에 그렸던 작품들을 보면 앞뒤 좌우 위아래의 조화가 잘 맞지 않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그림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긴 영혼이 숨 쉬고 있는 것 같다.

성직자인 아버지와 미술에 재질이 있는 어 머니 사이에 태어난 고흐는 젊은 시절 외가 덕으로 몇 년 동안 런던과 파리를 오가며 미 술상 점원으로 일했다. 런던에서 실연의 아 픔을 맛본 후 파리로 건너가 살았으나 그림 을 사고파는 행위는 일종의 범죄라는 강박 적 사고에 시달렸다. 결국, 화상일을 그만두 고 벨기에에서 성직자 교육을 받고 20대 후 반에 목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열정을 가 지고 신을 위한 목회가 아닌 사람을 위한 진보적 목회를 하는 고흐를 좋지 않게 여 기던 종교감독기관은 그의 목사직을 박탈 하게 된다.

다른 일들을 전전하다 할 수 없이 예전부터 동생이 권유하던 화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 고 30대 초반에 파리로 건너가 동생의 후원 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열심히 그림만 그렸고 그림에 대한 평판은 좋았다. 자신의 의도에는 맞지 않았으나 살기 위해 그린 그림을 팔려고 했지만 사는 사람이 없 어 비싼 파리 생활을 접고 아를르란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그곳에서도 열심히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단 하나밖에 팔지 못 했다 한다. 극심한 가난과 좌절, 후원자인 동 생에 대한 죄책감, 타향살이의 외로움 등을 술과 담배와 창녀로 버티며 살았다.

다행히 프랑스 화가 고갱을 친구로 만나 같 이 동거하며 그림을 그렸지만, 작품에 대한 그의 강박적이고 괴팍한 사고는 친구 관계 를 오래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고

칼로 고갱을 해치려고 했으나 잘 안되자 집 으로 돌아가 자신의 왼쪽 귀밑 부분을 잘라 창녀한테 보냈다. 이 사건으로 고흐는 정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고갱은 파리로 돌아 가게 된다. 정신병원에 있을 때도 고흐는 그 림을 그렸다 한다. 병원에서 퇴원 한 후 얼

초상화

갱과 작품 때문에 다툰 후 술을 먹고 면도

죄책감으로 동생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자 기희생일지도 모른다. 그가 죽기 전 동생에 게 쓴 편지에서 "살아있는 그 자체가 고통 의 연속이다."라는 말은 정신분열증 환자보 다 우울증 환자를 의심하게 된다.

고흐는 생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40여 개쯤 그렸다. 아마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신질환이든 증상이 심하게 악화할 때에는

임상경험으로도 정신분열증 환자는 사춘기

를 마치고 성인으로 가는 길목에서 많이 발

병하고, 가난 같은 것을 그리 뼈저리게 느끼

지도 않고 가난 때문에 자살한 환자는 아주

적었다. 반면 심한 우울증 환자가 가난과 스

트레스에 견디다 못해 술김에 목숨을 끊은

환자는 많이 보았다. 어찌 보면 그의 자살은

그를 마지막까지 도와주었던 동생에 대한

자주 나타나기 마련이다.



마 안 있다가 권총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 하게 된다.

고흐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이 늘어놓 은 이유는 고흐에게 붙여진 정신병명 때문 이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과 대부분 사람들 은 고흐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알고 있다. 그 러나 길지 않았던 그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신분열병 환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강박적이고, 충동적인 사고방식, 괴팍한 성격, 그리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 는 불안정한 감정과 불안정한 인간관계를 보이는 경계성 성격 소유자로 보인다. 그런 그가 비참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심한 우울 증과 술 중독이 겹쳐 정신분열증세를 일으 키지 않았나 싶다. 정신분열증세는 어느 정

시도일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한때 내 서재 구석에 왼쪽 귀를 붕대로 싸맨 그의 초 상화가 있었다. 그때 그 초상화를 보며 적어 놓았던 어느 환자 이야기다.

내 오피스에 젊은 남자 환자가 그린 서너 점의 유화가 걸려 있다. 환자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그려진 그림이다. 환자는 어 릴 때 입양되어 양아버지한테 수년 동안 성 학대를 당한 뒤부터 그 후유증으로 오랫동 안 정신분열증을 앓아 왔다. 그는 증상이 재 발할 때마다 그림을 그린다.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하면 병이 좋아진다는 말에 간호원, 상 담자의 초상화, 진료실 광경, 바깥 풍경, 그 리고 자신의 증상인 환청, 환시, 혼란 등 정 신상태도 그렸다. 최근에 늙고 병들은 양어 머니를 돌보며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 아가시자 정신분열 증세가 심해지기 시작 했다. 정신과 환자라도 자기 병이 나쁘게 가 고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은 한다. 그러던 어 느 날 환자가 나의 독사진 한 장을 갖다 달 라고 졸랐다. 사진을 보고 내 초상화를 그리 다 보면 자신의 병이 나아진다고 믿기 때문 이었다. 전에도 그가 비슷한 요구를 하면 잘 이야기하여 넘어갔는데 이번엔 그의 요청 이 너무 간곡했다. 다시 정신병원에 끌려가 기 싫으니 제발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일찍 이 프로이드 선생께선 환자가 주는 어떤 물 건도 받지 말라고 가르쳤다. 환자로부터 건 너 온 물질이 환자와 정신과 의사 사이에 그

선생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레지 던트 시절에 여자 환자가 들고 온 석고로 만든 코끼리와 개업할 때 목사님 환자가 정 성스럽게 만든 화분들을 아직도 소중히 간 직하고 있다.

어져 있는 경계선을 무너뜨려 정신분석 치

료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라 했다.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게 세상 재미 아닌가? 환자의 조그마한 성의 표시를 굳이 거절하 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 자 신을 합리화시킨다. 환자가 내 초상화를 그 리겠다는 것은 나에 대한 감사 표시보다 환 자 자신을 더 위해서 이지만 그림이 다 되 면 내가 보관해야 한다. 거액의 돈이나 여성 환자의 몸은 아니지만, 이유야 어떻든 환자 한테 받은 물건은 먼 후에라도 의료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To be or not to be!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절 규했던 구절이다. 나 또한 이 말을 오랫동안 살아오며 수 없이 중얼거려 왔다. 어쩌면 우 리 인생살이가 이 짧은 구절을 만날 때마다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결국 6피트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동시에 Do no harm! 환자에게 해를 주지 말라는 히포크라테스 할아버지의 지상 명령이 내 머리에 떠올랐 다. 의학의 아버지라 일컫는 히포크라테스 선생께서 아주 먼 옛날에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환자 치료의 원칙과 방향을 제 시해 주고 있지 않은가! 법과 윤리나, 프로 이드 선생의 가르침은 그다음 일이다. 그래 서 지금 나는 내 독사진 한 장을 찾아 주머 니 속에 간직하고 간다. 오늘 그를 만나면 건네주려고....

를 잘 하는 줄 알고 농업 이민을 받아들인 것이 브라질, 나아가 남미 집단 이민의 효시 (嚆矢)다. 당시 우리나라 형편이 매우 어려웠 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를 해줄 형편이 되지 못해서 자비(自費)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당 시 우리나라 농민은 돈이 없고 자비로 이민 갈 수 있는 사람은 상인(商人) 밖에 없는 형 편이었다. 농사라고는 지어 본적이 없는 사 람들이 물 설고 땅 설고, 기후마저 완전히 다 른 먼 이국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처음 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이런 저런 형편을 고려 할 입장이 못되었고, 상기의 이유로 무조건 이민을 내 보냈기 때문에 한때 "이민(移民) 은 기민(棄民)"이란 말까지 유행하였다. 처 음 약속과 달리 농사를 짓지 않는 한국 이민 을 남미 각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차선으로 기술 이민, 나중에는 투자 이민, 가족 초청, 그리고 사면령으로 남미 각지에 10만이 넘 는 한국 이민이 정착하게 되었고, 의류업계 로 대량 진출하여 이주국의 산업발전에 많 은 공로가 있었다.

또 직간접으로 수많은 현지인에게 직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2세들도 이미 50살이 넘 어서, 사회 각 분야에 활약하고 있다. 본래 부터 본국 지향적인 우리민족은 본국과 밀 접한 무역문화 교류 등으로 많은 기여를 하 고 있으니 역시 이민은 장기 투자임이 틀림 없고, 남미 이민은 어느 곳보다도 성공하였 다고 생각된다.

#### 3. 21세기를 맞는 미국에서의 우리 민족

흔히 이민 정착의 어려움은 나무를 옮겨 심 는 어려움에 비유된다. 조상 대대로 살던 고

국을 떠나 언어 풍습이 다른 먼 이국 땅에 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데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초기에 미국에 이민 온 우리 선조 들은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 을 겪었고, 그 희생을 바탕 삼아 오늘날의 안락한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다. 이제 우 리의 1백년이 넘는 이민 역사를 보나, 2백 만이 넘는 동포의 숫자를 보나, 우리 미국 에 사는 동포들은 생활 전선의 급급함을 뛰어 넘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진로를 가 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남의 나라에 더부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이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인이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우리는 서기 2000년을 넘어 서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 년대에 진입하 는, 참으로 축복받은 세대를 살고 있는 행 운아들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국력의 신장과 동포의 활약으로 전세계가 K-POP, 한류(韓流)에 열광하고 한국을 따라 배우 려고 하는 이때, 비록 우리의 국토는 작지 만 바야흐로 우리는 문화 대국 (文化大國) 으로 발돋움 하는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 는 민족이다.

우리는 상고한 바와 같이 아득한 옛날부터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어떠한 고난이나 위 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이주한 진취 성(進就性)이 넘치는 역동적(力動的)인 민 족이다.

이러한 조상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아름다운 윤리적 전통과 창의성을 가진 문화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서 선량한 시민으로 각자의 맡은바 직분 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분명코 자손 대 대로 존경받는 코리언이 될 것이다. 〈끝〉



# 나의 평생을 바친 韓國半導體

姜起東 강기동 (공대 53)

1934年 12月 9日 咸南 咸興 生 (本籍: 慶南 金海)

京畿高等學校 1953年卒(49回) 서울大 工科大學 電氣工學科 1957年卒 (11回)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M. Sc. and Ph. D. 1962 Motorola Inc. Semiconductor Products Division, Phoenix Arizona 1962-1969 Stewart Warner Micro-Electronics Inc., Sunnyvale California 1969-1972 Integrated Circuits International, Inc. (ICII) 設立, Sunnyvale California 1972-1976 韓國半導體株式會社 (現 三星半導體) 設立, 京畿道 富川市 1972-1976 KDK Electronics, Inc. 設立, Sunnyvale California – Reno Nevada 1977-2011 나의 計劃으로 建設된 半導體 공장 1973-1983

- 1. 韓國半導體(주) 京畿道 富川(現 三星)
- 2. 源進電子-京畿道 龍仁 (三星이 買入)
- 3. 現代電子-京畿道 利川 (現 Hynix)
- 4. MEC (現代電子 Santa Clara, California 半導體 工場)

한국 반도체 공업史에서 강기동 박사의 존 재를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1960년대 중반 부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다섯개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그 가운데 창립 사장을 맡아 한국반도체공업 주식회 사와 원진전자 공장을 지어 현재의 삼성전 자 반도체 사업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요청으로 현대반도 체(현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짖고 생산

설비를 갖췄다.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세계 1, 2위 반도체 메모리 업체로 이들 두 회사 쉐어를 합하면 세계 D램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막강한 반도체 산 업이 강 박사의 머리와 가슴, 손끝에서 비롯

#### 외면받은 반도체 개척자

2004년 12월 메가 D램 시대를 구가하며 반

도체로 세계적 기업이 된 삼성전자가 기흥 반도체 단지에서 '삼성반도체 사업 30년' 자 축 행사를 요란하게 벌였다. 이 자리엔 이건 희 회장, 홍라희 여사(이 회장 부인) 그리고 그룹 주력 회사 CEO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그럴 만도 했다. 2000년 들어 서며 IT 불황이 시작되면서 다른 기업들이 모두 고전하던 때에 삼성은 반도체 덕에 대폭 흑자를 내고 있고, 향 후 전망도 밝았으니 구세주가 될 만

했다. 30년 전 이 때는 제1차 오일 쇼크로 공 장 준공 후, 회사를 넘기게 된 한국반도체 공 업(KSI)을 인수한 시점이다. 이 회사를 창립, 한국 최초 반도체 칩을 그것도 세계 4번째 로 LSI(대규모 집적 회로) 칩을 생산해 낸 강 기동 사장(공학박사)의 얘기는 쏙 빠지고 삼 성그룹이 어느날 갑자기 반도체 산업과 기 술을 창조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PR을 했다. (출처: The New Media, 2017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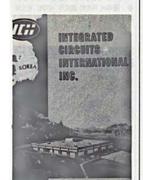
# 西紀1974年10月6日 日曜日 (陰曆 8月21日 庚辰) (廣久韓都便物認可 導体是 援



아마추어 무선연맹(KARL)의 인연으로 만 난 김규한 (위 사진 왼쪽) KEMKO 사장은 한국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국내외의 재산을 모두 투자하였다. 필자가 가장 존 경하는 분이다. 1973년 한국에 반도체 공 장이 생기고, CMOS-LSI 제품 생산이 크게 성공하여 한국의 반도체 역사가 시작되었 다. 오른쪽 사진들은 당시 최첨단 3" 웨이

퍼이다. 이 생산 라인에서 훗날 64K DRAM MEMORY 개발 및 생산 성공의 기초 및 기 반 기술이 현대와 경쟁에서 한 발 앞서 갈 수 있는 핵심 기술과 경험 있는 인력들이 양성되었다. 1978년 삼성이 한국반도체( 주)와 미국에 1972년에 설립한 ICII(강기동 지분 50%)를 100% 인수하고 상호를 삼성 반도체(현 삼성전자)로 바꾸게 되었다.

全型 5 精 C



10년사

1987년2월15일 삼성반도체통신 발행 -Page 90

#### 2. 最初로 3인치 웨이퍼 設備 갖춰

1973년 8월부터 본격적인 회사 설립 준비작업이 착수되었으나 국내 최 초의 웨이퍼 가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1974년이 되어 서야 비로소 회사설립에 대한 政府認可를 얻게 되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반도체산업을 단순 조립생산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 에 웨이퍼 가공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관계자들의 끈덕진 설득으로 차츰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1974년 1월26일 설립된 韓國半導體(株)는 국내 KEMCO의 자본투 자 50만弗,美 現地法人 ICII의 설비투자 50만弗 등 총 1백만弗의 자본금 으로 출발하였다. 이 지본금은 1975년 9월 최초의 製品出荷가 이루어질

한편, 회사 설립작업과 병행하여 공장건설도 着手되었다. 1973년 10월7 일 京畿道 金浦郡 吾町面 陶堂里의 垈地 3천7백88평에 건평 5백61.8 평의 초현대식 웨이퍼 가공생산공장의 기공식이 있었다.

설계에서부터 내부공사에 이르기까지 姜起東박사의 철저한 기술지도 밑에 국내에서 최초로 웨이퍼 가공생산공장을 건설하여 국내 반도체 產業 史에 新紀元을 이룩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으나 공장건설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겪어야 하는 공사 담당자들의 고충은 이루말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다 공장건설에 대한 정부와 기존 반도체 조립업체의 이해부족까

지 겹쳐 참으로 힘든 작업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건설공사는 당초계획에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이

루어져 공사개시 6개월만인 1974년 4월 건물 内・外部工事를 완성하였 고 장비도입과 설치를 거쳐 이해 10월7일 마침내 공장 준공식을 갖기

이 공장은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工費의 3분의 1만으로 완공되었을 뿐 만 아니라 20만弗짜리 Ion Implanter 등 最尖端의 3인치 웨이퍼 가공생산설 비까지 갖추어 기존의 2인치 웨이퍼가공생산설비를 가진 선진 반도체 생 산업체들을 놀라게 하였다.













#### 한국 반도체 기술 습득 - 6.25 때 김해에서 시작







6.25 때, 피난은 경남 김해 할아버지 댁으로 갔다. 김해 비행장 옆인데, 24시간 미 공병대 의 비행장 확장작업이 한창이었다. 미군 쓰 레기 더미에서 QST Amateur Radio 통신 관 련 잡지를 발견했다. 이후, 무선통신을 알 게 되면서 Amateur Radio에 집착하게 되었 다. 서울로 돌아와 체신부를 거의 매일 찾아

가 우리도 미국, 일본과 같은 Amateur (Ham) Radio 허가를 졸라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고 무선 법규가 만들어지고 통신사 자격시 험을 혼자 보고, 혼자 합격했다. 신이 나서 단 파 통신장비 구입과 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내무부 치안국 특수정보과(중앙정보부 전 신)에 간첩으로 몰려 잡혀갔다. 혐의는 풀리



고 도리어 단파 통신으로 간첩 잡는 일에 협 조하기로 했다. 그토록 원하던 단파 무선국 HL1TA를 운영하게 되었다. 필자는 특수정보 과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한국 아마추어 무 선연맹 KARL을 창설했다. 당시, 단파=간첩 으로 여기던 시절이었다. 위 사진이 창설 실 무진이다. (좌로부터 이동호, 이덕빈, 정혜선,

강기동) 이덕빈 씨는 필자를 미국 Ohio State Univ.로 이끌어주셨고, 연맹 창설에 이사직 을 맡으신 김규한 KEMKO 사장은 한국 반도 체(주) 설립에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하셨다. KARL 창설이 바로 한국 반도체의 뿌리가 된 것이다. 반도체 기술 습득을 위해 1958년 미 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17

#### 미국에서 기술 개발 책임자로 근무





지도해 준 은인 Dr. C. Lester Hogan





Prof. M. O. Thurston

Ohio State Univ. 내 반도체 연구소에서 Prof. Thurston의 선임 연구원으로 실질 적인 소장 업무를 수행했다. 박사학위 를 받은 후, Motorola Semiconductor로 입사했다. Motorola에서는 신소재 개 발 책임자로 7년 동안 거의 모든 반도 체 개발을 필자가 직접 담당했다. 특히 최신유도탄 개발 계획에 기대 이상의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 공급해서 회사

# **Semiconductor Patents Granted to Motorola**

By FRANK GRANZEIER

PHOENIX SPD—Patents covering two manufacturing techniques that counteract surface and bulk defects in semiconductor devices have been awarded to Motorola Inc. based on research work at the company's Semiconductor Products division.

Titled "Semiconductor Device with Passivated Junction," patent # 3,302,076, relates to an improved design for passivated diodes and transistors whereby the electrode configuration for contracting the various conductivity regions of such devices acts to improve their surface states. It covers an invention commonly referred to as "field relief electrode" or "equipotential ring" technology.

This was followed by two patents on the Annular process for manufacturing semiconductors, bringing to 54 the total number of semiconductor patents issued to Motorola within the past two years.

Jack C. Haenichen, Motorola's manager of operations for thyristor products and the man behind Annular, said that the field relief electrode and Annular developments serve complementary roles in device manufacture by controlling surface and bulk defects.

The patent is based on the research of Dr. Ki Dong Kang and David Metz. Ki is manager of surface studies in Motorola's applied science department. David is assistant director of the department.

According to Ki, the invention is applicable to the manufacture of a PN junction in order to improve its electrical performance by controlling surface problems.

Receiving the congratulations of Leo Dwork (R). VP and director of product and operations groups are Ki Dong Kang (L), manager of surface studies in the applied science department; and David Metz, assistant director of the depart-

ment.



CEO Hogan 사장으로부터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듯 반도체 연구소와 Motorola에서 연구 개발, 생산 등 당시 최첨단 기 술의 모든 경험을 필자의 머리 속에 저장

하고, 이 기술을 한국으로 가져와 씨앗을 뿌려서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현 삼성과 SK)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 한국 반도체 시계칩의 大成功

삼성 반도체 통신 10년사 page 172

#### 第2節 前人未踏의 市場…韓國半導體(株)

#### 1. 電子時計用 반도체로 黑字누려

韓國半導體(株)는 회사설립때부터 C-MOS<sup>11</sup>기술을 이용한 LSI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였으나 확실한 제품선정은 하지 않은 채 工場 준공후부터 공정안정화와 기술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여러제품의 試生産에 착수하였다. 다행히 공장준공후 2개월만에 표준형C-MOS로직4000 씨리즈 (Standard C-MOS Logic 4000 Series)<sup>21</sup>의 試生産에 성공 함으로써 C-MOS/LSI 제품생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계속하여 전자계산 기용 素子 등의 試生産에도 성공하여 C-MOS기술의 소화 및 생산라인의 안정가동이 가능해졌다.

1975년에 접어들면서 韓國半導體는 당시 전세계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다른제품보다 경쟁력도 뛰어난 「LED<sup>31</sup>전자손목시계용 C-M OS/LSI 제품」을 최초의 量産製品으로 개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美規 地法人 ICII의 협조를 받아 본격적인 개발작업에 착수했다.

사실 단순조립 생산단계에 머물러 있던 국내 반도체 업계의 수준으로 서는 美·日등 先進 반도체 국가들 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LED 전 지손목시계용 C-MOS/LSI 제품을 개발키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C-MOS 기술의 권위자인 姜起東 社長을 중심으로 한 기술진의 피나는 노력과 ICII파견 기술자의 적극적인 기술지원에 힘입어 마침내 1975년 9월 1일 6기능 LED전자손목시계용 반도체인 「KS-5001」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이「KS-5001」의 개발은 현재의 1메가 디랭開發에 버금가는 획기적 사건으로서 단순조립 생산단계에 머물러 있던 국내 반도체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은 물론 그수준을 크게 향상시켜 일약 세계 4번째의 C-MOS/LSI 生産國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자손목시계용 C-MOS/LSI의 가격은 6~8 弗이었으나 수요확대에 따른 供給不足 현상으로 인해 24시간 풀가동에도 불구하고 殺到하는 주문에 따를 수 없을 만큼의 好況을 누려, 量産開始 3개월만에 월간 손익을 黑字로 전환시키는 쾌거를 올렸다.

중동전쟁이 유발한 오일쇼크로 전세계가 경제불황에 빠져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두가 부정적이던 시계칩의 대성공은 삼 성 고위층에 강기동 전자 사장 대세론을 야기했다. 겁먹은 강진구 전자 사장은 반 도체 기술이 완벽하게 정착됐다고 필자에 게 직접 확인하고 필자의 축출을 서둘렀 다. 우선 필자의 전자시계사업부를 "그룹 차원 결정"으로 밀어부쳐 빼앗고 삼성파 견 평이사에게 사장과 같은 재무결재 권

한을 부여했다. 아래 왼쪽은 삼성이 참여하기전 경영진으로 한국측 투자를 대표해서 나온 이상규 아들 이훈(앞에 앉은 사람) 전무하고 딸 그리고 귀국한 필자의 가족 사진이다. 그 아래 사진은 삼성이 투자하기전 한국반도체 일꾼들로 필자가 얼굴은 알아도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올린다. 필자가 퇴사 후, 거의모두 강 박사 계라고 퇴사되었다. 이들은 반도체가 없던 시절이라 갈 곳도 없었다.









아래는 삼성을 떠난 후, 현대 정주영 회장이 필자를 Sunnyvale로 찾아왔을 때 제출한 현대그룹 전자사업 계획서이다. 한국에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려면 대량으로 같은 것을 찍어내는 Memory 제품이 적합하다고 추천했다. 필자를 사장으로 지명하고 울산까지 가서 환영 만찬까지 받았다. 현대 고위층에 밀고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미국에서 사장직 사임을 전화로 일방 통보했다. 동시에 회사 전화번호도 전

부 바꾸었다. 정주영 회장이 직접 전자 사장에 취임하고 발벗고 반도체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필자는 막았다고 안심했는데, 상황은 더 다급해졌다. "나는 더크게 한다" 동경에서 나온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선언이다. Memory 착수에는 반년 정도 현대에 뒤졌지만 필자가 만든 첨단 C-Mos 공장 기반이 이미 부천에 있어서 삼성이 먼저 Memory 제품을 현대에 앞서 만들게 된다.

는 보고서는 1982년 8월 한국의 현대중고업주식회사 부사장 이현대와 미국 의 KDK Electronics Inc 사장 강기동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의해 서 작성하였다.

용역계약은 현대구름 신규사업 부부장 이동운의 초안에 의거 미국 SunnyVale에서 공증과 대한민국 상향주제 용어사관의 확인을 거쳐 대한민국 과학 기술 서의 공식송인으로 발효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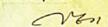
용역계약 기간증 1982년 8월12일부터 1982년 9월5일까지 현대구름 이동운부장 에게 SunnyVale 에서계속적인 자문에 용하고 제 반 편의를 제공하였고사업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 1) 반도세 사업 조직도,
- 2) 반도세 사업 인원계획,
- 3) 반도 책 사업 재미한국기술자명단, 주소, 경력 기약,
- 4) 반도체 공장 배치도,
- 5) 반도체 생산기계, 성능, 가격밋공급원,
- 6) 반도체 공장 시설장비 규모,
- 7) 반도세, 용신, 자동계어장치, 자동사용전자장치의 종류,성능,시 장 및 판매계획,

또 한 용역계약 기간증 반도체 전문가를 방문차 Los Angeles 를 두번 왕때 한바있다.

"현대구름 신규사업부" 에 만드러준 반도체 64K DRAM 사업계획서 삼성보다 반년이 앞서있다

Summyrde our



1990년대 초, 삼성 기획실에서 나왔다는 전문작가를 포함한 삼성 반도체 역사 제작 팀이 미국으로 필자를 찾아 왔다. (이들이 삼성 반도체 신화 제작) 필자는 필자가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알고 흥분하고고마웠다. 이들은 Palo Alto에 묵고 있어서필자는 이들에게 여기에서 2일간 반도체기술, 실리콘벨리의 특성과 한국에서 한일 등 모든 성의를 다해 대화와 강의를 했다. 동시에 필자가 보관 수집한 모든 관련

자료를 다 제공했다. (이자료들은 행방불

명) 돌아갈 때,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건 반도체의 신화감이라고했다. 결과물은 이병철/이건희 업적이 반도체 신화가 되어 나왔다. 필자 강기동의업적은 이병철/이건희 신화로 바뀌어지고 강기동이란 이름은 지워졌다.

필자는 여기서 삼성 반도체 신화의 지워 진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화 보를 올린다. 마감이 없는 글과 화보이지 만 읽고 봐주셔서 감사하다. 글: 강기동



필자의 자서전 표지이다. 출판은 못했지 만 필자의 평생 한을 담은 자필 자작 비매 품이다. 필자의 반도체 기술 습득 과정, 한 국으로의 기술이전 과정 등이 적혀 있다.

Link:

kdkelectronics.com
 http://kdklabs.tistory.com/50

Ki Dong Kang Email: kdkang@gmail.com Address: 15240 Redmond Loop, Reno, NV 89511 USA

\* 본 글의 내용은 본 회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계 7대 전함과 이순신 '거북선'의 재발견

이내원 (사대 58)

2016년 4월 6일, 미 해군 연구소 기관지 US-NIS News는 역사상 가장위대한 전함 일곱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선정 방식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함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밝히라"라는 설문에 응답한 900명의 독자를 포함한 26,000여 명의 관심자 의견을 분석 종합한 것이었다. 이렇게 선정된 7대 전함의 순서와 모습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다시 시대별 특성별로 비교표를 만들어 보면그 다음과 같다.

이들을 살펴볼 때 첫 눈에 들어 오는 놀라움은 상대적으로 장난감 크기에 불과한 우리의 목제 거북선이 90대의 전투기를 싣고바다 위를 떠다니는 공군기지 역할을 한 철제 항공모함 USS Enterprise, 6.25 한국전에도 참전했던 전함 USS lowa, 그리고 가공할원자력 잠수함 USS Nautilus와 함께 어깨를나란히 선정되었다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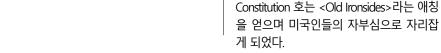
또 이 7대 전함을 탄생시킨 소속국을 살펴 보면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단지 4개국뿐으 로 세계 해양을 주름잡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태리, 네델란드 및 일본은 자취가 없다. 그 중 동양에서는 가장 작은 나라 한 국이 유일하게 세계 명품 전함 개발국이 되 었으니 이 감동 어이 감당할까?

또 시대적으로는 다른 세계 선진국보다도 무려 220년이나 앞서 묵묵히 막강한 방탄 전함 거북선을 개발하여 일본의 침략 야욕 으로부터 나라를 구해 낸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애국 헌신 앞에 한없이 초라하고 부 끄러워지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다.

비교표의 상단 1, 2번의 USS Constitution과 거북선은 나무로 만든 목제 전함이라는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항해 방식에 있 어서는 전자가 커다란 돛 세개로 받는 바람 의 힘으로 추진하는 범선인데 반하여 거북 선은 약 80명의 놋꾼이 힘들게 젓는 노의 힘 으로 기동하는 인력선이다.

그런데 비교표의 취항 연도에 주목해 보면 거북선보다 무려 205년이나 늦게 나타난 USS Constitution이 거북선을 제치고 첫째로 등재된 불합리성과 마주하게 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USS Constitution의 역사를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수긍할 수도 있다. USS Constitution은 현재도 현역으로 살아 있는 미 해군 전함으로 신화적 상징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전함은 1797년 취항한 신생 독립국 미국의 목제 범선 함대(Frigate) 6척 중하나로 초대 대통령 George Washington이 미 헌법제정 공포 후 명명한 역사적 전함이다.

이 전함은 건조 당시 목조 선체를 철판으로 감싼 혁신적인 철갑전함이었는데 1812년 여전히 세계 최강 해군력을 자랑하던 영



사상 가상위대한 선함 일곱 난 바 있다. 선정 방식은 "역사 난 전함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별문에 응답한 900명의 독자 00여 명의 관심자 의견을 분 I었다. 이렇게 선정되 7대 전

순서	이 름	소속	분류	취항	길이(m)
1	USS Constitution	미국	목제범선	1797	93
2	거 북 선	한국	목제방탄	1592	21-34
3	USS Enterprises	미국	항공모함	1936	342
4	HMS Dreadnought	영국	구축함	1906	160
5	USS Iowa	미국	전함	1943	270
6	USS Nautilus	미국	핵잠수함	1930	113
7	SMS Emden	독일	경순양함	1916	151



USS Constitution – Frigate 범선전함 (미국)



USS Enterprise - 항공모함 (미국)



USS Nautilus - 원자력 잠수함 (미국)



국 전함 HMS Guerriere가 미국 상선들을 부

당하게 억류함으로써 야기된 해상 분쟁에서 영국 해군의 함포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포탄이 철장갑의 강도를 이기지 못

하고 튕겨져 나감으로서 USS Constitution 호는 영국 해군을 패퇴시켜 신화적 명성을

얻으며 세계 제일의 해군력을 확보하는 결

정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로 인해 USS

Turtle Boats – 거북선 (한국)



HMS Dreadnought - 전함 (영국)



USS Iowa - 전함 (미국)



SMS Emden - 경순양함 (독일)

이 전함은 내구성이 없는 목제 범선이었으므로 취항 84년만인 1881년에 일단 퇴역하여 1907년에는 박물관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 시민들의 지극한 사랑으로대대적인 보수를 거쳐 1934년에는 3년 동안 90개 항구를 순방하는 대순항을 마치고미 해군의 현역 함선으로 복귀하여 현재는보스톤(Boston) 항에 정박 중이다.

19

1997년에는 취항 200주년, 2012년에는 전 승 200주년 기념 항해를 한 바 있는데 이 범선이 지나갈 때면 많은 미국 시민들이 부동의 자세로 경례를 한다고 하니 살아있는 전설을 소중히 지켜 나가려는 그들의 애착을 읽을만 하다.

그러나 이들 두 전함의 해전 연도를 비교할 때 1592년 임진왜란의 거북선이 1812년 USS Constitution의 국지전보다 220년, 2 세기가 넘는 엄청난 세월을 앞서서 일본군의 조총 세례를 끄떡없이 돌파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적선을 격파한 실적을 결코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이로 볼 때 거북선을 단연 1위로 평가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이나 미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특성상 미국 우선주의의 애교로 접을만 하지 않을까 한다. 오히려 세계 열강의 화려한 명품 전함들을 제치고 우리 한국인 자신들도 미처 인지하지못한 거북선과 그 창시자 이순신의 위대함을 드높히 평가해 준 미국의 사실주의 정의 교육, 양심 교육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수 없다.

더욱이 다른 모든 7대 전함들이 생생한 실 존적 사진으로 소개된 반면 사진이 없는 거 북선은 고바우 만화작가 김용환 화백의 미 공개 거북선 해전도를 찾아 내어 대신해 주 며 '거북선은 강력한 심리전 무기로 연기를 내뿜는 용머리를 가지고 사실상 침투가 불 가능(Virtually Impenetrable) 하였으며 속도 는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 났다'고 친절한 설명까지 더해 주었다.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시대 적으로 인류 해양 역사의 맨 앞에 선 전함 거북선과 그 창시자이며 위대한 국토방위 의 표상인 충무공 이순신을 우리 한인의 대 표적 모범시민과 민족정신의 표상으로 삼 아 뚜렸한 한인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되는 긍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순신 숭모 교육가

####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다음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링크된 곳으로 이동하셔서 '동창회비 납부'를 누르시고, 해당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1



이석호 (공대 66)

# 산속의 소녀

저 남쪽 어느 산골 마을의 뒷산 양지바른 곳에 조그만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일부러 가꾼 것도 아니건만 이 무덤 주위 에는 여기저기 예쁜 꽃들이 피어 있어 찾 는 이들이 신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 런데 마을에서 이 무덤을 관리 하면서 매 년 단오절이 되면 마을 규모로 이 무덤에 묻힌 이에게 버드나무 가지로 둥글게 엮 은 테에다 백합꽃과 빨간 장미꽃으로 장 식한 화관을 바치는 추모행사를 합니다. 아래에 적힌 글은 이 추모행사를 하게 된 사연입니다. 이 마을의 인가가 몰려 있는 지역에서 뚝 떨어져서 마을 뒷산 산기슭 에는 일제 때 산지기가 살았던 작은 삼 칸 기와집이 있었고 그 뒤로 텃밭이 있어서 감나무와 밤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도토 리나무 등 제법 여러 그루의 유실수들이 심겨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일제 말기에 한 동안 비어 있다가, 해방되고 나서 서울에 서 젊은 남자 한 사람이 이 마을의 초등학 교 교사로 발령받아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부인과 두 살 난 딸이 하 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학교에 가 있는 동 안 어린 딸과 함께 가끔 마당에 나와 거니 는 것 말고는 그 집 부인은 집 밖에 나오 는 일이 별로 없어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 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때부

이 서울사람들이 이사 오고 나서 이 년쯤 있다가 육이오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 아빠는 군에 징집되어 전선으로 나가 고 엄마 혼자 이제 막 네 살 된 딸을 돌보 며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에도 인 민군들이 들이닥치고 군경가족들이나 교 육받은 사람들은 모두 반동으로 몰려 어 디론가 끌려갔는데 그중 일부 살아 돌아 온 이들의 말에 의하면 군경 가족들은 곧 바로 아이들까지 모두 총으로 쏘아 죽였 고 군경 가족 아닌 사람들 중 일부는 의용 군으로 차출되어 끌려가고 나머지는 돌 려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서 울집의 여인과 딸은 아무 탈 없이 살아 돌 아와서 마을 사람들이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워낙 자기 목숨 부지하 기 바빴던 때라 별 관심을 둘 여유가 없어 그냥 잊혀졌습니다.

터 이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집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낙동강 전선을 돌파한 국군이 북상하면서 이 마을까지 들어오자 퇴로 가 끊겨 갈 곳이 없어진 인민군들은 마을 뒤의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공비가 되어 서 밤이면 내려와 군경의 초소를 습격하 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식량을 약탈해가 는 빨치산 작전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 러다가 어느 여름날 밤에 산에서 몰래 내 려온 인민군 장교가 그 서울 여인 집 안 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기동타격 대가 출동하게 되고 총격전이 벌어지면 서 어느 쪽에서 날아왔는지 유탄 하나가 소녀의 머리를 관통하고, 곧이어 그 인민 군 장교도 쓰러집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숨져 있는 소녀의 고사리손에는 마치누구에게 주려고 했었던 양 하아얀 백합 꽃 한 송이가 꼬옥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녀의 엄마는 소녀에게 수의 대신 하얀 드레스를 입히고, 머리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 버들가지를 둥글게 엮어서 흰 백합꽃과 빨간 장미꽃 송이로 장식한 화관을 씌워 뒷산 좋은 곳에다 정성스레 묻어줍니다. 소녀의 엄마는 몇 번 앞마당의 백합꽃을 꺾어 들고 하아얀 소복 차림으로 소녀의 무덤을 찾아오더니, 어느 날 두 사람

부인과 함께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도 안 지난 어느 날 저 녁 장 씨의 부인이 옷고름이 다 풀어져 앞 가슴이 드러나고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동 네 인가로 뛰어 내려와 자기 집 쪽을 가리 키며 횡설수설하는 것이 발견되어 사람 들이 급히 달려가 보니 장씨가 대청마루 앞 댓돌에 두 다리를 걸친 채 큰대자로 마 당에 뒤로 쓰러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 목 이 부러져 죽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장씨 부인이란 여자가 사시나무 떨 듯하면서 한사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 아 동네 여인 하나가 이상해서 안방을 들 여다보았다가 기겁을 하고 뛰쳐 나온 후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말이 안방 아랫목 에 하얀 옷에 꽃 관을 쓴 서울집 딸이 앉 아 있다가 자기를 빤히 쳐다 보더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동네 이장 부 인의 간호를 받으며 고열에 헛소리를 하 면서 앓던 장씨 부인이 다시 그 서울집으 로 들어가서 목을 매고 죽어있는 것이 발 견되었습니다. 이장 부인 말이 장씨 부인 이 마침 잠이 들었기에 괜찮겠거니 하고 잠시 뒤뜰 텃밭에 나가 일을 하다 와보니

부가 같이 이집 저집 허드렛일들을 거들

어 주면서 살아오던 "장 씨"라는 남자가



의 헌병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군 찝차에 태워져 읍내 쪽으로 사라진 후 소식이 끊깁니다. 이 여인은 인민군들과 내통한 혐의로 특무대의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도 하고 고문으로 죽었다고도 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한두 번 들리고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녀의 魂은 흩어지지 않고 산속에 머무 릅니다. 때때로 산에서 내려와 이제는 빈 집이 된 살던 집의 마루 끝에 앉아서 멍 하니 엄마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주로 산 속에서 지냅니다. 낮이면 산속의 새들이 나 풀벌레등과 동무해서 노느라 심심하 지 않지만 해가 지고서 무덤 옆에 핀 들 꽃들과 풀벌레들과 소곤소곤 이야기하다 가 그들마저 잠이 들면 소녀는 혼자가 됩 니다. 그러면 소녀는 멀리 하늘 아래 검 은 산등성이만 보이는 깜깜한 밤중에 칠 흑 같은 어둠뿐인 마을 쪽을 내려다보며 엄마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잠이 들 면 소녀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소녀는 백합꽃 한 송이를 들고 그 백합꽃만큼이 나 눈이 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찾아오는 엄마를 봅니다.

그 소녀의 엄마마저 사라지고 빈집이 된 그 서울집에는 두어 달 후 그 마을에서 부 없어졌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는 장 씨 부부가 그 서울 여인을 인민군과 내통을 했다고 경찰에 고자질하고 그 대가로 그 집과 땅을 받은 것이라고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 씨 부부가 그 서울집 여인의 원혼이 씌워 죽었다고 믿게 되었고 서울집은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낙인이 찍혀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를 않았으며 그 집 임자라고 나타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집은 주인 없는 빈집이 된 채 방치되어, 눈과 비바람에 벽이 무너지고 지붕도 내려앉아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의, 문자 그대로 凶家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휴전되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 꼴을 베러 나가던 소년이 흰옷에꽃 관을 쓴 서울집 딸이 마을이 동구에서서 자기 엄마가 끌려간 읍내 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해서다시 뛰어들어온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물 캐러 나왔던 동네 여인들도 그 소녀를 보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행여나 그 소녀의 원혼때문에 동네가 저주를 받아 흉년이 들고역병이라도 돌지 않을까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그때에 산짐승이 동네에 내려와 돼 지나 개 등 가축들을 물어가는 일들이 생 기자 동네 사람들은 이 사건은 산신령이 노해서 내린 虎患이 분명하니 다음엔 사 람이 물려갈 차례라고 단정을 짓게 되었 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볶이다 못 한 이 장은 마침내 마을 회의를 소집해서 대책 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을에 서 그 소녀의 무덤을 관리하면서 매년 단 오절마다 소녀의 무덤 앞에 화관을 바치 면서 소녀의 혼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지 내게 된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 추모제 덕인지 호환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더 신기한 일은 그 마을에는 홍수나 가뭄 이나 병충해 같은 일이 없이 매년 풍년이 들어 사람들은 그 소녀의 원한이 이제 풀 렸나 보다고 마음들을 놓았답니다. 그러 나 가끔 소녀의 환영이 사람들 눈에 띄긴 했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합장을 하 며 "이렇게 나와 다니시면 사람들이 놀라 니 어서 산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기도 를 하면 사라지더라고 했습니다.

286호 | **2018년 2월 호**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밤 그 서울집 에는 원인 모를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 나 그것을 귀신 불이라고 믿은 마을 사람 들이 불을 끄겠다고 나서지를 않아 그대 로 전소되고 말았으며 타다 남은 것들마 저 그 이듬해에 내린 많은 비에 모두 쓸려 내려가 완전히 공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서울집 터에는 교회가 생기고, 서울 에서 대학을 다녔다는 젊은 전도사 부부 가 부임해 오셨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기 신 이 전도사님은 통기타를 치면서 따오 기나 오빠 생각 같은 흘러간 동요풍의 노 래를 하기를 즐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기슭에 있는 작은 무덤에 얽힌 사연 을 듣고 몹시 가슴 아파하시더니 스스로 작사를 하셔서 동요 "가을밤" 노래의 곡 조에 맞춰 기타를 치시며 노래를 하셨습 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서울의 어느 고 등학교에서 미술선생을 하고 있는 친구 에게 부탁해서 제작한 예쁜 비석을 소녀 의 무덤 앞에 세워 주는데 그 비석에는 전 도사님이 소녀를 위해 지으신 그 즉흥시 가 가을밤 노래 일절 가사와 함께 아래와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초가집 뒷산 길 어두워 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꽃들과 풀 벌레들 동무 삼아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놀다가 밤 깊어 모두 다 잠이 들면은 나 혼자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밤 깊은 산중에 홀로 앉아서 엄마를 기다리다 잠이 듭니다. 밤마다 꾸는 꿈은 우리 엄마 꿈 백합꽃 꺾어 들고 찾아오는 꿈

Epilogue (後記):

얼마 후 전도사님 부부 사이에 아주 아주 예쁘고 순하디순한 딸이 하나 태어납니 다. 그 후로는 이 마을에 소녀의 환영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지난 호 계속>

"어음"

"아. 사장님"

"자네들 여기서 뭐하고 있나?"

"네, 겨울동안에 공장 직원들 먹을 김치를 뭍을 구멍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무슨 구멍을 이렇게 크게 파나?"

"에이 사장님도..., 5,000포기 뭍으려면 이 정도는 파야지요."

"지금 배추 5,000포기라고 했나?"

"네, 사장님. 5,000포기는 해야 그래도 겨 울을 날 수 있습니다."

그랬다. 가발 오더가 있던 없던간에 나는 공장에서 지내고 있는 직원들의 끼니를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적어도 밥과 김치는 준비해줘야 했는데 그수량이 무려 5,000포기라니 갑자기 더 답답해 졌다. 없는 돈을 챙겨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현지 상황을 직접보고 차후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였다.

#### 당시 미국의 상황은 복잡했다.

1차 석유파동 이후, 1970년대 중반에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증가에 빠져 있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미국경제는 불황을 넘어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었또한 백인 중산층들은 경제의 쇠퇴가 지나치게 약자들을 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오일 쇼크로 인한 에너지 문제와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차 오일 쇼크가 1973년~1974년에 있었고 이에 따른 유류파동이 같이 일어 났다.

때문에 미국의 급격한 경제침체가 1973 년~1975년 사이에 일어났다. 이후에도 2차 오일 쇼크가 1978년~1981년에 발생하였으 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침체기 가 시작되었다. 더욱이 1978년에는 이란의 전면적인 석유 수출 중단으로 유가가 오르 기 시작해 가발 산업에도 피해가 있었다. 이때 미국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 리를 잃었는데, 특히, 백인보다는 흑인들의 실업률이 높았다.

이같은 상항을 전해듣고 목격했던 나는 힘없이 한국으로 돌아와 어떻게든 어려운 난국을 타계해 보려 힘을 쏟고 있었다. 그 러던 어느날이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리 호들갑인가?"

"우리 직원의 실수로 1년동안 관세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엄청난 세금을 물게되었습니다."

# 가발과 함께 걸어온 나의 86년 인생

(Part 7)

이준행 (공대 48)

"뭐라고!

1970년대 관세정책은 1960년대처럼 차 등관세율 체계를 계속 견지하면서 중화학 공업 관련된 중요사업을 육성, 지원하고 경 공업은 보호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관세율을 조정하여 1960년대보다 평균 10% 포인트가 낮은 30.6%의 평균 관세율을 유지하였다.

한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수출제품의 부가가치율 제고를 위해 1975년부터는 관세환급제도를 시행하였고, 수출업계의 관세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징수유예제도를 함께 도입, 운영하였다. 그러나 수출을 하지 못해도 내야하는 세금이 많았으며 만약 장기간 보고를하지 않거나 내지 못하면 엄격한 벌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많은 수출업자들이 힘들어 했었다.

당시에 닥친 수출적자와 이같은 관세로 인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공장 폐쇄를 결 정했다. 그리고 남은 모든 돈을 모아 한 명 도 빠짐없이 전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었다. "흑흑 사장님"

"언젠가 또 볼 날이 있겠지. 그동안 수고 들 많았네."

그렇게 공장 문을 닫고 직원들과 헤어진 뒤 나는 미국으로 아주 건너가기로 결심했 다. 즉, 이민을 결심한 것이다. 1971년도에 뉴욕 27가에 열어두었던 Junee Fashion 연 락사무소에 가서 한번 가발 사업을 펼쳐보 기로 마음 먹었다.

#### 아프로 가발과 머쉬룸 가발

한국과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던 작은 사무실에서 Junee의 이름을 걸고 본격적인 가발 판매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민자로서 의 출발도 두려웠지만 한국에서 한번의 실 패를 겪은 나는 마음가짐이 남다를 수 밖 에 없었다.

"어떠십니까? 본격적인 뉴욕 생활에 적 응은 잘 되시는지요?"

"선택이 있습니까? 무조건 적응하고 빨리 사업을 일으켜 본궤도에 올려야죠"

가장 먼저 나는 가발제품 공급의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야 했고, 가발을 받아 판매하는 사람들 관리까지 해야 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야 했을 때, 불평이 생길수도 있었지만 나를 응원해 주는 가족들이 있어 견딜수 있었다. 지금 그 때를 생각하면 망아지처럼 뛰어 다녔던 내 모습에 웃음이 날 때도 있다.

1970년대 후반의 미국은 두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영 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물가가 크게 오르고,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생겨났다. 자료를 보니 70년에 갤런 당 36센트하던 가솔린 가격은 79년에 86센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79년 평균 주택가격은 5만 8,500달러였다. 60년대 후반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두 배가 넘게 상승한 가격이다.

70년대 후반 평균 새 차 가격은 5,770 달러, 그때 인기리에 판매되던 도요다 코롤라가 약 3,500 달러, 미국 소형 자동차는 약4,000 달러에 구입할 수 있었다. 또 미디엄사이즈 계란 12개를 25센트에 구입할 수있었던 시기였다.

"이 사장님, 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사장님, 장사는 잘 되시 는지요?"

"저..., 그게 이번에 가발 장사 접고 쥬얼리 팔아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아, 그래요. 할 수 없죠. 하지만 안타깝네요. 박 사장같은 분이 이 업계를 떠난다니요."

나에게 가발을 받아다 곧 잘 팔던 젊은 유학생 출신의 박 사장, 그는 가발 장사를 접고 쥬얼리 장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가발산업이 사양 길에 접어들어 한인들은 가발 사업을 접고 업종을 바꿔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내 기억으로는 퀸즈 플러싱 지역에 한인 밀집 주거지역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던 시기도 70년대 후반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무리 불황이라고 해도 잘 팔리던 가 발은 있었다. 바로, 아프로 가발이었다. 한 국말로 설명하자면 머리가 크게 부풀어 오른 아줌마 스타일의 가발이다. 사실, 아프로라는 명칭은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에서 온 것이라고 들었다. 이 가 발은 보통 '프로(Fro)'로 줄여 말하거나 '내 츄럴(Natural)'로도 알려져 있다.

흑인계 손님들의 아프로 머리 스타일은 머리카락을 펴기 위한 화학제품 등의 처치 없이 아프리칸의 자연스런 컬이나 킨키헤어를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이와 이의 사이가 듬성듬성한 '아프로 픽(Afro pick)'이라는 빗을 사용하여 두피로부터 머리카락을 빗어 구름 또는 공처럼 부풀리고 다녔다. "앞으로도 한동안 펑크, 히피 스타일이 유행할 것 같답니다."

당시 직원들이 회의에서 자주했던 말이다. 1970년 헤어 스타일은 펑크, 히피, 엘레 강스로 표현할 수 있다. 경제가 안 좋던 시기여서 실직률이 증가하고 산업 환경과 기술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때였다. 또한 그때의 소비자들도 지금처럼 더욱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추구하며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일환으로 헤어디자인에도 복고풍 경향이 나타났었다. 한편,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주목 받기도 해블로우 드라이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했었다.

"아프로 가발을 얼마에 팔아야 할까?" 직원들을 모아 놓고 가발 가격에 대해 의논했다.

"사장님, 다른 회사들은 모두 2불 50전에

□ 판매한답니다. 우리도 할 수없이 그 가격에 □ 맞춰 팔아야 할 것같습니다."

"뭐라고? 2불 50전?"

"그 가격 아니면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잘 팔리던 아프로 가 발을 2불 50전까지 내려 팔아야 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가격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똑같다. 제값받고 팔 수 있는 제품을 꼭 내려서 파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아프로 가발의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다양한 스타일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38가에 있었던 가발회사인데, 20불 상당의 웨이브가 들어간 가발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 제품은 나오자마자 히트를 치고 인기를 끌었다. 또, 킹스타라는 가발 회사의 제품도 잘 팔렸다. 이밖에도 스킨탑 테이프백 720번 가발과 K-720이라는 가발도 유행했었다.

1979년에 팔리던 가발제품 중 내 기억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는 제품이 있다. 일명 머쉬움 가발제품이다. 생긴 것이 꼭 버섯을 닮았다고 해서 한인들은 모두 머쉬룸 가발이라고 불렀다. 이때 사용되던 가발 원사는테비론이 많았다. 테비론은 샤이니한 장점이 있었지만 형태가 쉽게 눌러 앉은 단점이 있었다. 물론 카네칼론, 도요칼론 원사도 꽤 많이 사용했었다. 가발의 색상은 지금과 같이 다양하지 못하고 오직 1, 18, 2, 4, 27, 33번 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가발장사하기는 지금보다 쉬었다. 색상이 단순하니 까다로운 손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 체이스 뱅크 메거진 표지 모델이 되다.

적자를 보던 회사를 품에 안고 사업을 하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은 신용이었다. 신용은 개인이나 거래처간의 믿음을 뜻한다. 때문에 나는 신용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켜나갔고 신용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발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정도로고집이 셌다. 이런 나의 모습에 불편했을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금도 신용에 관한 나의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사장님, 체이스 뱅크랍니다."

"무슨 일이지, 아직 잔고가 있을텐데."

"헬로우 미스터 리?" "네, 무슨 일이신지요?"

"미스터 리가 이번 체이스 뱅크 메거진 의 표지인물로 뽑혔습니다. 사진 촬영을 준 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19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였을 것이다. 갑자기 체이스 은행에서 전화가 와 내가 은행 매거진의 표지인물로 뽑혔으니 사진을 찍자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왜?"라는 질문을 했으나 은행측의 답변은 짧았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용은 많은사 람에게 표본이 됩니다:"

난생처음 매거진 표지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착한 매거진 표지를 보고나는 박장대소를 했다. 왜 그렇게 긴장한모습이 역력한지..., 부끄럽고 창피했지만그래도 은행가들이 내 신용을 좋게 평가하고 인정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다음 호 계속>



이태상 (문리 55)

# 지난 12월 호 '예술은 구원인가?' 기고를 읽고...

지 않을까.

#### '예술은 구원인가?'

최근 동료 법정 통역관(스페인어)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것인지 는 몰라도, 만인이 수긍할 수 있을 것 같다.

1. 네가 매사에 남을 탓한다면 넌 아직 철부지다. (If you blame others for anything, you are immature)

2. 매사에 너 자신을 탓한다면, 넌 도(道) 길을 닦고 있다.

(If you blame yourself for everything, you are learning.)

3. 무슨 일에도 네가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면, 넌 도통(道通)한 경지에 도달한 거다.

(No matter what happens, if you blame nobody, you are enlightened.)

앞에 열거한 첫 단계는 '이러면 이래서, 저러면 저래서' 탈만 잡는 지경이고, 둘째는

'달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는 경지라면, 셋째는 '세상 모든 게 다 쓸모 있음'을 깨달은 입신지경(入神之境)이라 할 수 있

인생 80여 년을 살고 보니 얻게 된 결론이하나 있다. 작은 그림은 내가 그릴 수 있지만 큰 그림은 그려진다는 거다. 우연 같은 요행, 결코 알 수 없는 신(神) 또는 하늘의 섭리, 아니면 운명이나 숙명 혹은 속된 말로 팔자소관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리라. 어차피 우린 모두 하나같이 '우물 안개구리' 같다면, 마치 어린애들 소꿉놀이하듯 재밌게 재밌게 놀아보리. 어리석게 남과 비교하는 '도토리 키재기' 놀음 졸업하고 마이었지.

이럴 때에라야 비로서 '이래도 복, 저래도 복'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이리. 인류역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예술'이나 '종교' 또는 '이념'과 '사상'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다' 허깨비'라고 본다. 실물을 제쳐두고 '그림 자'를 좇는 일이라고 말이다. 다시말해 자연과 삶과 사랑 이상의 예술도 철학도 종교도 있을 수 없다는 거다. 우주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삶, 아니 이런 삶을 사는 한 숨한 숨 자체가 살아있는 그림이고 글, 곧 그리움이 준말, 사랑하는 가슴 '사슴'이 되는 게 아닐까.

평생토록 회화 그림과 글에 별 관심이 없어 문외한으로 그 아무리 뛰어난 어떤 예술이나 문학의 명작이라도 자연과 삶의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여겨오던 터에 뜻밖에도 지난 2017년 12월 20일자 미주판 한국일보 연예스포츠지 Culture 페이지에서 최문선 기자의 기사 '인간의 숨결은 어떤모양일까---찰나의 날숨을 담다'를 통해 난생 처음으로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예술가를 한 사람 발견하게 된 것 같다. 그 기사 일부를 옮겨본다. (못 본 독자를 위해)

숨은 어떤 모양으로 공기에 스며들까. '과학하듯 예술하는 작가' 마이클 주(52)는 그런 게 궁금해졌다. 찾아낸 답과 답을 찾은 과정을 작품으로 만들어 서울 소격동 국제 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에 내놨다. 표제작 '싱글 브레스 트랜스퍼(Single Breath Transfer 일산화탄소 폐확산능 검사)는 색색의 유리 조각 12점이다. 종이, 비닐 봉지

에 불어 넣은 숨을 질소가스로 순식간에 얼린 뒤 유리로 캐스팅을 떴다. 숨결이 바 람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조각으로 만 든 것. 작가가 확인한 날숨의 모양은 핵폭 발로 생기는 버섯구름을 닮았다. "내쉬는 동시에 흩어지는 숨엔 형태도 시간도 없 다. 보이지 않는 것. 찰나의 것에 의미를 부 여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대신 사는 시늉만 내면서, '작가'다 '예술가'다 문화적인 귀족 특권층으로,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 '사물'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신'을 섬긴다는 '성직자'로 행세하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할까.

그래서 우리 각자는 스스로를 사랑으로 살리는 것만이 참된 '구원'이라는 생각이다. 지난 연말 샤이니 종현 현역 아이돌 슈퍼스타의 사망소식 비보를 접하고, 너무도안타깝고 애처롭게 유감스러운 것은 종현이 '예술가'로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주었더라면 그 얼마나 좋았을까. '스포츠' 하듯 남이 만들어 논 게임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 하듯 제 삶의 룰들(rules)을 제 맘대로 만들어가면서 말이다. 이런 뜻에서라면 '예술은 구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예술이 스포츠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삶 자체가 최고의 예술이라고.



박준창 (인문 79)

맛이라고나 할까?

찾고, 주인공 James Donovan (Tom Hanks

분)이 내키지 않지만, 그를 변호하게 된다.

그런데, Abel은 의외로 악독하거나, 냉정하

#### 영화 이야기

## - Bridge of Spies -

한편 장벽이 쌓이고 있던 베를린에서 미

는 것이다. Donovan 변호사는 누구의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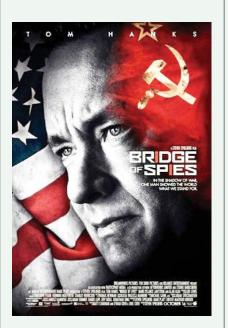
표도 아니며 혹시 어떤 불상사가 생기더

라도 미국정부로부터 일체의 보호도 없지

게 보이는 그런 자가 아니다. 언제 죽어도 난 Steven Spielberg 감독을 좋아한다. 그의 영화는 오락적인 재미가 너무나 좋다. 숨 준비가 되어 있는, 생을 달관한 듯한 사람. 한번 돌릴 사이 없는 액션의 연속인 Raid-그는 CIA의 전향 권유도 뿌리쳤으며, 전기 ers of the Lost Ark를 보고 나서 얼마나 재 의자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변호사의 말에 도 차분하고 담담하다. "별로 놀라와하지 미있었던지... Jaws, E.T., Jurassic Park 다 한 결같이 재미있는 영화들이다. 오락 영화의 도 않는군요"라는 Donovan의 말에도 그 냥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게 도움이 되 황제인 Spielberg 감독이 얼마 전부터 그가 공언한대로 정말 그가 만들고 싶어 하는 나요?" 엄청나게 cool한 사람이다. 재판 결 과는 보나 마나 유죄. Donovan은 사형 선 영화들을 만들고 있다. Schindler's List를 비 롯해서 Amistad, 그리고 최근의 Bridge of 고를 앞두고 판사의 집으로 찾아가 판사 를 설득한다. Abel을 살려 두자고. 미국 정 Spies에 이르기까지. Bridge of Spies는 뭐라 고 콕 집어 얘기하기 힘든데 은근히 재미 부의 보험이라고. 이렇게 해서 Abel은 목 있다. 은근히 우려 나오는 연한 녹차 같은 숨은 건진다.

영화 포스터, 2015년 개봉, 2시간이 넘는 국의 한 유학생이 동독 경찰에게 구금이 긴 영화이지만 흥행에도 성공했고 비평가 된다. 그리고 또한 Francis Powers라는 파 들에게서도 좋은 반응을 받았다. 일럿이 조종하던 CIA 정찰기가 소련에서 격추가 되고 파일럿은 체포가 된다. 그는 1957년 미-소 냉전시대. Rudolph Abel이란 소련 법정에서 유죄를 언도 받는다. 그리 자가 소련 측 간첩 혐의로 체포된다. 미정 고 Donovan 변호사는 CIA의 부름을 받는 부는 Abel을 이미 감옥에 보낼 준비가 되 다. Abel과Powers를 맞교환하는 협상을 해 어 있지만, 공정한 재판을 부여한다는 점 달라는 것이다. 1급 정보들이 상대에게 건 네어 지기 전에 빨리 맞교환을 해야 한다 을 과시하기 위해 그를 변호할 변호사를

만, 협상 역을 맡기로 한다. 베를린에서 만난 동독 측 당국자는 미국 유학생을 풀어줄 테니 동독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 달라고 한다.



영화 포스터. 2015년 개봉. 2시간이 넘는 긴 영화이지 만 흥행에도 성공했고 비평가들에게서도 좋은 반응을 받았다.

그러나 CIA는 이 유학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Powers가 정보를 주기 전 빨리 그를 받아 오는 것에만 괸심이 있다. 소련 또한 동독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Donovan 변호사는 결심한다. 2대1 맞교환을 하기로. 그리고 강수를 던진다. 2대1 교환이 아니면 없던 일로 하자고. 최후통첩을 던져 놓고 전화를기다리는데 고뇌와 고통의 시간이다. 마침내 2대 1 교환에 동의한다는 전갈을 받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은 팽팽히

계속되는데... 포츠담과 베를린을 잇는 다 리 위에서의 맞교환 장면은 영화를 직접 보셔야 한다.

교환이 끝난 후에도 Donovan 변호사는 자리를 뜰 수가 없다. 과연 Abel은 소련 귀환 후에도 무사할까 하는 착잡한 심정 에 사로잡혀서.

이 영화는 Jason Bourne 같은 액션은 없 다. 총도 등장하지 않는다. 살인도 없다. 쫓고 쫓기는 장면도 없다. 그렇지만 역설 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더 현실감 이 있고 진지하게 다가온다. 그러면서 관 객들에게 생각할 것들을 던져 준다. 바로 Donovan 변호사도 가진 걱정인데, Abel 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Powers의 운명 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 대로 Powers가 이중간첩이 되지 않았을 까 의심하고, 소련은 소련대로 같은 의심 을 가지고 있고. 더더구나 소련이 Abel을 죽여 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이 다. 나름대로 조국을 위한 애국 행위를 한 어떻게 보면 영웅인 두 인간. 가혹한 냉전 체제 속에서, 이렇게 애국 행위를 하고서 도 두 사람은 목숨마저도 그저 조국의 처 분에 맡겨야 하는 상황.

체제가 무엇이길래, 이념이 무엇이길래 인간은 이렇게 제할 일을 다하고서도 그저정부의 폐기품이 되어야만 하나? 한국에비하면 그래도 미국이나 소련은 낫다.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의 남한과 북한은 다른이념과 체제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던가? 서로가 서로를 죽였던 끔찍한 전쟁을 치렀음에도, 그희생은오늘도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한수웅 (의대 55)

내가 코렐리를 처음 본 것이 1967년 4월 그

가 메트(Metropolitan Opera)의 순회공연차

보스턴에 왔을 때였다. 그는 훤출한 키에

이목이 정연한 대단히 날씬한 미남형 중년

신사였다. 그가 마스네의 '베르테르'에 출

연하러 온 것이다. 그가 무대에 오르자 요

란한 박수가 장내를 진동하였다. 그 날씬

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몸에서 나오는 음

성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그의 음성을

드라마틱 스핀토로 통상 분류하는데 대단

히 웅장하고 남성다운 매력적인 목소리이

다. 그는 부단한 노력과 연마로 자기 스스

로 새로운 발성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

던 것이다. 이처럼 처절하게 이룩한 그의

창법을 판정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충

하지만 그는 20세기의 가장 출중한 테너

의 한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많은 팬

들이 그를 '테너의 왕자'(Prince of Tenors)라

물론 그는 그의 배우같은 미끈한 풍채의 덕분도 있지만 그의 남성적인 역강한 음

성때문에 20세기 테너로서의 으뜸자리에

오르게 된다. 우선 그가 무대에 서면 6척

넘는 키에 그의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가

장내를 완전히 제압해 버린다. 그의 우렁

찬 목소리는 찬란히 진동하면서 '높임 C'까

지 유연히 올라가며 언제든지 그는 벨벹같

은 서정적인 부드러운 음성을 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창법을 일반적으

로 벤야미노 질리(Beniamino Gigli)에 비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쟈코모 라우리-볼피

(Giacomo Lauri-Volpi)의 전통적인 벨 칸토

여기에서 그의 인생역정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그는 동북부 이탈리아 항구도시 안

코나(Ancona)에서 1921년 4월에 출생하였

다. 일반적으로 그의 집안에 음악적인 재

질이 없었다고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 아

우구스토(Augusto Corelli)는 35세때 오페라

테너로 입신하였고, 그의 친형 알도(Aldo)

는 학교를 중퇴하고 바리톤으로 전향하였

고, 그의 삼촌 두사람이 안코나의 극장 코

러스 대원으로 활약하였다. 그의 부친은

해군조선기술자였지만 그의 부모는 음악

적 재능을 보이지 않았다. 어린 프랑코는

바다를 몹시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는 부

친의 생업을 이어 조선기사가 되려고 볼

로냐대학 해양공학부에 입학하였다. 그러

나 그는 늘 친구와 어울려 노래부르기를

(bel canto) 창법에 비유하기도 한다.

출생과 성장

좋아하였다.

고 부른다.

원에 입적하여 오페라를 공부하기 시작하 였다.

역강하면서도 서정적인

테너 프랑코 코렐리

(Franco Corelli)

처음에 파보니(Rita Pavoni)에게 사사하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코렐리는 고음 정을 모두 잃고 말았다. 그후 마리오 델 모나코(Mario Del Monaco)의 스승 멜로키(Arturo Melocchi)의 제자 Scaravelli를 통하여 어깨 넘어로 배운 발성법을 자기에게 맞도록 개발하였다. 그리고 그는 델 모나코의 발성법을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을 들으면서 발성법을 연구하였다.

#### '로마오페라극장'에 발탁

폴레토 극장의 경연대회'에 참가하기를 종 용하였다. 코렐리는 오페라 '카르멘'의 돈 호제역으로 참가하여 우승하였다. 그 결과 로 1951년 11월에 그는 '트로바토레'의 만 리코(Manrico)로 로마오페라좌에 데뷰하 였다. 그 다음해에 그는 이탈리아 전국의 작은 오페라극장에 출연하고 또 라디오 프 로그램에 나왔다. 1953년 그는 로마오페라 좌의 중견 테너로 입적되어 1958년까지 있 으면서 벨리니의 '노르마'(Norma)에 칼라 스(Maria Callas)의 상대역 폴리오네로 등단 하였다. 이것이 이들의 첫 상견이었다. 칼 라스는 당장 그의 저력을 알아보았다. 그 래서 그들은 그후 칼라스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번 상대역으로 출연하였다. 1956년에 '페도라'(Fedora), 1958년에 '해적'(Il Pirata), 1960년에는 '폴루이토'(Poluito) 등에서 함 께 출연하였다. 그러나 1958년 1월 2일 로

1951년 여름 로마오페라좌의 지휘자가 '스

1957년 그는 소프라노 로레타(Loretta Di Lelia)와 교제한 끝에 결혼하였다. 결혼후 그녀는 전적으로 그를 뒷받침하였다. 결혼하기전 로마에서 공연을 마친 후 그녀가한번 무대뒤에 서명받으러 온 것이 인연이되었던 것이다.

23

1958년 그는 나폴리의 산 칼로 극장에서 오페라 '운명의 힘'(La Forza del Destino)의 돈 알봐로 (Don Alvaro)로 출연하여 레오노 라로 출연한 테발디(Renata Tebaldi)의 상대 가 되었고, 1959년에는 '아드리아나 르크 브러'(Adriana Lecouvreur)에서 마그다 올리 베로(Magda Olivero)를 상대하여 마우리지 오(Maurizio)로 출연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그는 총체적으로 30개 의 역을 연출하였는데 여기에는 남들이 전 혀 출연하지 않은 오페라도 섞여있다. 예 를 들면 스폰티니(Spontini)의 Agnese di Holenstauffen, 헨델(Handel)의Giulio Cesare 와 Hercules, 프로코피프(Prokofiev)의전쟁 과 평화 및 계리니(Guidi Guerrini)의 Enea 등이다

#### 연기실력도 대단해

코렐리는 음성뿐 아니라 연기실력도 영화 배우들을 능가한다. 그의 연기를 영상으로 보는 것이 한층 더 실감나기도 하다. 여기에 오페라의 진미가 있는듯 하다. 지금 시중에 나온 DVD를 한번 점검해 본다.

1954년 9월26일에 제작한 I Pagliacci에 Mafalda Micheluzzi(Nedda), Tito Gobbi(Tonio) 등과 Canio로 나온 코렐리의 연기는 정말 걸작중의 걸작이다. 즉 연예인으로서의 그의 진가를 보여준다.

1955년에9월 24일 밀라노에서 제작한 Tosca에 Renata Capnist(Tosca), Carlo Tagliabue(Scarpia), Antonio Sacchetti(Angelotti) 등과 함께 Mario Cavaradossi로 출연한 콜렐리의 연기는 가관이다. 특히 그의 '별은 빛나고'(E lucevan le stele)는 명창중의 명창이다.

1956년 6월 13일에 제작된 Carmen에서 Belen Amparán(Carmen), Anselmo Colzani(Escamilo), Elda Ribetti(Micaela) 등과 함께 돈호제로 등장한 코렐리의 열창과 열연은 모든 영화배우들을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 다. 역시 음악이 감정의 표출을 상승시킴 을 볼 수 있다. 실로 오페라의 진수를 보 여주는 장면장면들이다. 1958년 12월 23 일에 방영된 Turandot에 Lucille Udovich(주 제역), Renata Mattioli(Liu) 등과 함께 Calaf 로 분장한 콜렐리의 열창과 열연은 대단 히 특출하다. 특히 그의 아리아 '아무도 자 지못해'(Nessun dorma)는 대단히 인상적이 다. 특히 1973년에 제작된 Andrea Chenier 에 Colestina Casapietra (Maddalena), Renato Cappuccilli (Gerard)와 함께 주제역으로 나 온 코렐리의 비통한 열정의 발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인다운 기질을 부각시키 고 있다.

#### 항상 준비성이 대단해

그는 어느 출연을 위하여서도 부단한 노력 으로 늘 준비하고 고민한다. 그래서 그는 항상 준비를 오래 시키는 비스콘티(Luchi-



#### 독작적인 발성법을 개발

훗날 코렐리는 제롬 하인즈(Jerome Hines)에게 자기의 발성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멜로키는 이탈이아에 있어서는 제일가는 (발성법)기술자로 알려졌다. 나의 친구 Scaravelli가 그에게서 렛슨을 받고 와서 나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어서 나는 그의 발성법을 그대로 배웠다. 그리고 나 자신은 두번 멜로키의 렛슨을 받은 적이 있다. 그의 발성법은 한음정 한음정을 성대를 통하여 방사(放射)하는 형식인데 이는 대단히 간단한 방법으로 인두를 낮추어 인후를 최대한으로 넓히는 방법이었다.

그러던 하루 그는 친구를 따라 피렌제로 기가서 음악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였 이 지장이 생기는 것에 착안하여 인두를 다. 그때 판정관의 한 사람이 었던 작곡가 피체티(Pizzetti)가 성악공부할 것을 그에게 권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장 페사로음악 제르틸레(Aureliano Pertile) 및 질리의 음반

마 오페라좌에서 이탈리아 대통령과 고관 대작들이 참석한opening night에 유명한 ' 칼라스의 무단퇴장'으로 오페라가 첫막으로 끝난 운명의 밤에 가엽게 외톨이가된 폴리오네이기도 하였다. 사실 칼라스는 그 전부터 몸이 불편하여 대역을 부탁했었는데 주최측이 끝내 거절하였었다고 주장하였고, 후에 법정에서 승소하였다.

로마 오페라좌에 몸담고 있는 동안 코렐리는 국내외의 여러 오페라 하우스에 여러번출연하였다. 1954년 밀라노의 스칼라좌에서 스폰티니의 '베스탈레'(La Vestale)의 리치니오(Licinio)역을 칼라스(쥴리아역)를 상대로출연하였는데 크게 성공하였다. 훗날칼라스는 코렐리가 아주 친절하였다고 칭찬하고는 그가 너무 잘 생겨서 질투하였다고 고백하였다.

로레타 디레리아와 화촉

no Visconti)와 같은 훌륭한 무대감독을 존 경하였다. 같은 이유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폰 카라얀(Herbert von Karajan)을 매우 선 호하고 존경하였다. 프랑코는 오페라 하나 하나를 오래 예행연습할수록 명품이 나올 수 있다고 늘 강조하였다.

과연 코렐리는 그의 독특한 발성이 독자적 인 구절법(Phrasing)과 맞물려 그의 웅장한 남성적인 음성이 찬란히 요동하면서 고음 에 까지 여유있게 올라가는 묘기를 창출하 여 많은 팬들을 현혹시켜 왔다. 동시에 그 는 이 독창적 묘기가 언제 사라질까 매우 걱정하며 신경쓰기 시작하였다. 매일 아침 목소리가 아직 있는지부터 점검하곤 하였 다. 사실, 우리 동문으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일약 부상하여 미국은 물론 유럽까 지 누비고 다니는 이용훈 테너도 한때 목 소리를 잃은 후부터 이런 집념에 사로잡히 고 있다고 한다. 이용훈 동문의 발성법이 코렐리와 비슷하게 느껴지며, 그 역시 풍 부한 성량의 드라마틱 테너로 지금 현재 로 세계적인 정상에 올르고 있다고 필자 는 보고있다.

#### 1961년부터 '메트'에 등단

콜렐리의 뉴욕 메트로폴리탄좌의 데뷰는 1961년 1월에 베르디의 '트로바토레'의 만 리코(Manrico)로 같이 데뷰로 등장한 프라 이스(Leontyne Price)의 상대로 이루어 졌 다. 그해 뉴욕에서의 정기공연이 끝나고 보스톤에서의 첫 순회공연때 재미있는 일 화가 있다. 그가 푸치니의 Turandot의 칼라 프역으로 주제역 닐쓴(Birgit Nilsson)의 상 대로 출연했을때 닐쓴이 높임 C를 좀 길 게 뽑아 조금 빨리 끝낸 코렐리가 퍽 무안 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제3막에 가서 콜렐 리는 그녀의 뺨에 키스하는 척하고 그녀의 목을 깨물었다. 화가 난 닐쓴은 다음 공연 지인 클리브란드에 안가겠다고 루돌프 빙 (Rudolf Bing)에게 우겨댔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는데도 코렐리는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다. 사실 메트 지배인이었던 빙이 투덜거리던 코렐리를 무마하기 위하여 시 킨 자작극이었던 것이다.

또 한번은 나폴리에서 '트로바토레' 를 공 연할때 3층의 특실에서 관람하던 한 학생 이 그에게 야유하고 있었다. 콜렐리는 만 리코의 의상을 입은 채 무대뒤로 3층에 올 라가서 잠긴 문을 어깨로 밀어제치고 차 고간 칼로 그를 위협하였다. 이때 두 안내 원이 그를 저지하였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20분동안 목소리를 잃었다. 다 행이도 제시간에 무대로 돌아와서 복수를 부르짓는 "Di quella pira" (불타는 화형대를 보라)를 목청높이 불르면서 분푸리하였다.

그해말 그는 이탈리아독립 100주년을 기 념하기 위하여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베르 디의 La Battaglia di Legnao를 스텔라(Antonietta Stella)의 상대로 불러 크게 성공하 였다.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마스 카니의 '시골기사'(Cavalleria Rusticana)의 주제역을 투치(Gabriella Tucci), 지아요티 (Bonaldo Giaiotti)와 함께 연출하였다.

#### 심한 무대공포증에 시달려

코렐리는 성미도 급하고 날카롭지만 심한 무대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공 연전에 생마늘이 섞인 스테익을 먹는 습성 이 있고 어떤때는 상대역이 노래하는 동 안 무대옆에 살짝나와서 목을 추기곤 한 다. 그는 음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담배도 안피고 술도 안 마신다. 그래서 취미로 승 마, 정구, 수영 혹은 스키를 선호한다. 그 리고 카메라 사진기술에 조예가 깊다. 이 런 불안한 상태에서 그는 1973년 베르디의 Macbeth에 Sherrill Milnes 및 Grace Bumbry La Scala(1962)에서 Joan Sutherland상대로 Meyerbeer□ 'Huguenots', Salzburg Festival(1962)에서 카라얀(Herbert von Karajan) 의 지휘하에 Leontyne Price상대로 '트로바 토레'에 시미오나토(Giuletta Simionato) 및 바스티아니니(Ettore Bastianini)와 함께 출 연하였다. 그리고 1962년 필라델피아에 처 음 와서 Tosca의 Mario Cavaradossi로 출연 하는 것을 계기로 그후 10년 동안 매년 필 라델피아 Lyric Opera Company에 와서 여 러역에 출연하였다. 그리고 파리 오페라좌 (L'Opera)에서 칼라스를 상대로 'Tosca'에 출

#### 별명이 'Sputnik Tenor' 혹은 'Pecorelli'

코렐리의 인기가 우주시대의 개막에 걸맞 게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본 많은 가 수들이 그를 'Sputnik Tenor'라고 부르기 시 작하였고, 또 Pecorelli라고 그의 이름을 염 소(Pecora)에 비유하였다. 이는 그의 발성 법이 염소의 울음소리 같다고 비하하는 의

"코렐리는 항상 열정적으로 활기차게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초기엔 악보 불변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잦았다. 성숙해 가면서 악보를 이탈하는 경우가 점차로 적어지긴 하였지만, 1966년 The New Herald Tribune의 Alan Rich는 '코렐리는 오페라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오페라를 자유자재로 부리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평하였다."

를 상대로 출연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는 1974년까지 메트에서 Cavaradossi, Maurizio, Ernani, Rodolfo 및 Edgardo의 역 에 모두 출연하고 새로 프랑스말로 제작된 '로미오와 쥴리에트' 및 '베르테르'의 주제 역을 거쳐, Rudolf Bing 의 은퇴 후 다시 돌 아온 칼라스와 '토스카'에 출연한 후 1964 년 12월 비요너(Ingrid Bjoner)의 상대로 Turandot의 Calaf로 다시 출연하고 1975년 메트의 순회공연에 참가하여 미국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고 일본에 순회 공연하였다.

이처럼 Met에서 분주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그는 계속 유럽의 여러 극장에서 공 연하였다. 그는 Deutsche Oper Berlin(1961).

미도 된다. 같은 맥락에서 빨리 출세하였 다는 이유로 이용훈 테너의 경력을 오늘 날 '로케트 커리어'라고도 칭한다. 코렐리 가 20세기 후반의 오페라계를 빛낸 테너였 다면, 이용훈은 21세기 전반을 장식할 테 너로 부상하고 있다.

코렐리는 항상 열정적으로 활기차게 노래 를 부르는 가운데 초기엔 악보불변의 원칙 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잦았다. 성숙해 가 면서 악보를 이탈하는 경우가 점차로 적 어지긴 하였지만... 1966년 The New Herald Tribune의 Alan Rich는 "코렐리는 오페라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오페라를 자유자재로 부리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평하였다. 또

한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서트른 프랑스어 투와 어감을 좋게 평가하지 않았다. 한편, The New York Times Harold C. Schonberg 같은 비평가는 코렐리의 독창적인 연기를 극구 감싸주었다. 숀버그는 1965년 메트 에서 제작한 '토스카'에서 칼라스를 상대한 Cavaradossi의 열연을 평하면서 "테너의 음 성이 장려하게 장내를 울려 퍼지고 있었 다. 그가 표현의 자율권을 행사했다면 그 의 연출이 자체의 논리를 보여준 것이겠 지...' 과연 글룩크의 오페라혁신이전에 성 행하던 가수들의 과시와 횡포와 남용이 오 페라계를 얼룩지게 만들었던 시대로 복귀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 다. 그러나 그의 인기는 계속 상승하고 그 의 음반의 수요가 그가 타계한 지금도 계 속 늘고 있다.

1976년 그는 푸치니의 고향 'Tore del Lago' 에서 그의 오페라 출연을 마감하였다. 그 때 그는 55세였다. 그의 목소리가 쇠약해 지기 시작하였다. 그렇수록 그는 더 신경 을 곤두 세우곤 하였다. 그의 성미로 보아 충분히 이해가는 일이다. 그는 이때 은퇴 성명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나의 목소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혼탁해져 서 예전의 찬란하던 서정적인 부드러움이 가시고 있다. 오랜 성악가로서의 생활이 ( 성대에) 큰 부담을 주었다. 나는 늘 태산같 이 걱정하였고 또 여러사람에게 화를 많 이 내었다. 나는 신경 덩어리였고 침식을 잃고 있었다."

은퇴후 그는 밀라노와 뉴욕에서 발성법을 젊은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1995년 그는 뉴욕에서 마스터 클라스를 열고 제자 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마지 막으로 그를 본 때였다. 그때 그는 조금 야 위어 보였지만 눈초리는 여전히 반짝이었 다. 그후 몇년동안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하 였다. 2003년 10월 그는 심장마비로 밀라 노의 한 병원에서 숨지었다. 그때 그는 겨 우 82세였다. 그는 실로 20세기의 최후의 역강한 테너(tenore di forza)로서 힘차면서 찬란히 울리는 고음과 벨벹같은 서정적인 부드러움을 겸비한 유일한 테너였다.

콜렐리는 타계하기 얼마전에 "미래의 오 페라 가수는 한국에서 다 수 나올 것"이라 고 한인 젊은 가수들을 두둔하였다. 그동 안 소프라노 뿐 아니라 테너, 바리톤, 바스, 메조에 이르기까지 한인가수들이 세계 무 대에 속속 진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필자 는 늘 흐뭇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루 하루를 오페라를 들으면서 오페라 인생을 즐기고 있다.

한미 간(肝)협회장

##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141-1-1 -101-			. 기대부 /기대 60 200		. IIII II ÷ (OLEII CE)
전회장단 이월금	신응남 (농대 70) 1,200	L Q 2,000	김명철 (공대 60) 200	<u>샌디에고</u>	배성호 (의대 65) 100
	심완섭 (의대 67) 1,800	뉴욕 3,000	김재경 (농대 58) 200	717111 (1151) - 6	서경희 ( ) 100
47,347.11	• • • • • • • • • •	북텍사스 550	박두선 (공대 68) 100	김군빈 (법대 56) 75	서중민 (공대 64) 150
(11/29) 6,511.97	<u>나눔</u>	알라스카 200	박상원 (문리 54) 40	박우선 (공대 57) 200	손재옥 (가정 77) 500
		워싱턴주 600	배명애 (간호 47) 225	• • • • • • • • • •	송영두 (의대 56) 500
총동창회 보조금	황선희 (공대 74) 100	캐롤라이나 200	배정희 (사대 54) 200	<u>시카고</u>	신성식 (공대 56) 200
	• • • • • • • • • • •	테네시 200	신응남 (농대 70) 2,000		제갈은 (문리 59) 150
3,000	<u>모교발전기금</u>	÷0.5	양거명 (약대 49) 25	김연화 (음대 68) 150	조정현 (수의 58) 300
		후원금	이경림 (상대 64) 185	이용락 (공대 48) 500	조화연 (음대 64) 150
총동창회 오찬 협찬	권기현 (사대 53) 1,000		이운순 (의대 52) 200	조형원 (약대 50) 500	• • • • • • • • • • •
	윤우용 (공대 63) 500	<u>남가주</u>	이전구 (농대 60) 1,100	최희수 (문리 67) 75	<u>플로리다</u>
3,000	오인환 (문리 63) 200		이준행 (공대 48) 2,000	• • • • • • • • • • •	
• • • • • • • • • • •	임종식 (의대 51) 1,000	김영순 (음대 59) 400	정인식 (상대 58) 200	<u> 아리조나</u>	전영자 (미대 58) 50
<u>업소록 광고비</u>	• • • • • • • • • •	김원탁 (공대 65) 200	정창동 (간호 45) 75	TI DI DI . I DI II	
71 ± 11 (11 = 11 = 11	<u>브레인 네트웍 후원금</u>	김인종 (농대 74) 25	조정현 (수의 58) 100	진명규 (공대 70) 100	<u>커네티컷</u>
강호석 (상대 81) 240	HE OLUMBIA	김일영 (의대 65) 200	최한용 (농대 58) 500	• • • • • • • • • •	71717 (HEIL
김원탁 (공대 65) 240	서동영 (사대 60) 200	김종표 (법대 58) 500	허유선 (가정 83) 100	<u>오레곤</u>	김기훈 (상대 52) 200
남욱현 (경영 84) 480	오인환 (문리 63) 200	김창신 (사회 75) 100	• • • • • • • • • •	71114 1150	유시영 (문리 68) 500
서동영 (사대 60) 240	윤상래 (수의 62) 1,000	민수봉 (상대 55) 25	<u>뉴잉글랜드</u>	김상순 (상대 67) 200	• • • • • • • • • • •
신동국 (수의 76) 240	이병준 (상대 55) 1,000	박인창 (농대 65) 100		송재용 (의대 69) 200	<u>케롤라이나</u>
엄달용 (공대 69) 240	정창동 (간호 45) 100	박종수 (수의 58) 1,100	고일석 (보건 69) 1,000		#171 A (OLEN TEX
이경림 (상대 64) 480	한재은 (의대 59) 500	백옥자 (음대 71) 400	김문소 (수의 61) 80	<u>워싱턴 DC</u>	한광수 (의대 57) 400
이병준 (상대 55) 480	• • • • • • • • • •	위종민 (공대 64) 200	김병국 (공대 71) 65	71.71.7 .O.E	• • • • • • • • • • •
이종묘 (간호 69) 240	수재민 돕기 후원금	이명선 (상대 58) 500	김선혁 (약대 59) 100	강길종 (약대 69) 200	<u>하와이</u>
이준영 (치대 74) 240	O 11711 (117)	이범모 (치대 74) 200	김은한 (의대 60) 850	권철수 (의대 68) 200	71.11511 (01511 57) 400
정정우 (수의 74) 240	윤상래 (NE) 300	이범식 (공대 61) 200	김제호 (공대 56) 100	박평일 (농대 69) 300	김상태 (의대 57) 400
정재훈 (공대 64) 240	정정욱 (NE) 200	이병준 (상대 55) 11,000	송미자 (농대 62) 65	서윤석 (의대 62) 200	
주기목 (수의 68) 240	고일석 (NE) 200	이영송 (치대 63) 400	윤상래 (수의 60) 40,100	오인환 (문리 63) 200	<u>하트랜드</u>
지흥민 (수의 61) 240	김문소 (NE) 100	이영일 (문리 53) 200	윤영자 (미대 60) 100	이문항 (공대 46) 100	
김일영 (의대 65) 240	김연화 (음대 68) 200	임창회 (공대 73) 100	이의인 (공대 68) 1,100	이인옥 (68) 25	오명순 (가정 69) 500
71 7 11	신응남 (NY) 200	전경철 (공대 55) 400	이재신 (공대 57) 2,000	장효열 ( ) 100 한의생 (수의 60) 200	이상강 (의대 70) 10,000
<u>광고비</u>	손재옥 (PA) 1,000	정동구 (공대 57) 500	이희규 (공대 69) 200 정선주 (박영철) 3,000	,	최은관 (상대 64) 300
DUO Info 1 200	황선희 (PA) 200 합계: 2,400	정재훈 (공대 64) 110 최은관 (상대 64) 300			* * El
DUO Info. 1,200 DUO Info. 400		최은관 (상대 64) 300 하기환 (공대 66) 200	정정욱 (의대 60) 1,100 정태영 (문리 71) 100	워싱턴 주	<u>휴스턴</u>
DUO Info. 400  DUO Info. (10) 400	자하그	하선호 (치대 81) 200 - 하선호 (치대 81) 200		하주홍 (경영 77) 25	진기주 (상대 60) 500
	<u>장학금</u>				진기주 (상대 60) 500
DUO Info. (11/6) 400 DUO Info. (12/8) 400	김동훈 (법대 56) 100	ᆸᇧᄌ	최선희 (문리 69) 200 최홍균 (공대 69) 1,000	TIOL	(강영빈 동문 후원금 \$2,000 은 모
DUO Info. (1/9) 400	김은섭 (의대 53) 100	<u>북가주</u>		<u>조지아</u>	교 동물학과, 생물학과 58 학번 동
DUO Info. (2/8) 400	윤상래 (수의 60) 2,100	강정수 (문리 62) 125		주중광 (약대 60) 2,000	문이 요청하면 동창회비를 대납해
JayoneFood (1/22) 1,800	이건일 (의대 62) 125	이성형 (공대 57) 150	<u>루이지애나</u>	허지영 (문리 66) 2,000	드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KISS (1/17) 3,000	이원섭 (농대 77) 100	김윤범 (의대 54) 200	강영빈 (문리 58) 2,000	이사(8 (교리 00) 2,000	
SeAh 이병준 1,500	임필순 (의대 54) 100	한상봉 (수의 67) 240	8 8 년 (본부 30) 2,000	필라델피아	
SNUAA, Inc (남가주) 500	전방남 (상대 73) 200		_북텍사스	<u> </u>	
노명호 (공대 61) 1,000	전상옥 (사대 52) 500	_뉴욕	<u> </u>	김영남 (의대 61) 200	
발전기금 (12/6) 700			최종권 (문리 59) 200	김태환 (법대 48) 200	
서울대병원 강남 (12/29) 1,500	지부 분담금	강에드 (사대 60) 200		김현영 (수의 58) 100	
12 110 2 0 11 (12/23) 1/300	·11 E 0 0	J II— ( 1 II 00) 200		3 2 3 (1 -1 30)	

##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65명		
<b>남가주</b> 김재영 (농대 62)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b>뉴잉글랜드</b> 고일석 (보건 69)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허지영 (문리 66) <b>필라델피아</b>	조시호 (문리 59)
김정희 (음대 56)	임용오 (의대 57)	김문소 (수의 61)	한재은 (의대 59)	서중민 (공대 64)	- 종신이사 (고인)
노명호 (공대 61) 박명근 (상대 63)	전희택 (의대 60) 제영혜 (가정 7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하이오	손재옥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 * 표: 한번이상 내신 분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조용원 (문리 66) 한귀희 (미대 68)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김용헌 (경원 66)	지흥민 (수의 61)	김중권 (?)
방명진 (공대 73)	한홍택 (공대 60)	윤선홍 (치대 64)	워싱턴 DC	플로리다	ㅁ 6 년 (:)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뉴욕	정선주 (간호 68)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김중원 (의대 63)	
서치원 (공대 69)	김광호 (문리 62)	루이지애나	방은호 (약대 43)	하트랜드	
심상은 (상대 54) 오재인 (치대 33)	오인석 (법대 58)* 윤정옥 (약대 50)	강영빈 (문리 58)*	오인환 (문리 63)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오흥조 (치대 56)	이기영 (농대 70)	<b>미네소타</b>	조립테니스	이교락 (의대 53)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b>중부텍사스</b> 이광연 (공대 60)	이상강 (의대 70)	
이종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이준행 (공대 48)	<b>시카고</b> 남상용 (공대 52)	<b>조지아</b> 주중광 (약대 60)	<b>휴스턴</b> 박태우 (공대 64)	

26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286호 | **2018**년 **2**월 호

#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남가주	박민정 (음대 80)	이영송 (치대 63)	한종철 (치대 62)	곽선섭 (공대 61)*	손경택 (농대 57)	뉴잉글랜드	송창원 (문리 53)	이동균 (공대 75)
S.CA/NV	박범순 (가정 70)	이영일 (문리 53)*	한홍택 (공대 60)	권문웅 (미대 61)	송영순 (사대 60)	MA/RI/NH/ME/VT	왕규현 (의대 58)	이상일 (의대 54)
	박병원 (의대 49)	이원익 (문리 73)	한효동 (공대 58)	권영국 (상대 60)	송웅길 (대원 69)*		주한수 (수의 62)	이성길 (의대 65)
강경수 (법대 58)	박부강 (사대 64)	이원택 (의대 65)	허영진 (문리 61)	김광현 (미대 57)	신달수 (공대 59)	고일석 (보건 69)	황효숙 (사대 65)	이승자 (사대 60)
강동순 (법대 59)	박성욱 (상대 58)	이은경 (간호 80)*	현기웅 (문리 64)	김동진 (약대 56)	신두식 (의대 58)	곽세흥 (공대 75)	• • • • • •	이승훈 (공대 66)
강영호 (의대 57)	박순자 (간호 60)	이장길 (치대 63)	홍동식 (법대 64)	김동환 (약대 56)	신응남 (농대 70)	김광수 (자연 73)	샌디에고	이시영 (상대 46)
강정훈 (미대 56)*	박원준 (공대 53)	이정근 (사대 60)	홍석관 (사대 47)	김명승 (상대 65)*	양거명 (약대 49)	김만옥 (약대 56)	SAN DIEGO	이영철 (공대 60)
강중경 (공대 48)	박우성 (사회 77)*	이정리 (사대 60)	홍성선 (약대 73)	김명철 (공대 60)	양명자 (사대 63)	김문소 (수의 61)*	SAN DILGO	이용락 (공대 48)
, , , , , , , , , , , , , , , , , , , ,		이정화 (공대 52)					가연숙 (이네 57)	
강호석 (상대 81)	박윤수 (문리 48)		홍수웅 (의대 59)*	김문경 (약대 61)	오민근 (약대 52)*	김선혁 (약대 59)	강영호 (의대 57)	이용수 (약대 51)
강홍채 ( )	박인수 (농대 64)	이정희 (음대 55)	황선주 (간호 69)*	김병권 (문리 63)	우대식 (문리 57)	김 영( )*	김군빈 (법대 56)	이윤모 (농대 57)
강희창 (공대 57)	박일우 (의대 70)	이재권 (법대 56)	• • • • • •	김병술 (약대 52)*	우상영 (상대 55)	김정환 (공대 52)	남장우 (사대 56)*	이정일 (농대 57)
고석규 (치대 65)	박임하 (치대 56)	이재선 (농대 58)	북가주	김봉련 (사대 54)	유영호 (의대 52)	김제성 (공대 87)	민영기 (치대 61)	이정화 (음대 56)
고석원 (문리 50)	박은주 (간호 70)	이재룡 (공대 71)	SAN FRANCISCO	김상만 (법대 52)	유재섭 (공대 65)	김제호 (상대 56)	박경호 (사대 53)*	이종일 (의대 65)*
곽웅길 (문리 59)	박종수 (수의 58)	이종묘 (간호 69)		김석식 (의대 58)	유택상 (문리 58)	김재관 (의대 62)	박우선 (공대 57)*	임병훈 (의대 54)
권기상 (상대 72)	박찬호 (농대 63)	이준호 (상대 65)	강명식 (의대 61)	김석자 (음대 61)	육순재 (의대 63)	김 현 (농대 62)	윤진수 (의대 57)	임이섭 (미대 54)
권시한 (문리 52)	박취서 (약대 60)	이중희 (공대 53)	강정수 (문리 62)	김성현 (약대 56)	윤봉균 (사대 54)	박종건 (의대 56)	이문상 (공대 62)	임현재 (의대 59)
권영달 (문리 50)	박태호 (치대 66)	이채진 (문리 55)	강재호 (상대 57)	김성호 (공대 71)	윤신원 (의대 50)	배지선 (수의 94)*	이영신 (간호 77)	장시경 (약대 58)
권처균 (공대 51)	박혜란 (미대 70)	이해영 (공대 56)	권오형 (사대 61)	김세중 (공대 50)	윤영섭 (의대 57)	송미자 (농대 62)	임춘수 (의대 57)	장영희 (의대 57)
김건진 (문리 62)*	방정자 (간호 61)	이호진 (간호 74)	김명환 (문리 67)	김수산 (의대 52)	윤인숙 (간호 63)	윤상래 (수의 62)	전원일 (의대 77)*	장윤일 (공대 60)
김경옥 (미대 61)	배동완 (공대 65)	이홍표 (의대 58)	김병덕 (법대 58)	김수일 (약대 62)	윤 철 (문리 54)	윤영자 (미대 60)	정경화 (의대 70)*	장홍문 (문리 61)
김광은 (음대 56)	배병옥 (음대 58)	이휘영 (법대 59)	김병호 (상대 57)	김영무 (공대 75)*	윤희정 (문리 59)	윤용훈 (공대 67)	조두연 (수의 62)	정승규 (공대 60)*
김구자 (미대 61)	배성진 (대원 79)	이희충 (공대 68)	김영석 (상대 62)*	김영애 (사대 56)	이경림 (상대 64)*	윤은상 (상대 66)	진성호 (공대 64)*	조대현 (공대 57)
김규현 (법대 53)	배옥례 (간호 55)	임동규 (미대 57)	김윤범 (의대 54)	김영일 (약대 58)	이경태 (공대 63)*	이강원 (공대 66)		조문희 (공대 56)
김난영 (공대 53)	배효식 ( )	임동호 (약대 55)	김옥경 (음대 69)	김영철 (의대 55)	이국진 (사대 51)	이영인 (사대 74)	시카고	조병권 (공대 64)
김동산 (법대 59)*	백만일 (공대 64)	임문빈 (상대 58)	김완기 (사대 50)	김영희 (간호 53)	이대영 (문리 64)	이의인 (공대 68)	IL/IN/WI/MI	조의열 (의대 60)*
김동훈 (법대 56)*	백성식 (약대 58)	임진환 (치대 68)	김정복 (사대 55)	김예흠 (의대 55)	이성근 (의대 60)	이정수 (공대 71)	,,,	조형원 (약대 50)
김병연 (공대 68)	백소진 (문리 55)	임창회 (공대 73)	김정희 (음대 56)	김완주 (의대 54)	이승일 (경영 66)	이재신 (공대 57)*	강영국 (수의 67)	천양곡 (의대 63)*
김병완 (공대 58)	백옥자 (음대 71)	임화식 (치대 59)	김현왕 (공대 64)	김용술 (상대 56)	이영숙 (간호 56)	이희규 (공대 69)	강창만 (의대 58)	채무원 (의대 59)
	, , ,			, , ,	, , , , ,			1
김상온 (약대 59)	변영근 (약대 52)*	장소현 (미대 65)	김형동 (법대 67)	김용연 (문리 63)	이영희 (미대 68)	장수인 (음대 76)	고병철 (법대 55)	최대한 (의대 53)
김석홍 (법대 59)	서동영 (사대 60)	장인숙 (간호 70)	김희봉 (공대 68)	김욱현 (의대 59)	이운순 (의대 52)	장용복 (공대 58)*	구경회 (의대 59)*	최혜숙 (의대 53)
김선기 (법대 59)	서명석 (문리 61)	장칠봉 (수의 65)	남광순 (음대 64)	김유순 (간호 64)	이전구 (농대 60)	정정욱 (의대 60)	김규호 (의대 58)	최희수 (문리 67)
김성복 (공대 50)	손기용 (의대 55)	전경철 (공대 55)*	박경룡 (약대 63)	김윤수 (상대 50)	이정은 (의대 58)	정태영 (문리 71)	김갑준 (의대 57)	한의열 (공대 62)
김성환 (의대 65)	손선행 (간호 69)	전낙관 (사대 60)	박서규 (법대 56)*	김은섭 (의대 53)	이종석 (상대 57)*	주창준 (의대 50)	김갑조 (간호 51)	한재은 (의대 59)
김수영 (사대 57)	손학식 (공대 61)	전상옥 (사대 52)*	박성수 (공대 59)*	김인형 (미대 59)	이준행 (공대 48)*	조성호 (공대 85)	김사직 (상대 59)	함성택 (문리 55)
김순길 (법대 54)	신동국 (수의 76)	전성대 (사대 60)	박종성 (법대 53)*	김정빈 (약대 54)	이중춘 (공대 56)	최선희 (물리 69)	김성범 (상대 50)*	황치룡 (문리 65)
김순길 (문리 61)	신규식 (농대 61)	전연근 (수의 52)	박종영 (상대 52)*	김재경 (농대 58)	이종환 (법대 51)	최홍균 (공대 69)	김성일 (공대 68)	하계현 (공대 64)
김순자 (치대 57)*	신상화 (공대 58)*	정길택 (수의 54)	부영무 (치대 72)*	김종률 (사대 51)	이태상 (문리 55)	한승원 (미대 60)	김승주 (간호 69)	1 112 (3 11 5 1)
김영덕 (법대 58)	심상은 (상대 54)	정동구 (공대 57)*	손창순 (공대 69)	김종현 (법대 57)	이태앙 (의대 61)	홍지복 (간호 70)	김연화 (음대 68)*	아리조나
김영순 (음대 59)	안병일 (의대 63)	정상진 (상대 59)	송영훈 (상대 57)	김진자 (간호 60)	임공세 (의대 61)		1	
	1				1	황보민영 (공대 03)	김용주 (공대 69)*	ARIZONA
김영춘 (수의 64)	양광주 (문리 58)	정연웅 (상대 63)	안병협 (공대 58)	김창화 (미대 65)	장화자 (간호 60)	• • • • • •	김일훈 (의대 51)	
김옥경 (가정 60)*	양수진 (간호 80)	정예진 (상대 63)	안호삼 (문리 58)	김태일 (공대 68)*	전성진 (사대 54)	북텍사스	김정수 (문리 69)	김영중 (치대 66)*
김원경 (약대 59)	양승문 (공대 65)	정예현 (상대 63)	온기철 (의대 65)*	김한종 (의대 56)*	전재우 (공대 61)	LA/DALLAS	김정일 (의대 57)	지영환 (의대 59)
김원호 (약대 63)	양운택 (의대 58)	정정우 (수의 74)	유두영 (공대 55)	김해암 (의대 52)	정동성 (상대 58)*		김재관 (의대 62)	진명규 (공대 70)
김용재 (의대 60)	양은혁 (상대 56)	정재훈 (공대 64)*	유승일 (의대 59)	김현중 (공대 63)*	정인식 (상대 58)*	김옥균 (공대 54)	김재석 (의대 61)	
김원탁 (공대 65)	양창효 (상대 54)	정태무 (사대 44)	이강우 (문리 59)*	김훈일 (공대 60)	정창동 (간호 45)*	김종원 (의대 60)	김주호 (의대 58)	오하이오
김인종 (농대 74)	오선웅 (의대 63)	정현진 (간호 68)	이관모 (공대 55)	김희국 (약대 54)	정해민 (법대 55)	박영규 (사대 66)	김현배 (의대 66)	OHIO
김일영 (의대 65)	오양숙 (간호 60)*	정형민 (문리 71)	이성형 (공대 57)*	김희자 (미대 66)*	주공로 (공대 68)	박준섭 (약대 63)	김현주 (문리 61)	00
김정애 (간호 69)	위종민 (공대 64)	정 황 (공대 64)*	이홍기 (공대 62)	라준국 (공대 48)	조경숙 (가정 71)*	유 황(농대 56)	노영일 (의대 62)*	김동광 (공대 62)
김정희 (음대 56)	유덕훈 (상대 48)	제영혜 (가정 71)	임정란 (음대 76)	맹광호 (문리 71)	조대영 (공대 61)	조진태 (문리 57)	민영기 (공대 65)	김용헌 (경원 66)
김재영 (농대 62)	유석홍 (상대 61)*	조 경 (	전광신 (사대 64)	문석면 (의대 52)*	조명애 (간호 47)*	최종권 (문리 59)	박영준 (문리 67)	김태웅 (의대 61)
김종표 (법대 58)	유석홍 (음대 66)	조동준 (의대 59)	정규남 (상태 52)	민발식 (의대 60)*	조종수 (공대 64)	탁혜숙 (음대 67)	박용순 (의대 57)	명인재 (자연 75)
김준일 (공대 62)	유재환 (상대 67)	조만연 (상대 58)	정지선 (상대 58)	민병갑 (문리 63)	진봉일 (공대 50)	황명규 (공대 61)*	박정일 (의대 61)*	송재용 (의대 69)
김창무 (음대 53)	유진형 (상대 47)	조상하 (치대 64)	정진수 (공대 56)	박두선 (공대 68)	차국만 (상대 56)	• • • • • •	박준환 (의대 55)	여준구 (의대 64)
김창신 (사회 75)	유희자 (음대 68)	조순자 (치대 57)*	정유석 (의대 58)	박수안 (의대 59)	차수만 (약대 71)	라스베가스	박창욱 (공대 56)	이명진 (공대 61)
김태윤 (법대 53)	윤경민 (법대 55)	조정시 (공대 60)	조태묵 (사대 60)	박순영 (법대 56)	최구진 (약대 54)*	LV/NV	배영섭 (의대 54)	이수자 (공대 62)
김택수 (의대 57)	윤용길 (공대 55)	조태준 (문리 59)	최경선 (농대 65)	박승화 (간호 69)	최수강 (의대 71)		백운기 (문리 56)	장극기 (의대 64)
김현황 (공대 64)	윤희성 (치대 65)	조임현 (간호 72)	한상봉 (수의 67)	박영태 (상대 63)	최영태 (문리 67)	김영중 (치대 66)*	서상헌 (의대 65)	최영순 (간호 69)
김홍묵 (문리 60)	이건일 (의대 62)	조재길 (사대 61)*	홍겸삼 (문리 61)	박진우 (상대 77)	최진영 (문리 55)	윤우용 (공대 63)	소진문 (치대 58)	최인갑 (공대 57)
김희재 (사대 66)	이경수 (수의 73)	주정래 (상대 65)	홍병익 (공대 68)	반영철 (약대 54)	최한용 (농대 58)		손인섭 (상대 68)	
김희창 (공대 64)*	이기재 (사대 52)	지인수 (상대 69)*	황동화 (의대 65)	방준재 (의대 63)	최형무 (법대 69)	록키마운틴	송재현 (의대 46)	앨라스카
나두섭 (의대 66)	이기준 (법대 54)	차민영 (의대 76)*		배명애 (간호 47)*	한병용 (문리 71)*		신동화 (문리 55)	
						MT/CO/WY/NM		ALASKA
나승욱 (문리 59)	이명선 (상대 58)	최경홍 (공대 60)	뉴욕	배상규 (약대 61)	한영수 (의대 61)	소이즈 (OLEIL CA)	신석균 (문리 54)*	이제조 /노테 = 0.1
노명호 (공대 61)	이문상 (공대 62)	최동욱 (의대 59)	NJ/NY	배정희 (사대 54)	한종룡 (공대 54)	송요준 (의대 64)	심상구 (상대 63)	윤제중 (농대 54)*
문동수 (공대 73)	이방기 (농대 59)	최 영( )		변건웅 (공대 65)	한태진 (의대 58)	이경화 (공대 56)	안신훈 (공대 61)	하인환 (공대 56)
문병길 (문리 61)	이범모 (치대 74)	최영근 (사대 61)	강교숙 (간호 73)	변해순 (간호 68)	함종금 (간호 66)	• • • • • •	안은식 (문리 55)	• • • • • •
문인일 (공대 51)	이범석 (의대 58)	최은관 (상대 64)	강영선 (공대 50)	변호련 (간호 63)	허경열 (의대 73)	미네소타	오동환 (의대 65)	오레곤
민병곤 (공대 65)	이범식 (공대 61)	최재윤 (인문 54)	강에드 (사대 60)	서병선 (음대 65)	허병렬 (사대 42)	MINNESOTA	오봉완 (법대 52)*	OR/ID
민병돈 (문리 58)	이서희 (법대 70)	하기환 (공대 66)*	계동휘 (치대 67)	서정웅 (약대 63)	허선행 (의대 58)		유동환 (수의 68)	
민수봉 (상대 55)	이성숙 (공대 56)	하선호 (치대 81)	고광호 (약대 56)*	석진경 (약대 96)	허유선 (가정 83)*	김권식 (공대 61)*	유태종 (공대 50)	김상만 (음대 46)
민일기 (약대 69)	이성자 (간호 76)	한동수 (의대 60)*	고순정 (간호 69)	선종칠 (의대 57)	홍선경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이갑조 (간호 51)	김상순 (상대 67)
박대균 (수의 57)	이소희 (의대 61)*	한병용 (문리 71)*	곽노섭 (문리 49)	성기로 (약대 57)	홍정표 (음대 67)	변우진 (인문 81)	이민우 (의대 61)	성성모 (사대 67)
박명근 (상대 63)*	이송희 (간호 47)	한은실 (음대 61)	곽 상준 (약대 55)	손갑수 (약대 59)		성욱진 (치대 87)	이덕수 (문리 58)	
ㄱ 8ㄴ (8대 83)*	에이의 (신오 4/)	교교 (금네이)	ㅋㅇ판 (ㅋ네 55)	(크네 ɔɜ)	• • • • • •	8독일 (시대 8/)	이 국구 (군디 58)	송재용 (의대 69)

286호 | **2018년 2월 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 동창회비 (1차 회기: 2017. 7. 1 ~ 2018. 6. 30)

####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2차 회기까지 모두 내신 분

27

Shin,JD (인문 58)	박홍후 (인문 61)	이재승 (의대 55)	양용관 (수의 62)	허지영 (문리 66)	서중민 (공대 64)		이석형 (사대 56)	백산옥 (문리 51)
박희진 (농대 78)	방정화 (의대 61)	이준영 (치대 74)*	이순모 (공대 56)*	• • • • • •	성정호 (약대 59)	• • • • • •	이항열 (법대 57)	성낙준 (사대 68)*
전병택 (상대 65)	백 순(법대 58)	이종두 (의대 57)	이원섭 (농대 77)*	중부텍사스	신쌍재 (수의 59)	플로리다	한광수 (의대 57)*	오명순 (가정 69)
정성국 (인문 73)	서기병 (상대 55)	이진호 (공대 46)*	이회백 (의대 55)	MID-TEXAS	신선자 (사대 60)	FLORIDA	홍 훈(문리 75)	이상강 (의대 70)*
한국남 (공대 57)	서윤석 (의대 62)	임종식 (의대 51)	최준한 (농대 58)		신성식 (공대 56)*		• • • • • •	임영신 (의대 54)
한영준 (사대 60)*	서휘열 (의대 55)	임창주 (공대 55)	하주홍 (경영 77)	김장환 (공대 81)	심영석 (공대 76)	김동한 (문리 53)	테네시	최은관 (상대 64)
	석균범 (문리 61)	임필순 (의대 54)	홍영옥 (음대 54)	박태우 (공대 64)	심완섭 (의대 67)	김재석 (의대 66)	TENNESSEE	차봉회 (의대 51)
워싱턴 DC	송병준 (약대 68)	장윤희 (사대 54)	• • • • • •	이영재 (상대 58)	안세현 (의대 62)	김중원 (의대 63)		• • • • • •
DC/MD/VA/WV	송윤정 (인문 89)	전희순 (간호 76)	유타	진기주 (상대 60)	윤정나 (음대 57)	박창익 (농대 64)	김경덕 (공대 75)	휴스턴
	신영철 (의대 53)	정계훈 (문리 55)	UTAH/NV	최용천 (의대 53)	이규호 (공대 56)	송용덕 (의대 57)	김용진 (공대 50)	HOUSTON
강길종 (약대 69)	신용계 (의대 62)	정원자 (농대 62)		• • • • • •	이수경 (자연 81)	안창현 (의대 55)	박재헌 (자연 81)	
강연식 (사대 58)	심준보 (상대 55)	정평희 (공대 71)	김인기 (문리 58)	필라델피아	이숭공 (의대 63)	이재덕 (법대 60)	서갑식 (공대 70)	김기준 (공대 61)*
계화자 (문리 61)	안선미 (농대 65)	정희연 (의대 66)*	김용재 (의대 60)	PA/DE/S.N <sup>J</sup>	전무식 (수의 61)	임필순 (의대 54)	우양구 (법대 70)	김태훈 (공대 57)
고무환 (법대 57)	안세현 (의대 62)	조화유 (문리 61)	이 관 (공대 55)*		전방남 (상대 73)*	전영자 (미대 58)	• • • • • •	김한섭 (의대 53)
공순옥 (간호 66)*	안승건 (문리 55)	차임경 (가정 77)	• • • • • •	강영배 (수의 59)	전희근 (의대 54)	조동건 (공대 69)	하와이	박석규 (간호 59)
곽명수 (문리 65)	양광수 (공대 73)*	최경수 (문리 54)	조지아	강준철 (사대 59)	정덕준 (상대 63)	최준희 (의대 58)	HAWAII	박유미 (약대 62)
권오근 (상대 58)	우제형 (상대 54)	최규식 (상대 64)*	GA/AL/MS	고영자 (치대 63)	정용남 (문리 60)	한기빈 (공대 52)		박태우 (공대 64)
권철수 (의대 68)	유덕영 (공대 57)	최길찬 (사대 88)		김경희 (가정 71)	정정수 (의대 56)	홍순호 (수의 74)*	구해근 (문리 60)	유한창 (공대 69)
김내도 (공대 62)	유영준 (의대 58)*	최재규 (미대 63)	강창석 (의대 73)*	김규화 (상대 63)	정태광 (공대 74)	황현상 (의대 55)*	김달옥 (사대 55)	이규진 (약대 60)
김동훈 (법대 56)*	유정식 (수의 60)	한의생 (수의 60)	김순옥 (의대 54)	김순주 (치대 95)	정홍택 (상대 61)	• • • • • •	김상태 (의대 57)*	이길영 (문리 59)
김명자 (법대 52)	류재풍 (법대 60)*	한인섭 (문리 55)	김영서 (상대 54)	김영남 (의대 61)	제갈은 (문리 59)*	커네티컷	손민옥 (문리 52)	이찬주 (문리 63)
김병호 (의대 63)	유홍열 (자연 74)	한정민 (농대 87)	김용건 (문리 48)	김영우 (공대 55)	조영호 (음대 56)	CT	손호민 (문리 52)	이학호 (수의 59)
김복순 (사대 55)	윤경의 (공대 57)	함은선 (음대 77)	김종수 (수의 73)*	김정현 (공대 68)	조정현 (수의 58)		유재호 (문리 57)	탁순덕 (사대 57)
김안정 (문리 59)	원종민 (약대 57)	홍영석 (공대 58)	김태형 (의대 57)	김재술 (약대 58)	주기목 (수의 68)	김기훈 (상대 52)	장광수 (사대 50)	진기주 (상대 60)
김용덕 (의대 53)	오광동 (공대 52)	• • • • • •	김학래 (공대 60)*	김철우 (공대 79)	조화연 (음대 64)	라찬국 (의대 75)	차응만 (의대 58)*	최관일 (공대 54)
김진수 (의대 60)	오인환 (문리 63)	워싱턴주	손종수 (의대 50)*	김한중 (공대 56)	지재원 (사대 68)	유시영 (문리 68)	최경윤 (사대 51)	최성호 (문리 58)
김진은 (사대 55)	이건형 (수의 54)	WASHINGTON	오경호 (수의 60)	김현영 (수의 58)*	지흥민 (수의 61)	한일송 (의대 60)	• • • • • •	최용천 (의대 53)
김 철 (의대 62)	이경애 (문리 )		유성무 (상대 66)	김희국 (약대 54)	진병학 (의대 57)*	홍성휘 (공대 56)	하트랜드	• • • • • •
남욱현 (경영 84)*	이규양 (문리 62)*	김석희 (의대 52)	유의영 (의대 61)*	노은숙 (약대 53)*	차호순 (문리 60)	• • • • • •	IA/MO/KS/NE/	(* 2017~2019)
남춘일 (사대 69)	이길송 (57)	김재훈 (공대 72)*	윤민자 (음대 65)	문대옥 (의대 67)	최종무 (상대 63)	캐롤라이나	AR/OK	
도상철 (의대 63)	이내원 (사대 58)	김주응 (의대 56)	윤영돈 (법대 59)	박영한 (약대 68)	최종문 (공대 61)	SC/NC/KY		김현주 (문리 61)*
박 엽 (사회 80)	이문항 (공대 46)*	박진수 (의대 56)	이종석 (의대 54)	박흥영 (공대 65)	최현태 (문리 62)		구명순 (간호 66)	서갑식 (공대 70)
박용걸 (약대 56)*	이선구 (인문 65)	박찬형 (의대 56)	임수암 (공대 62)	배성호 (의대 65)	한기빈 (공대 52)	김기현 (문리 52)	김경숙 (가정 70)*	오선웅 (의대 63)
박인영 (의대 69)	이연주 (치대 88)	박찬형 (2016)	주중광 (약대 60)	손재옥 (가정 77)	한수웅 (의대 55)*	마동일 (의대 57)	김명자 (문리 62)	신승하 ( )
박일영 (문리 59)	이유세 (사대 72)	변종혜 (법대 58)	최재학 (사대 56)	송영두 (의대 56)	한융오 (보건 70)	성예경 (치대 54)	김승희 (법대 55)	
박은희 (미대 68)	이윤주 (상대 62)*	류성렬 (공대 72)*	최종진 (의대 63)	송성균 (공대 50)	한인섭 (약대 63)	이달호 (사대 45)	김호원 (치대 52)	
박 철(공대 57)	이인옥 ( 68)	안승적 (농대 59)*	한 호(상대 62)	서재진 (공대 47)	황선희 (공대 74)	이범세 (의대 56)	도태영 (사회 93)	

$\circ$	-
~	_
~	~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75 (2017. 7 ~ 2018. 6)	□ \$240 (2017. 7 ~ 2018. 6)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 \$500	□ \$150 (2017. 7 ~ 2019. 6)	□ \$480 (2017. 7 ~ 2019. 6)	□ Charity Fund (나눔) \$
□ \$1,000	□ \$3,000 (종신이사회비)	일반 광고 문의:	□ Brain Network 후원금 \$
□ \$		general@snuaa.org	□ 모교발전기금 \$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 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NV 네바다

이 자리에 광고하실 분을

모십니다.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240 Grand Ave Suite 2 Leonia NJ 07605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I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29

## 미주 동문 업소록

#### CA 남가주

광고

#### Pancom 광고기획

김영민 (농대 72)

Tel:(213)427-1377 / youngkim@pancom.com 3701 Wilshire Blvd. #800, LA, CA 90010

#### 공인회계사

####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LA) (714) 530-3630(Garden Grove, CA)

####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 운송 / 유통 / 원자재

####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 식품 / 음식점

####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 의료 / 약국

####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 **KMAX**

유창호(약대74)

Tel. 213-381-3200 814 S. Alvarado St. L.A. CA 90057

####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877) 764-1405 520 S. Virgil Ave.#103 LA, CA 9000

####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Tel: (213) 387-3030

오흥조(치대 56)

Oh, Heung Jo 2860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8205

####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 우주개발 / 기술

####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 동물병원

####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 한태호 변호사 볍률그룹

www.haanlaw.con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lee@gmail.com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ASSI Plaza

#### **Cottman Animal Hospital**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 Blue Bell Family Dentistry

Tel. (610) 278-1110

#### 건축

#### Timothy Haahs & Assoc.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 클리닉

286호 | 2018년 2월 호

####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 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www.isope.org, jschung@isope.org

###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 Wesley & Associates, CPA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 PA 필라델피아

음식점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 동물병원 / 치과

주기목 (수의대 68)

김순주 (치대 95)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손재옥 (생활과대 77)

####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 치과

####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 NJ 07624 내과

####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Englewood Cliffs, NJ 07632

#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 재활의학

####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HY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 비뇨기과

####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 알러지

#### 이혁엽 알러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렬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렬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효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효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 부동산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15 OF 17 SOLUTION SECURITY OF 광고문의: (484)344-5500

##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7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시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원고를 모집합니다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BPS Appraisal Company** 

#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 당신。| 꿈꾸는 모든 여행。| 가능합니다!

전세계 파트너쉽으로 어느곳이든 이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 제14대 미주동창회

#### 역대회장

박윤수 (문)·강수상 (의)·이병준 (상)·오인석 (법)·이용락 (공) 오흥조 (치)·이영묵 (공)·이전구 (농)·송순영 (문)·김은종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옥 (가정)

####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수석 부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황보민영 (공)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IT 국장: 곽세흥 (공)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한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김정현 (공), 신응남 (농)

편집 위원:

곽세흥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김제성 (공),

배지선 (수), 장수인 (음), 정태영 (문), 이영인 (사),

윤용훈 (공), 허유선 (가정), 홍선례 (음), 한정민 (농)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 IT위원장: 김정현 (공)

####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헌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원영 (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 회칙 위원회: 위원장 한재은 (의)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헌 (상), 서중민 (공), 이강원 (공), 이민언 (법), 함은선 (음)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사회 봉사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수)

위원: 각 지부 회장

####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 미주지역 동창회 회장단

286호 | **2018년 2월 호**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회장	강신용 (사대 73)	213-380-1600	aamkocpa@gmail.com	F.b. L.
S.CA/NV	차기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Feb-Jan
북가주	회장	임희례 (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SANFRANCISCO	차기회장				Jan-Dec
뉴욕	회장	이대영 (문리 64)	516-770-0070	dyldyl88@hotmail.com	
NY/NJ	차기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July-Jun
뉴잉글랜드	회장	박영철 (농대 64)	781-674-2498	youngpark6@yahoo.com	
MA/RI/NH/ME/VT	차기회장				Jul-Jun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이석호 (농대 78)	214-244-3630	iseoko@gmail.com	Jan-Dec
록키마운틴스	회장	최용운 (공대 77)	480-207-9992	ymcgreencorp@gmail.com	
MT/CO/WY/NM	차기회장				Jan-Dec
미네소타	회장	황효숙 (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MINNESOTA	차기회장				Jan-Dec
샌디에고	회장	이제봉 (인문 88)	760-585-8396	jebong20@yahoo.com	
SAN DIEGO	차기회장				Nov-Oct
시카고	회장	홍혜례 (사대 72)	773-896-7987	hyerye.hong@gmail.com	
IL/IN/WI/MI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Jan-Dec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ARIZONA	차기회장			, - 3	
앨라스카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ALASKA				, , , , , , , , , , , , , , , , , , ,	
0.11.2	회장	김기린 (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오레곤 OR/ID	차기회장	L-12 (11173)	300 213 3110	blacberry nera@gmail.com	Jan-Dec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오하이오 OHIO	차기회장	916T (65II 12)	014-370-3701	Titistiake@amentech.net	
		안선미 (농대 65)	247 776 0204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근 (자연 82)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tiinc94@gmail.com	Jan-Dec
WASHINGTON	총무	임헌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OTATI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GA/AL/IVIS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회장				
MID-TEXAS					
필라델피아	회장	박혜란 (음대 84)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Jul-Jun
PA/DE/S.NJ	차기회장				
플로리다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FLORIDA	차기회장				3411 200
캐롤라이나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SC/NC/KY	차기회장				
커네티컷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СТ	차기회장				
테네시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lan Der
TENNESSEE	부회장				Jan-Dec
하와이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HAWAII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Jul-Jun
하틀랜드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u> </u>
IA/MO/KS/NE/AR/OK					Sep-Aug
IA/WO/IG/IN/AIGOR		구자동 (상대 70)	713-206-1942	jykey2003@yahoo.com	
	회장	1.10 (0-1170)		<u> </u>	Jan-Dec
휴스턴 HOUSTON	회장  부회장	1.48 (8-1170)			
휴스턴 HOUSTON			778-378-7339	nycmikelee@amail.com	
휴스턴	부회장 회장	이명규 (농대 69)		nycmikelee@gmail.com	Jan-Dec
휴스턴 HOUSTON	부회장		778-378-7339 604-524-0101 403-617-7585	nycmikelee@gmail.com movics@shaw.ca	Jan-Dec





제14대 미주동창회 집행부 (회장 윤상래)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Jayone 대표: 이승훈 (상대 74)

# 우래옥

Woo Lae Oak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 Reservation

Tel: 703-827-7300 woolaedak.tysons@gmail.com

대표: 백행남 (문리 60)





저렴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문, 신선하고 또 신선한 제품에만 너그러운 문, 품질이 좋지 않으면 굳게 닫히는 문, 그러나 세상 사람 모두에겐 활짝 열려있는 문 –

# 어서오세요! 여기는 365일, 고객과 함께하는 한남체인입니다

하기환 (공대 66)



토랜스점 (310)539-8899 3030 W.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플러튼점 (714)736-5800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다이아몬드바점** (909)839-1121 21080 W. Golden Springs Dr. Walnut, CA 91789 **라팔마점** (562)924-7422 4951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4

